
BUSAN
INTERNATIONAL
SHORT 부산국제단편영화제
FILM
FESTIVAL
37th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20.08.27 - 08.31
영화의전당·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주 최·주 관 |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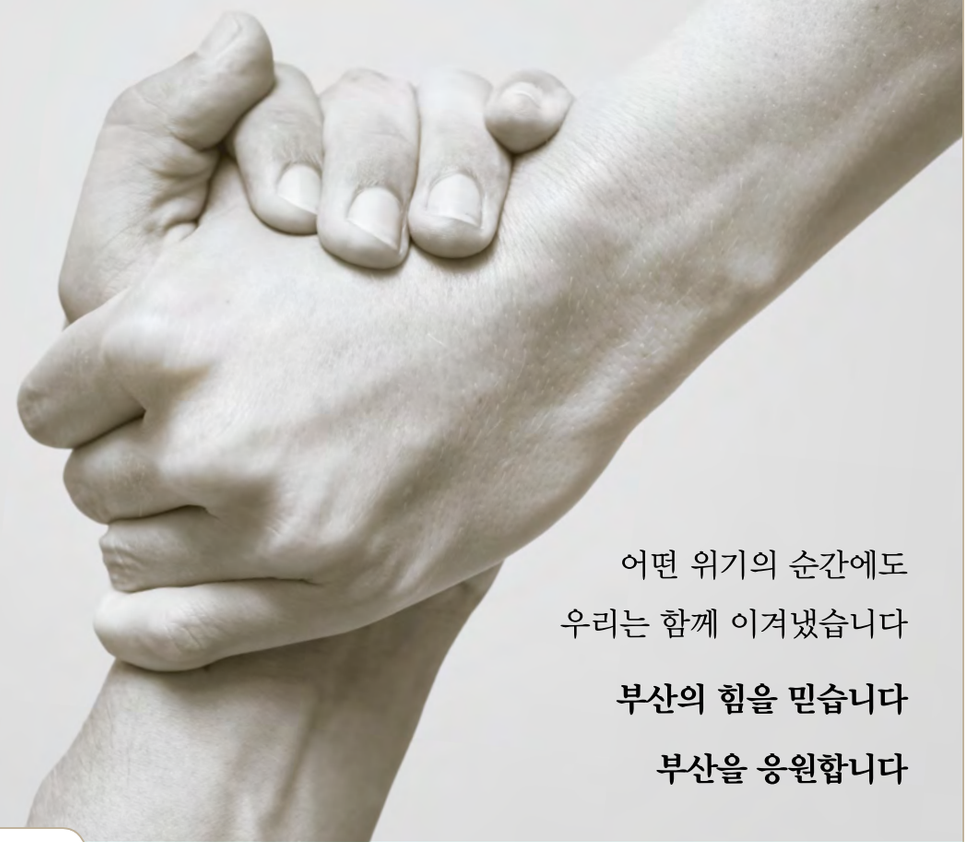
부산은행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은행의 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되는 은행, 바로 부산은행입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힘내라 부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부산의 힘을 믿습니다

부산을 응원합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Busan Welcomes you to Asia's Most Energetic Short Film Festival

아시아 최고의 단편 영화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USAN CITY OF FILM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Contributors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부산광역시 중구 JUNG-GU BUSAN METROPOLITAN CITY

BNK 부산은행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Festival Partners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

since 1999 BIFA 부산독립영화협회 Busan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BIKY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Kids & Youth Film Festival

KAFA FUND (재)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Korean Academy of Film Arts FUND

고려은단

CAHIERS

HYUNDAI

citadines Haeundae Busan

JIN AEON

DHL

10th anniversary CENTRAL PARK FILMS

LIQUID ARTS Network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CINEFOX

EMBASSY OF BELGIUM IN SEOUL
republicofkorea.diplomatie.belgium.be

af Alliance Française Busan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힘내라 한국영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한국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 지원 전담 창구

코로나19 대응전담TF (직통전화) 051-720-4866
(이메일) help2020@kofic.or.kr

코로나19 일일 자기점검표 (카카오톡플친)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목차 Contents

08 인사말
14 상영일정표
20 티켓 안내
22 행사장 안내
24 영화제 조직
25 영화제 스태프 & 비바(자원활동가)
26 포스터 & 트레일러
27 단편영화 제작지원
28 시상내역
30 심사위원
35 관객상
37 프로그램 소개

41 개막작 & 폐막작

47 경쟁부문
- 국제경쟁
- 한국경쟁
- 오퍼레이션 키노

92 주빈국
- 벨기에 파노라마
- 벨기에 시네아스트
- 벨기에 모자이크

104 아시아 쇼츠
- 코리안 멜팅팟
- 몽골 쇼츠
- 아시아를 점령하라

117 비욘드 쇼츠
- 프리즘
- 인터랙티브 쇼츠

129 앙코르 쇼츠
- 커튼콜
- 포커스 온 브라질
- 서프라이즈!
- 부산 IN
- 센트럴파크 특별전

150 어린이 쇼츠

157 다함께 BISFF
- BISFF 토크: 듀엣
- 라운드테이블
- 관객리뷰단
- 37초 UCC 공모전 "SHORT TIME"
- 이벤트 & 기념품

166 색인
172 도움 주신 분

08 GREETINGS
14 SCREENING SCHEDULE
20 TICKET INFORMATION
22 INFORMATION FOR FESTIVAL VENUES
24 FESTIVAL ORGANIZATION
25 FESTIVAL STAFF & BIVA (BISFF VOLUNTEERS)
26 POSTER & TRAILER
27 BISFF SHORT FILM PROJECT
28 AWARDS
30 JURY
35 AUDIENCE AWARD
37 2020 BISFF INTRODUCTION

41 OPENING & CLOSING FILMS

47 COMPETITION
- International Competition
- Korean Competition
- Operation Kino

92 GUEST COUNTRY
- Belgium Panorama
- Belgium Cineaste
- Belgium Mosaic

104 HUB OF ASIA
- The Korean Melting Pot
- Mongolian Shorts
- Occupy Asia

117 BEYOND SHORTS
- Prism
- Interactive Shorts

129 ENCORE SHORTS
- Curtain Call
- Focus on Brazil
- Surprise!
- Busan IN
- Central Park Films Special

150 SHORTS FOR KIDS

157 BISFF TOGETHER
- BISFF Talk: Duet
- Roundtable
- Audience Critics
- 37-sec UCC Contest "Short Time"
- Event & Souvenir

166 INDEX
172 ACKNOWLEDGEMENTS

인사말 Greetings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사장

차 민 철

President of BISFF

Cha Minchol

지난겨울 발생하여 유례없는 전 세계적 감염으로 이어져 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뉴 노멀(New Normal)'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매개로 관객들과 영화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영화제도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올해 서른일곱 번째 영화제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해온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올해 영화제는 8월 말로 연기하였고 영화제 참여가 예정되어 있던 많은 해외 영화인들이 부산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화 상영은 물론, 주빈국 행사를 비롯한 많은 부대행사들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처음 나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나서는 길이 아니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출발한 이 길의 끝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고민하고 있는 '영화의 경계 흔들기'라는 주제의식을 통해 창의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영화제의 기억은 여느 때보다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을 것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모든 분들에게 작지만 강한 치유가 되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영화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The COVID-19 pandemic, which broke out last winter and led to an unprecedented worldwide infection, is changing every aspect of our lives. This change has made "the new normal" a central theme in all sectors of society. Film festivals, in which audiences and filmmakers communicate and interact through cinema, are also facing these challenges and changes head-on.

Over the past 36 years,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has continued to grow thanks to the interest and help of many people, sometimes through difficult times. Scheduled to be held at the end of April, our 37th edition was postponed until the end of August, and a lot of what we were planning had to be reorganized and adapted. Meanwhile, many overseas filmmakers who were going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are unable to attend. The screenings, as well as many other events including the Guest Country programs, should consequently be held in a new way.

Taking a new path can be a scary endeavor. Yet, seeing as we aren't walking it alone, we decided to let go of that fear. We are now looking forward to reach its end and, with it, a new mileston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We also hope that these new challenges will inspire creative changes by "Pushing Boundaries of Cinema", which is BISFF's theme and objective this year.

The memory of this year's edition will remain in our minds for a long time. I hope that the films screened at 2020 BISFF will perform a small but powerful healing for everyone.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and support to all the filmmakers who have sent great works in the midst of this global disaster.

축사 Congratulations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오 석 근

Korean Film Council Chairman

Oh Seokgeun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국내 최초 미국 아카데미 공식 인증 영화제로 선정되어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것과 동시에 한국 단편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계 흔들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실험적이고 열정적인 작품들을 만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로 관객과 영화인이 함께 영화를 향유할 순간들이 잠시 멈추어야 했지만, 올 여름 개최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다시 영화로 서로를 이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본연의 의미를 잃지 않으며, 관객과 영화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화제로 개최되도록 영화진흥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을 지키고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가능한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번째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을 축하 드리며, 2020년 여름의 한 페이지에 잊지 못할 보물같은 단편영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As the first Academy Awards qualifying film festival in Korea, BISFF has established a solid international foothold, and continues to contribute greatly in making Korean short films 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Held under the theme "Pushing Boundaries of Cinema", this year's festival will be a venue for watching passionate and experimental works by filmmakers from around the globe.

While the sudden onset of COVID-19 put a temporary pause on this joyous occasion to be shared between audience and filmmakers, I hope that this summer's BISFF can again be a bridge connecting us through film and giving us hope and courage. In an effort to assist BISFF in staying true for what it stands for while committing to everyone's safety first, the Korean Film Council will provide all possible support to create a safe festival environment by observing quarantine guidelines such as "social distancing."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37th BISFF. We hope that you discover unforgettable short films during the summer of 2020.

Thank you.

축사 Congratulations



(사)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 인 수

Director of Busan Film Commission

Kim Insoo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편영화제 상영을 기다려 온 국내외 팬 여러분과 부산시민 분들에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안전한 치유'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영화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의 영화 소비 방식이 극장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OTT등의 다양한 채널로 확장됨에 따라, 단편영화도 기존 제작•배급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의 경계 흔들기'라는 주제로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번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기존 담론을 넘어 새로운 영화적 혁신을 내밀하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계를 아울러 영화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열정적인 단편 영화들의 향연,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I hope that BISFF can become a safe and healing experience for everyone who waited for this short film festival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film industry is currently undergoing many changes. In particular, as the method of watching films has expanded beyond the theater to various channels such as OTT, short films are also expanding beyond the present framework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make more creative attempts.

In such an environment, BISFF showcasing films with an “experimental spirit” and “innovative methods” under the theme “Pushing Boundaries of Cinema” is truly meaningful, in that it intimately highlights new cinematic innovations.

Please enjoy this feast, prepared for you at the 37th BISFF, made of passionate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and which are redefining the concept of cinema beyond its existing boundaries.

Thank you.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020 BISFF

단편영화 100% 즐기기 How to fully enjoy short films

TIP 1

하나의 티켓으로 하나 이상의 영화를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판매되는 티켓은 단편영화 한 편의 티켓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쇼츠 1'의 티켓을 구매할 경우, 〈담요〉, 〈꽉 찬 마음〉, 〈토비와 터보버스〉, 〈기린의 자전거〉, 〈로봇과 고래〉까지 5편의 단편영화 모두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요〉를 관람하고 싶으시다면 '어린이 쇼츠 1'의 티켓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One ticket for several films

A tickets sold at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not a ticket for one short film. For instance, a ticket for "Shorts for Kids 1" will allow the viewing of all its 5 films, namely: *Blanket*, *Stuffed*, *Tobi and the Turbobus*, *The Giraffe's Bicycle*, *Robot & the Whale*. Therefore, if you want to watch the *Blanket*, please purchase a ticket for the section, "Shorts for Kids 1".

TIP 2

각각의 영화에 여운 느끼기

하나의 프로그램은 60-90분의 러닝타임에 맞춰 3-6편으로 구성됩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는 한 편의 영화가 주는 여운을 즐기기 위하여, 단편영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잠시 장내 불이 켜진 후 다시 불이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Enjoy all films

A program consists of 3 to 6 short films, and the running time of the programs may vary from approximately 60 to 90 minutes.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turn on the light for a brief moment after a film is shown and then turn off at the start of the next one in order that audience appreciate every movie's after taste.

TIP 3

상영등급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단편영화의 상영등급이 서로 다를 때, 가장 높은 상영등급의 작품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을 위해 상영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m Rating

Short film programs may have different film rating that determined by the highest film rating among its short films.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film ratings before purchasing tickets.

TIP 4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가이드(PG)'는 영화 상영 전에 진행되는 영화 해설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영화 속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영화의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Program Guid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as its own special 'Program Guide(PG)'. Directors or programmers will be your guide of watching movie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ilms before the screening begins. It is a great chance for the directors or programmers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the films by explaining the program's intention and background of the movies.

TIP 5

관객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GV)'는 영화에 참여한 감독, 배우와 함께 영화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각 단편영화가 상영된 후 바로 진행됩니다. '관객과의 대화(GV)' 후 바로 다음 영화가 상영되니, 질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Guest Visit

'Guest Visit (GV)' is a Question & Answer session with the directors and a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movie. It will start immediately after the screening of each short film. Please do not exit the theater as the next movie will start screening immediately after the 'Guest Visit(GV)'.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일정표 보는 법 How To Read



섹션 색상 Section Colors

- 경쟁 Competition
- 주빈국 Guest Country
- 아시아 쇼츠 Hub of Asia
- 비욘드 쇼츠 Beyond Shorts
- 앙코르 쇼츠 Encore Shorts
- 어린이 쇼츠 Shorts for Kids

등급 Ratings

- G 전체관람가 General
- 12 12세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 15세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 청소년 관람불가 Under 18 not admitted

대사 / 자막 Dialogue / Subtitles

별도 표기(No English Sub)가 없는 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제공됩니다.

- 영어대사: 한글자막 제공
- 한국어대사: 영어자막 제공
- 기타언어대사: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Unless stated otherwise (No English Sub), all films will have:

- Korean subtitles for English language
- English subtitles for Korean language
- Korean & English subtitles for other languages

상영관 Theaters

- 중극장 Cinema I
- 소극장 Cinema II
-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본 카탈로그는 7월 10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7월 10일 이후 변동사항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bisff.or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Ticket Catalogue was published on July 10th. Please check out BISFF website (www.bisff.org) periodically for changes after July 10th.
Guest Visits (Q&A) are subjected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7 (Thu)	중극장 Cinema I	소극장 Cinema II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11:00				
11:30			어린이 쇼츠 1 Shorts for Kids 1 G 33' P.152	
13:30		한국경쟁 1 Korean Competition 1 15 74' P.74		
14:00			국제경쟁 2 International Competition 2 15 87' P.54	
16:00		한국경쟁 2 Korean Competition 2 15 73' P.76		
16:30			국제경쟁 1 International Competition 1 15 73' P.52	
18:30				
19:00	개막식 Opening Ceremony 개막작 Opening Films 황금 성인전 The Golden Legend 툰그루스 Tungrus 사원증 ID Card 15 56' P.42			

국제경쟁 1 원시 수프
International Competition 1
The Primordial Soup
- 푸른 경계 Blue Frontier
- 열두 살의 여름 The Summer of 12
- 강속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River
- 정신 차려 Stay Awake, Be Ready

국제경쟁 2 천의 얼굴을 가진 신
International Competition 2
The Many-Faced God
- 들숨 Inhale
- 비라고 Virago
- 베를린 화장장 POST MORTEM berlin
- 다시 한번 Re-Entry
- 우주를 향하여 He Can't Live without Cosmos

국제경쟁 3 성장 곡선
International Competition 3
Growth Curves
- 마티가 보낸 사랑 From Matti with Love
- 표류 Drifting
- 브루클린 공원 Brooklyn Park
- 워드의 헤나파티 Ward's Henna Party
- 슈퍼 히어로가 되긴 아직 일러 And Yet We're Not Super Heroes

국제경쟁 4 다이나믹 듀오
International Competition 4
Dynamic Duos
- 천 개의 돛 A Thousand Sails
- 아버지 Father
- 아빠와 딸 Daughter
- 밤이 오면 Then Comes the Evening

국제경쟁 5 신기루
International Competition 5
Greener Grass
- 일몰 Sunsets
- 부뚓가의 남자 L'Homme Jetée
- 밴 The Van
- 니자르 Nizar

국제경쟁 6 구조신호
International Competition 6
Help Wanted
- 당직 Dogwatch
- 리부트 Rebooted
- 케플러 – 452b Night Upon Kepler 452b
- 미뇽 Mignion

국제경쟁 7 불타는 열정
International Competition 7
Fiery Tempers
- 2050 2050
- 아이 죽이기 The Killing of a Child
- 작은 영혼 The Little Soul
- 올라 Olla
-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I was Still There When You Left Me

국제경쟁 8 트라우마적 유대
International Competition 8
The Trauma Bond
- 독버섯 Amanita
- 아담 Adam
- 살롱 Salon
- 모자이크 조각 Shard Mosaic
- 밤상에서 울지마라 No Crying at the Dinner Table

국제경쟁 9 불평등의 역설
International Competition 9
The Inequality Paradox
- 세우타의 관문 Bab Sebta
- 민병대 Rebel
- 강가에서 At a Riverside
- 혁명의 역사 History of the Revolution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8 (Fri)	중극장 Cinema I	소극장 Cinema II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10:00	국제경쟁 4 International Competition 4 15 81' P.59	한국경쟁 3 Korean Competition 3 15 79' P.77		
10:30			코리안 멜팅팟 The Korean Melting Pot 15 85' P.106	
12:30	국제경쟁 5 International Competition 5 15 84' P.61	벨기에 모자이크 Belgium Mosaic 15 86' P.101		
13:00			프리즘 2 Prism 2 PG 12 54' P.122	
15:00	국제경쟁 6 International Competition 6 15 80' P.63	국제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15 85' P.56		
15:30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GV 15 84' P.88	
17:30	국제경쟁 7 International Competition 7 15 76' P.65	한국경쟁 5 Korean Competition 5 GV 15 80' P.82		
18:00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15 80' P.98	
20:00	센트럴파크 특별전 Central Park Films Special GV 15 101' P.147	몽골 쇼츠 Mongolian Shorts 15 65' P.109		
20:30			포커스 온 브라질 Focus on Brazil 18 76' P.135	

한국경쟁 1 뫼비우스의 띠
Korean Competition 1
Möbius Strip
- 호랑이와 소 Tiger and Ox
- 어머니와 화가 Painter & Mom
- 레오 Leo
- 파테르 Parterre

한국경쟁 2 두 번째 스물
Korean Competition 2
Second Youth
- 상팔자 Empty
- 고잉 마이 홈 Going My Home
- 나의 새라씨 To Each Your Sarah

한국경쟁 3 삼일치 법칙
Korean Competition 3
The Three Unities
- 내가 그리웠니 AKA 5JO
- 스타렉스 Pick-up
- 눈치돌기 The Insect Man
- 조립 Assembly
- 포세일 For Sale

한국경쟁 4 스파이시 걸스
Korean Competition 4
Spicy Girls
- 대리시험 Proxy Exam
- 여고생의 기묘한 자율학습 Bizarre Research of a High School Girl
- 주근깨 Freckles
- 찌르개 Pointer

한국경쟁 5 상실의 시대
Korean Competition 5
The Stages of Grief
- 스네일 맨 Snail Man
- 디어 엘리펀트 Dear Elephant
- 령희 Alien
- 사원증 ID Card

이 상영작은 단편영화 제작지원작으로 한국경쟁 5와 함께 상영됩니다.
This Film is a 'Short Film Project' support and will be screened with the Korean Competition 5.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 그곳에 가면 If You Go There
- 아브락사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Abraxas
- 존 The Zone
- 집에 간 이후 Since I Went Home
- 청년 고호석 Young Ko Ho-seok
- 추레라맨 Where We Go

29 (Sat)	중극장 Cinema I	소극장 Cinema II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10:00	국제경쟁 8 International Competition 8 15 79' P.67	한국경쟁 4 Korean Competition 4 15 80' P.80		
10:30			어린이 쇼츠 2 Shorts for Kids 2 G 58' P.155	
12:30	국제경쟁 9 International Competition 9 15 78' P.70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GV 15 84' P.88		
13:00			커튼콜 Curtain Call 15 80' P.131	어린이 쇼츠 1 Shorts for Kids 1 G 33' P.152
15:00	한국경쟁 1 Korean Competition 1 GV 15 74' P.74	국제경쟁 2 International Competition 2 15 79' P.54		센트럴파크 특별전 Central Park Films Special 15 101' P.147
15:30				
17:30	한국경쟁 2 Korean Competition 2 GV 15 73' P.76	국제경쟁 4 International Competition 4 15 81' P.59		부산 IN Busan IN 12 67' P.143
18:00			프리즘 1 Prism 1 PG 12 60' P.120	
20:00	한국경쟁 3 Korean Competition 3 GV 15 79' P.77	국제경쟁 1 International Competition 1 15 73' P.52		
20:30			서프라이즈! Surprise! PG 18 78' P.139	

벨기에 파노라마
Belgium Panorama
- 휴가 Holiday
- 감금 Lockdown
- 나의 행성 My Planet
- 황금 성인전 The Golden Legend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 Blow Up My Town
- 방 The Room
- 르 15/8 August 15
-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벨기에 모자이크
Belgium Mosaic
- 대나무 Bamboo
- 우리 셋 Us Three
- 좀비들 Zombies
- 우리들의 땅 Our Territory

코리안 멜팅팟
The Korean Melting Pot
- 의건 Euigon
- 플롬 Flop
- 스프라우트 Sprout
- 여름이 끝날 무렵 After Summer
- 세컨드 홈 Second Home

몽골 쇼츠
Mongolian Shorts
- 숨 Breathe
- 끈 Tie
- 아름다움 The Face of Beauty
- 미처 하지 못한 인사 Never Said Goodbye
- 고집 Persistence
- 삶 As the Rock Grow
- 반자연주의 Antinatural
- 재앙 Aranga
- 잃어버린 시간 Lost Time

아시아를 점령하라
Occupy Asia
- 빗물: 표상과 의지 Being Rain: Representation and Will
- 침묵 Silence
- 근대성의 신화 Myth of Modernity
- 명령 Order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30 (Sun)

	중극장 Cinema I	소극장 Cinema II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10:00	커튼콜 Curtain Call 15 80' P.131	국제경쟁 7 International Competition 7 15 76' P.65		
10:30			국제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15 85' P.56	
12:30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15 80' P.98	국제경쟁 6 International Competition 6 15 80' P.63		
13:00			아시아를 점령하라 Occupy Asia GV 15 77' P.114	어린이 쇼츠 2 Shorts for Kids 2 G 58' P.155
15:00	한국경쟁 4 Korean Competition 4 GV 15 80' P.80	벨기에 파노라마 Belgium Panorama 15 87' P.95		포커스 온 브라질 Focus on Brazil 18 76' P.135
15:30			코리안 멜팅팟 The Korean Melting Pot GV 15 85' P.106	
17:30	한국경쟁 5 Korean Competition 5 GV 15 80' P.82	국제경쟁 5 International Competition 5 15 84' P.61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15 84' P.88
18:00			벨기에 모자이크 Belgium Mosaic 15 86' P.101	
20:00	부산 IN Busan IN GV 12 67' P.143	국제경쟁 8 International Competition 8 15 79' P.67		
20:30			프리즘 2 Prism 2 PG 12 54' P.122	

프리즘 1
Prism 1
- 필름 워크 Film Walk
- 와일드 익스텐션 Wild Extension

프리즘 2
Prism 2
- 페이퍼 랜드스케이프 #1 Paper Landscape #1
- 거울을 든 사람 Man with Mirror
- 일시 정지로 이끄는 영화 Movie that Invites Pausing

인터랙티브 쇼츠 1
Interactive Shorts 1
- 프리즌 밸리 Prison Valley
- 포트 맥머니 Fort McMoney
- 다다-다타 Dada-Data

인터랙티브 쇼츠 2
Interactive Shorts 2
- 상처 주는 말 Words Hurt
- 존 윅: 콤피텀 John Wick: Compitum
- 어쩌다 마주친 그대 Destiny
- 흡집 Not Today
- 데이, 데이 Day, Day
- 그의 기억 His Memory

인터랙티브 쇼츠는 온라인으로 상영되며 상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bisf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Shorts will be screened online, and how to proceed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stival (www.bisff.org).

31 (Mon)

	중극장 Cinema I	소극장 Cinema II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10:00	어린이 쇼츠 1 Shorts for Kids 1 G 33' P.152	벨기에 파노라마 Belgium Panorama 15 87' P.95		
10:30			몽골 쇼츠 Mongolian Shorts 15 65' P.109	
12:30		어린이 쇼츠 2 Shorts for Kids 2 G 58' P.155		
13:00			서프라이즈! Surprise! 18 78' P.139	
15:00		국제경쟁 9 International Competition 9 15 78' P.70		
15:30			아시아를 점령하라 Occupy Asia 15 77' P.114	
17:30				
19:00	폐막식 Closing Ceremony P.42			
20:00				
20:30				

커튼콜
Curtain Call
- 한 해의 끝 Tail End of the Year
- 툰그루스 Tungrus
- 예언자 Oracle
- 에그 Egg
- 스윙게라 Swinguerra

포커스 온 브라질
Focus on Brazil
- 악마와 함께 춤을 춘 소녀 The Girl who Danced with the Devil
- 개미 퇴치제 Ant Killers
- 비가 내려도 축구 Sadder than Playtime on a Rainy Day
- 여전히 어제 Only Yesterday
- 구아슈마 Guaxuma

서프라이즈!
Surprise
- [redacted] 먹어 [redacted] You
- 심비오시스 [redacted] Simbiosis [redacted]
-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 사라의 [redacted] 고백 Sara's [redacted] Confessions
- [redacted] 쇼 [redacted] Show

부산 IN
Busan IN
- 영지 Young Ji: Work Hard
- 캡틴 The Captain
- 태 Form
- 키키가 보낸 메시지 Message from Kiki
- 네 번째 여름 The 4th Summer

센트럴파크 특별전
Central Park Films Special
- 로니 Roni
- 미드나잇 썬 Midnight Sun
- 선 The Line
- 수학여행 A Brand New Journey

어린이 쇼츠 1
Shorts for Kids 1
- 담요 Blanket
- 꽉 찬 마음 Stuffed
- 토비와 터보버스 Tobi and the Turbobus
- 기린의 자전거 The Giraffe's Bicycle
- 로봇과 고래 Robot & the Whale

어린이 쇼츠 2
Shorts for Kids 2
- 달의 아이들 Moon Children
- 테오도르와 마법의 붓 Drawn to Trouble
- 포스트 잇! Post It!
- 에이코 Aye Ko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 가격

	장소	금액	
개막식	영화의전당 (중극장)	7,000원	
일반 상영	영화의전당 (중극장/소극장/시네마테크)	일반 성인 및 대학생	7,000원
		만 18세 이하	5,000원
		단체관람 (15인 이상)	1인당 1,000원 할인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선착순 무료	
폐막식	영화의전당 (중극장)	선착순 무료	
문의	051-742-9600		

예매 안내

▶ 온라인·현장 예매시작
8월 13일(목) 10:00

	온라인		현장	
	예매처	예매마감	예매처	예매마감
개막식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http://www.dureraum.org	8월 27일(목) 17:00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6층 매표소	8월 27일(목) 18:30
일반 상영		8월 31일(월) 15:00		8월 31일(월) 15:00
폐막식	온라인 예매 불가 8월 31일(월), 당일 현장 발권 09:00-18:50 시네마운틴 6층			

취소 및 환불규정

1. 상영 시작 이후 해당 상영작 티켓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영화제 사정으로 상영이 취소될 경우 폐막일까지 매표소에 티켓 제시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3. 모든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영화의전당 규정에 따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상영 시작 시간 이후 입장이 절대 불가하오니 상영 시작 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티켓 분실이나 파손 시,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영관 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금합니다.
4. 상영등급 구분에 따라 입장이 통제되오니 상영등급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icket Price

	Theater	Price	
Opening Ceremony	Cinema Ⅰ, Busan Cinema Center	7,000 KRW	
General Screening	Busan Cinema Center (Cinema Ⅰ / Cinema Ⅱ / Cinematheque)	Adult & Univ. Student	7,000 KRW
		Children under 18	5,000 KRW
		Group (more than 15 persons)	A discount of 1,000 KRW per person
	BNK BUSAN BANK Art Cinema	Free Admission	
Closing Ceremony	Cinema Ⅰ, Busan Cinema Center	Free Admission	
Contact	+82-51-742-9600		

Ticket Reservation Information

▶ On-line / On-site Ticketing from August 13 (Thu) 10:00

	On-line		On-site	
	Ticket Site	Ticket Closing	Ticket Box	Ticket Closing
Opening Ceremony	Busan Cinema Center Website http://www.dureraum.org	August 27 (Thu) 17:00	6F, Cinemountain, Busan Cinema Center	August 27 (Thu) 18:30
General Screening		August 31 (Mon) 15:00		August 31 (Mon) 15:00
Closing Ceremony	Only available at the Ticket box 09:00-18:50, August 31 (Mon), On-site ticketing on the day, 6th Floor, Cinemountain, Busan Cinema Center			

Cancellation & Refund Reg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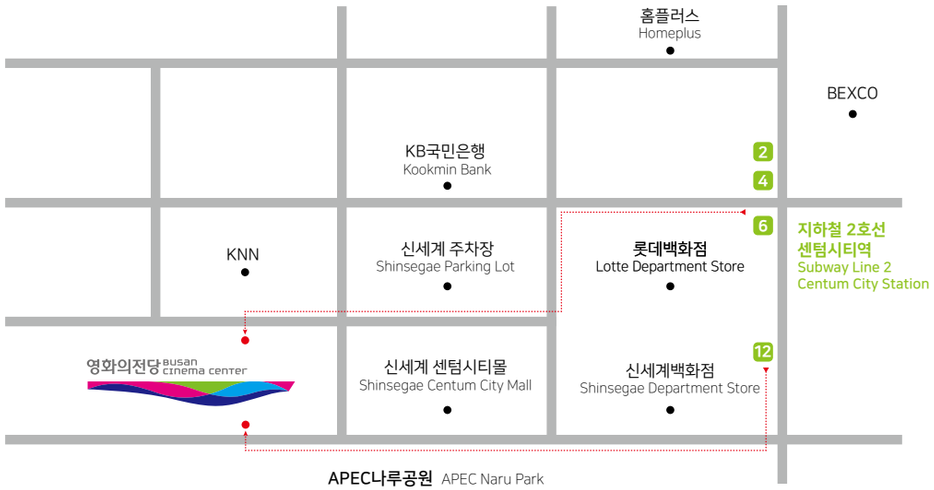
1. When the screening begins, ticket refund is not possible.
2. If the screening is cancelled due to the festival circumstances, audience possessing a ticket will get a 100% refund by the closing day.
3. BISFF follows the Busan Cinema Center's regulations for cancellations and refunds.

Notice

1. Please arrive at the theater at least 1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It is NOT possible to enter the theater after the film starts.)
2. Tickets cannot be replaced if lost or damaged.
3.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are strictly prohibited during screening.
4. Admittance is restricted according to film rating. Please follow the rules of admission.

행사장 안내 Information for Festival Venues

1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행사장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지하철 이용 안내
2호선 센텀시티역 6번, 1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버스 이용 안내
신세계 센텀시티, 벡스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 하차 후, 도보 5분
노선번호 5-1, 39, 40, 63, 107, 115, 139, 141, 155, 181
307(좌석), 1001(급행), 1002(급행)

주차안내 (운영시간 8:00-23:00)
기본요금 30분 이내 무료, 초과 시 30분 당 1,000원
영화관객 티켓 소지 시 3시간 무료
일일요금 15,000원
할인요금 (50% 할인) · 경차/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 등재자,
· 선택 요일제 참여차량,
· 부산시에서 배부한 친환경차량 마크(스티커) 부착된 차량

Address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Subway Information
Get off at Centum City station, Line 2 and 5 minutes on foot from Exit 6 or 12.

Bus Information
Get off at Shinsegae Centum City, BEXCO, Homeplus Centum City, 5 minutes on foot.
Bus Number 5-1,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107, 307,
1001 (express), 1002 (express)

Parking Information (Opening hours 8:00-23:00)
Parking Fee Free parking for up to 30 minutes, 1,000 KRW per 30 minutes after the first 30 minutes.
Movie Ticket Holder Free parking for up to 3 hours by showing movie ticket.
Day-long Parking 15,000 KRW
Discount (50%) Compact car / cars with a disability sticker or national honoree, registered multiple children family card, eco-friendly vehicle mark sticker distributed by the city of Busan

2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행사장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13

지하철 이용 안내
1호선 남포역 1번, 3번 출구에서 도보 8분
1호선 자갈치역 7번 출구에서 도보 8분

버스 이용 안내
국제시장, 남포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노선번호 6, 8, 15, 40, 61, 70, 81, 86, 87, 126
1000(급행), 1004(급행)

※ 해당 행사장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ddress
13, Gwangbokjungang-ro, Jung-gu, Busan

Subway Information
Get off at Nampo station, Line 1 and 8 minutes on foot from Exit 1 or 3.
Get off at Jagalchi station, Line 1 and 8 minutes on foot from Exit 7.

Bus Information
Get off at Gukje-market, Nampo-dong, 5 minutes on foot.
Bus Number 6, 8, 15, 40, 61, 70, 81, 86, 87, 126, 1000 (express), 1004 (express)

※ It is not allowed to park at this bulding, so please park in the parking lot nearby.

영화제 조직 Festival Organization

이사회 Board

이사장 President

차민철 Cha Minchol —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이사 Board Members

김사겸 Kim Sagyeom — 前 부산국제영화제 상임이사
이희승 Lee Heeseung — 동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상훈 Choi Sanghoon — 부산문화신문 대표
최 윤 Choi Yoon — VREZ CREATIVE INC 부사장

감사 Auditors

김무규 Kim Mookyu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찬 Lee Jongchan — 동서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장 Festival Director

차민철 Cha Minchol —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운영위원 Steering Committee Members

강내영 Kang Naeyoung — 부산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권중문 Kwon Joungmoon — 부산경상대학교 방송영상영화과 교수
박인호 Park Inho — 부산영화평론가협회장
방추성 Bang Chuseong —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서영조 Seo Youngjo —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지회 지회장
오민욱 Oh Minwook —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
이상훈 Lee Sanghoon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프로그래머
윤태환 Yoon Taehwan —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조숙희 Joe Sukhui — 경남정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최상훈 Choi Sanghoon — 부산문화신문 대표
하성태 Ha Seongtae —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김은정 Kim Eunjung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장

프로그래머 Programmers

선임프로그래머 Senior Programmer

이상훈 Lee Sanghoon

프로그래머 Programmers

심세부 Sébastien Simon
핍 초도로프 Pip Chodorov
김경연 Yeona Kim

영화제 스태프 & 비바(자원활동가) Festival Staff & BIVA (BISFF Volunteers)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사무국장 Office General Manager

김은정 Kim Eunjung

사무차장 Office Deputy Manager

하지훈 Ha Jihun

운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Team

김나영 Kim Nayoung
유재승 Yu Jaeseung
이예지 Lee Yeji
이남현 Lee Namhyeon
이신영 Lee Sinyeong
김도희 Kim Dohee
김은숙 Kim Eunsook

프로그램팀 Program Team

한서정 Han Seojung
김정윤 Jenia Kim
김태연 Kim Taeyeon
최민주 Choi Minju
채영호 Kike Youngho Chae
최건희 Choi Gunnhee

기술팀 Technical Team

박성림 Park Lim
남한별 Nam Hanbeoyl
김일지 Kim Ilji

자막팀 Subtitling Team

노현경 Jonas
박귀엽 Ggwisama
김하은 Kim Haeun
정혜영 Positive Jung
최윤나 Choi Yoonna
최은영 Choi Enyoung
옥미나 Oak Mina
전소연 Jeon Soyeon

홍보마케팅팀 PR Marketing Team

배채아 Bae Chaeah
구세주 Goo Sejoo
전소현 Sonia Jeon
송채은 Song Chaeun

사진영상팀 Media Team

김민근 Kim Mingeun
이진호 Lee Jinho
박천현 Park Chunhyun
전형식 Jeon Hyungsik
박종훈 Park Jonghoon

인턴 Intern

임연지 Lim Younji
다니 엑 Dany EK
폴 그르베 Paul Grevet
마농 라마니 Manon Rahmani

비바(자원활동가) BIVA (BISFF Volunteers)

운영팀 Management Team

박진형 Park Jinhyung
오예진 Oh Yejin
허 단 Heo Dan

상영관팀 Theater Team

김미조 Kim Mijo
김영서 Kim Youngseo
나혜원 Na Hyewon
박종민 Park Jongmin
박준수 Park Joonsoo
변지안 Byeon Jian
송혜린 Song Hyerin
심재승 Sim Jaseung
양혜리 Yang Hyeri
윤지수 Youn Jisu
이수빈 Lee Suvin
이연수 Lee Yeonsu
전수빈 Chun Soovin
최석희 Choi Seokhee
최세리 Choi Seri
최희애 Choi Heeae

데일리팀 Daily Team

민예원 Min Yewon
박호동 Park Hodong
제소영 Je Soyeong
주소미 Ju Somi

이벤트팀 Event team

고예리 Go Yeri
김나영 Kim Nayeong
김동혁 Kim Donhyeok
박규리 Park Gyuri
주찬욱 Ju Chanwook

게스트라운지 Guest Lounge Team

고민지 Ko Minji
천민영 Cheon Minyoung
최다현 Choi Dahyun

기술팀 Technical Team

백지은 Baek Jieun
이채은 Lee Chaeeun
장예림 Jang Yerim

포스터 & 트레일러 Poster & Trailer



Poster

원화: 〈밤은 꾸물꾸물〉 엄지
Original Image: *The night is wriggle* EOMJI

'영화의 경계 흔들기'를 통해 보다 더 새롭게 나아가다.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하나의 행성으로 우주가 들어가고 색색의 물결이 행성에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한 단편영화가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고, 기존의 틀을 깬 보다 기발한 결과물이 색색의 물결처럼 관객의 머릿속에서도 꾸물꾸물 나오길 기대해 본다.

Taking a step forward through "Pushing Boundaries of Cinema".
The official poster of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shows the universe going into a planet, and colorful waves coming out of it. Various short films will be presented through the film festival, and we hope these ingenious and original works become colorful waves rippling through the audience.



Trailer

<영화의 꿈> 심세부
A Dream of Film Sébastien Simon

"우리의 꿈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가, 이후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다가, 의지를 불러내면 곧 필연이 된다" (크리스토퍼 리브). 영화는 말 그대로 꿈의 형상이다. 영화인들의 희망과 열망 그리고 많은 경우, 영감 자체가 바로 이 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화제는 이러한 영화적 꿈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꿈과 그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이듯, 영화와 영화인 또한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인 것이다.

감독 심세부
출연 제니 페인 휠러, 마이크 페인 휠러
음악 <와인드업> 마이크 벤톨라 (feat. 배씽 벨즈, 지노 브랜, 팀 파우)
오디오 믹스 언더그라운드 트랙
드림캐처 존 프린
그림자들 마이크 벤톨라, PJ 한
장비 카메디아스퀘어, 팀 파우, 에린 웍태

"So many of our dreams at first seem impossible, then they seem improbable, and then, when we summon the will, they become inevitable" (Christopher Reeve). Films are the stuff of dreams, literally, as they embody filmmakers' hopes and aspirations and, in many cases, serve as their direct inspiration. Meanwhile, festivals act as collectors of these filmic dreams, effectively "catching" them before presenting them to audiences. If a dream and its dreamer are one and the same, indivisible and irreducible, then so too are a film and its filmmaker.

Director Sébastien Simon
Actors Jenni Payne-Wheeler, Mike Payne-Wheeler
Music *Wind Up* by Mike Ventola, featuring Bathing Belles, Gino Brann, Tim Paugh
Audio Mixed Underground Tracks
Dreamcatcher John Prine
Shadow men Mike Ventola, PJ Han
Equipment Camedia Square, Tim Paugh, Erin Wuchte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Short Film Project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재능있는 영화인을 응원하고, 다양한 단편영화가 제작 및 상영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단편영화 활성화에 작은 손을 보태려 합니다. 본 사업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후반작업까지 영화의 최종 완성 전 단계의, 장르를 불문한 한국 단편영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나리오의 독창성, 제작 가능성, 기획의 참신함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정작에는 500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완성작은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접수기간	2019년 10월 21일 – 11월 17일
1차(서류심사) 발표	2019년 11월 26일
2차(면접심사) 진행	2019년 11월 29일
선정작 발표	2019년 12월 2일
완성작 제출	2020년 3월 2일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as begun a support project for the production of short films. We hope to lend a hand in revitalizing the production of Korean short films by supporting talented filmmakers. This project is open to creators of Korean short films of all genres in any stage of development, from screenwriting to finalization. Screenplay originality, production possibility, and planning novelty were considered in the two rounds of evaluation, and the finalist was funded with 5,000,000 KRW. The finished film will be screened at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pplication Period	October 21 – November 17, 2019
1st Evaluation (Document Review)	November 26, 2019
2nd Evaluation (Interview)	November 29, 2019
Selection Announcement	December 2, 2019
Submission of Finished Film	March 2, 2020

단편영화 제작지원 심사평

2020년 제37회를 앞두고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제 역사상 최초로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제작지원에는 국내의 재능 있는 감독들의 창작 지원 작품 총 108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작품으로 윤혜성 감독님의 〈사원증〉이 선정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개인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다룬 〈사원증〉은 신자본주의 체계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연대가 사라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차분히 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경험적 에피소드가 아닌 감독의 엄밀한 의식과 상징화를 통해 섬세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혜성 감독이 가진 섬세한 연출력과 정글이 되어버린 직장 내 연대 의식에 대한 감독의 깊이 있는 시선이 깃들 최종 작품을 기대합니다.

윤재호 영화감독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프로그래머
최 윤 VREZ CREATIVE INC 부사장

Commentary on BISFF Short Film Project

In 2020,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egan a short film production support program. A total of 108 films by talented directors in Korea applied for this program. After two rigorous evaluation proceedings, *ID Card* by director Yoon Haesung was selected. *ID Card* deals with the existential crisis of an individual, in an effort to observe the Korean society in which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people are disappearing within the neo-capitalist system. In highlighting this reality, the director takes a delicate approach to this issue using precise rituals and symbols rather than through an empirical episode. We look forward to the final outcome that embodies director Yoon's precision and in-depth look into a work environment turned into a jungle.

Jéro Yun Filmmaker
Lee Sanghoon Senior Programmer of BISFF
Choi Yoon Vice President of VREZ CREATIVE INC

단편영화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사원증〉은 p.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of *ID Card* selected for BISFF Short Film Project can be found in p.45

시상내역 Award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최우수작품상 — Grand Prix

OSCAR® QUALIFYING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10,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우수작품상 — Excellence Award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5,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심사위원특별상 — Jury Award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지지를 받은 작품에 수여

2,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at received special acknowledgement from the jury

관객상 — Audience Award

부상 및 트로피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관객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작품에 수여

A prize and a trophy
Awarded to a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chosen by the festival audiences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부산광역시 중구청 후원
Sponsored by Jung-gu District Office, Busan Metropolitan City

최우수작품상 — Grand Prix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오퍼레이션 키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1,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Operation Kino

우수작품상 — Excellence Award

상금 50만원과 트로피
오퍼레이션 키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5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Operation Kino

아고라상 — Agora Jury Award

부상 및 인증서
오퍼레이션 키노 작품 중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감독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작품에 수여

A prize and a certificate
Awarded to a film in Operation Kino chosen by the directors who attend the festival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최우수작품상 (KAFA상) — Grand Prix (KAFA Award)

OSCAR® QUALIFYING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5,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Korean Competition

우수작품상 — Excellence Award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3,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Korean Competition

심사위원특별상 — Jury Award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지지를 받은 작품에 수여

1,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that received special acknowledgement from the jury

관객상 — Audience Award

부상 및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관객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작품에 수여

A prize and a trophy
Awarded to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chosen by the festival audiences

연기상 — Best Acting Award

부상 및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가장 빼어난 연기를 선보인 배우에게 수여

A prize and a trophy
Awarded to an actor/actress in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whose acting was the most outstanding

넷팩상 NETPAC Award

넷팩상 — NETPAC Award

부상 및 인증서
경쟁 부문의 아시아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아시아영화진흥기구에서 수여

A prize and a certificate
Awarded by 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to the best Asian film in Competition sections

OSCAR® QUALIFYING : 경쟁 부문 최우수작품상은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규정에 의해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극영화 부문'과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의 최종후보작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As per the rules of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s Arts & Sciences pertaining to film festivals, the Oscar®-qualification concerns only the Live Action and Animation categories.

심사위원 Jury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김응수
Kim Eungsu

김응수는 1966년 충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1996년 장편영화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로 데뷔 후 몇 편의 극영화를 만들었다. 2006년 <천상고원>을 시작으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일을 선보였고, 2012년 연출한 <아버지 없는 삶> 이후 <옥주기행>(2016), <오, 사랑>(2018), <초현실>(2018), <산나리>(2018), <나르시스의 죽음>(2019)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에세이 영화, 비디오 아트,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장르의 변화는 장르에 대한 김응수 감독의 사적 호기심의 표현이며,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

Kim Eungsu was born in Chungju in 1966 and majored in psych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making his debut in 1996 with the feature film *Time Lasts*, he made several feature films. Starting with *Heavenly Path* in 2006, he introduced a style that crosses the border between fiction and documentary, and after *Without Father* directed in 2012, *The Journey to OKJU* (2016), *Oh, Love* (2018), *The Real* (2018), *Mountain Lily* (2018), *Death of Narcissus* (2019), and other works are experimenting with the forms of essay film, video art and documentary. This change in genre is an expression of director Kim Eungsu's personal curiosity, and shows his natural process of finding answers as to what film is.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João Paulo Miranda Maria

1982년 상파울루주에서 태어난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는 2004년 에스타시오데사대학에서 영화 학위를, 이후 캄피나스대학에서 멀티미디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피라시카파감리교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또한 브라질 영화촬영협회 회원이며 영화 연구 및 실무 그룹인 키노 올로의 창립자이자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그는 <악마의 이동>(2014)을 시작으로 <커맨드 액션>(2015), <악마와 함께 춤을 춘 소녀>(2016), <개미 퇴치제>(2017) 등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João Paulo Miranda was born on the inland side of São Paulo state in 1982. 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Cinema in 2004 from Estacio de Sá College (Rio de Janeiro). He holds a Master's degree in Multimedia from the University of Campinas. A professor at the Methodist University of Pi-racicaba (SP), he is also a member of the Brazilian Association of Cinematography and the found-er and coordinator of the research and film practice group Kino-olho. He has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including *Ida do Diablo* (2014), *Command Action* (2015), *The Girl who Danced with the Devil* (2016), and *Ant Killer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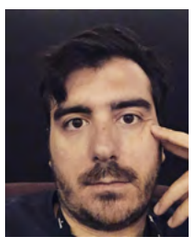
한국경쟁 심사위원 Korean Competition Jury



안네 가슈츠
Anne Gaschütz

축제 기획자이자 프로그래머 인 안네 가슈츠는 2002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후 웨일즈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드레스덴에 본사를 둔 영화 제작사 필루필름에서 일했고, 이후 수많은 단편영화 프로젝트의 제작 보조 및 제작 관리자로 경험을 쌓았다. 2013년부터 드레스덴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 선정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비셰그라드 인 쇼츠 플랫폼도 담당하고 있다. 이후 2020년 7월 그녀는 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Anne Gaschütz, festival organizer and programmer, grew up in Dresden, Germany before she moved to England straight after school and later studied Film in Wales. Upon returning to Dresden she worked in film production at the Dresden-based company filoufilm and later as a production assistant and production manager on numerous short film projects. She has been part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FILMFEST DRESDEN since 2013 and is also responsible for the platform Visegrád in Short(s). In July 2020 she became the festival's co-director.



엔리코 바누치
Enrico Vannucci

엔리코 바누치는 베니스영화제에서 단편영화 고문으로, 토리노단편영화마켓에서 단편영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2010년부터 다양한 영화제 프로그램팀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장편영화제 및 단편영화제의 생태계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했다. 또한 2009년부터 기자로 활동하며 주요 영화제를 다루고 있다.

Enrico Vannucci works as short film advisor at Venice Film Festival and as short film programmer at Torino Short Film Market. He has been working in film festival programming teams since 2010. He has also written essays regarding the short and feature film festival ecosystem. Moreover, as a journalist he has been covering major film festivals since 2009.



홍승완
Hong Seungwan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출신으로 단편영화 <영화처럼>(2004), <가축떼>(2007)를 연출했고, 2006년에 연출한 <가족 나들이>는 2006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와 2006 미쟝센단편영화제 경쟁부문에 선정되었다. 장편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2008)에 각색으로 참여하였고, 2019년에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장편영화 데뷔작 <배심원들>을 선보였다.

Hong Seungwan majored in filmmaking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directed the short films *Like a Movie* (2004) and *White Moon* (2007). His *Family Picnic* (2006) was selected for competition at the 2006 Busan Asia Short Film Festival and the 2006 Mise-en-scene Short Film Festival. He participated in the adaptation of *A Man Who Was Superman* (2008). His feature debut, *Juror 8* (2019), is based on a true story about a jury trial.

심사위원 Jury

넷팩 심사위원 NETPAC Jury



박인호
Park Inho

박인호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평론가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화에 대한 글쓰기, 시나리오 작성 등 다양한 강의를 해왔으며 영화의전당에서 고전영화를 해설해왔다. 『크리틱b』, 『FILO』 등에 영화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이다.

Park Inho is a film critic based in Busan. She has lectured variously on writing articles about film and writing scenarios for ordinary citizens, and has been explaining classic films at the Busan Cinema Center. She has contributed to film critics such as *Critic b* and *FILO*, and is currently president of the Busan Film Critics Association.



신동석
Shin Dongseok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단편영화 <물결이 일다>(2005)와 <가희와 BH>(2006)로 전주영화제, 미쟝센단편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물결이 일다>는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가희와 BH>는 미쟝센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과 촬영상을 받았다. <살아남은 아이>(2017)는 그의 첫 장편영화 연출작이다. 이 작품은 2017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2017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장편상 등 다수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Shin Dongseok gradu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ajoring in filmmaking. His short films, *Stirring Ripple* (2005) and *Gahee & B.H.* (2006), were invited to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Mise-en-scene Short Film Festival. *A Stirring Ripple* won the Excellence Award for Best Picture at Busan Asian Short Film Festival and Gahee & B.H. won the Best Picture Award and the Best Cinematography Award at Mise-en-scene Short Film Festival. His first feature film *Last Child* (2017) won the FIPRESCI Award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st Feature Film Award a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mong many others.



란자니 라트나비부사나
Ranjanee Ratnavibhushana

란자니 라트나비부사나는 영화 비평가이자 작가이며, 영화 연구회의 활동가이다. 현재 그녀는 스리랑카 아시아영화센터의 사무총장, 아시아영화진흥기구(넷팩)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아두르 고팔라크리쉬난의 영화』의 저자이자 『연간 스리랑카 영화』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다수의 영화 관련 행사를 진행했으며 국내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Ranjanee Ratnavibhushana is a film critic, author, film scriptwriter and film society activist. She i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Asian Film Centre, Sri Lanka and advisory council member of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NETPAC). Also she is an author of *The Cinema of Adoor Gopalakrishnan* and series editor of *Film Annual Sri Lanka*. She has worked on numerous special film events and has served on many local and international film juries.

오퍼레이션 키노 심사위원 Operation Kino Jury



노철환
Roh Chulhwan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석사), 프랑스 고등방송연출학교(ESRA, 제작/배급석사), 파리 8대학 영화학과(ESTA, 석사, 박사)에서 공부했다. (사)한국영화감독조합과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 교수를 역임했으며, 문화집단 기호 대표, 한-EU문화협력위원회 자문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상, 영화, 공연 등 작품 활동과 더불어 주요 연구 분야는 시각적 내러티브 분석, 영화/영상 산업정책이다.

Roh Chulhwan is a professor of Drama and Film at Inha University. He got his Maste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Studies at Hanyang University, then studied in Paris at ESRA Film School and at Université Paris 8 (ESTA, Master's, Doctorate). He has been a senior researcher at the Korean Film Director Association and Sungkyunkwan University's Transmedia Research Institute, and a professor at the Busan Asian Film School (AFiS). He is a representative of the cultural group Symbol, a consultant for the EU-Korea Committee on Cultural Cooperation, and a member of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addition to his activities with videos, movies and performances, his major research fields are the analysis of visual narrative, movies/videos, and industry policies.



김세진
Kim Sejin

국문학과 영화학을 전공하였고, 시나리오 컨설팅과 스토리텔링 관련 일을 해왔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1970년대 국책영화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시나리오와 연출, 영화학에 관한 다양한 강의경력과 칼럼 기고 등 저술도 지속하였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일해 왔다. 현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이다.

Kim Sejin studied Korean literature and film, and has been working on scenario consulting and storytelling. After completing an MA in Film Studies at Hanyang University, she went on to a Ph.D course at the same university and researched government-directed films of the 1970s Korean film industry. She has been lecturing about scenarios, film direction and film studies, and writing columns.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Jeonju IFF and the Busan ISFF. She is currently a programme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심사위원 Jury

경쟁부문 1차 예심위원 1st Round Pre-selection Jury

김기만 Kim Kiman
부산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usan Independent Film Festival

김재한 Kim Jaehan
영화감독 Filmmaker

김지혜 Kim Jihye
㈜아토 대표 Director of ATO Inc.

다니엘 카롤위츠 Dan Karo
누보시네마페스티벌 단편영화 수석프로그래머
Head of Shorts Programming at Festival du Nouveau Cinéma

바네사-타티아나 벨리 Vanessa-Tatjana Beerli
씨네 따피 루즈 대표 / 영화감독
Director of Ciné Tapis Rouge / Filmmaker

알라릭 하마처 Alaric Hamacher
광운대학교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 교수
Professor at Kwangwoon University, Department of Holography 3D Contents

오민욱 Oh Minwook
영화감독 Filmmaker

유순희 Yoo Sunhee
전북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Jeonbuk Independent Film Festival

임대형 Lim Daehyung
영화감독 Filmmaker

전병원 Jeon Byungwon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전임연구원
Researcher at Dong-Eui University, Cinema & Transmedia Institute

정성욱 Jung Seongwook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Studies

조희영 Joyce Heeyoung Cho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교수
Professor at Busan Asian Film School

최용석 Choi Yongseok
영화감독 Filmmaker

페드로 티넨 Pedro Tinen
상파울루단편영화제 프로그래밍 코디네이터
Programming Coordinator of São Paulo Short Film Festival

프란시스카 프리하디 Fransiska Prihadi
발리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램디렉터
Program Director of Minikino Film Week: Bali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경쟁부문 2차 예심위원 2nd Round Pre-selection Jury

김영조 Kim Youngjo
영화감독 Filmmaker

노철환 Roh Chulhwan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Studies

윤재호 Jéro Yun
영화감독 Filmmaker

경쟁부문 3차 예심위원 Final Selection Jury

이상훈 Lee Sanghoon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프로그래머
Senior Programmer of BISFF

심세부 Sébastien Simon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ISFF

김경연 Yeona Kim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ISFF

관객상 Audience Award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관객상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udience Award

국제경쟁, 한국경쟁 중 관객의 투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각 한 편의 작품이 관객상으로 선정됩니다.
관객상 투표는 관람하신 영화들 중 한 편의 영화에 투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경쟁 1'을 관람하신 경우, '국제경쟁 1'로 묶인 영화들 중 단 한 편의 영화에, '국제경쟁 2'를 관람하신 경우 '국제경쟁 2'로 묶인 영화들 중 단 한 편의 영화에 각각 투표 가능합니다.

The films that receive the most audience votes from each of the International and Korean Competitions will be awarded the Audience Award.
You can vote for one of the films you watched. For example, if you watched "International Competition 1", you can only vote for one of the fil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1", and if you watched "International Competition 2", you can only vote for one of the fil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2".

투표 방법 How to v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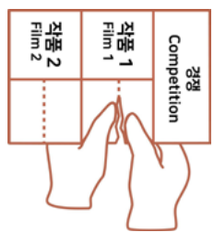
1



상영관 입장 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국제경쟁, 한국경쟁에 한함)

Take a ballot when entering the theater. (International & Korean Competitions only)

2



관람 후 한 편의 영화를 정해, 투표용지의 절취 선을 따라 찢어 투표합니다.

After watching the films, pick one film and tear off the stub with its name along the dotted line in the ballot.

3



투표한 용지는 퇴장 시 출구에 비치된 투표함에 넣습니다.

Put the ballot in the ballot box located by the exit when you leave.

유의사항

- 투표용지 당 한 편의 작품만 투표 가능하며, 중복 투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공정한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는 각 상영 당 1인 1장만 제공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투표용지를 추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Notice

- You can only vote for one film per ballot, if you vote for more than one, the votes will be void.
- For fairness, only one ballot will be provided per person. Please take care not to lose it.
  (An additional ballot will not be provided if you lose yours.)

OSCAR®
QUALIFYING FILM FESTIVAL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 최초의 아카데미 인증 영화제입니다.
경쟁 부문 최우수작품상은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규정에 의해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극영화 부문'과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의 후보작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Korea's first OSCAR®-qualifying festival.
As per the rules of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s Arts & Sciences pertaining to
film festivals, the qualification concerns only the Live Action and Animation categories.



프로그램 소개
2020 BISFF INTRODUCTION

202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램 소개

탄생 100주년이라는 기점을 지난 한국 영화는 국내외적으로 이룬 다양한 성과로 인해 세간의 높은 관심과 조명을 넘어 찬사와 경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화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 영화의 장밋빛 미래가 자연스럽게 펼쳐진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의 성장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계절이 아니라 그 각각의 계절을 준비하는 농부의 땀과 노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영화의 발전은 영화의 근간인 단편영화의 성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단편영화 발전의 터전이 되는 단편영화제의 역할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한국 영화의 융성을 위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창출과 영화제의 국제적 지명도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의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를 비롯해 아시아영화진흥기구(넷팩), 단편영화제의 국제적 교류기구인 쇼트필름컨퍼런스 등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품의 창작자는 물론 영화 산업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가오슝영화제, 덴마크의 코펜하겐단편영화제, 캐나다의 사그네이단편영화제, 브라질의 상파울루단편영화제 등에서의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되었거나 수상했던 한국 작품이 현지 관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스위스 필름과 저먼필름 등 해외의 공적 영화 기관 및 단체에서 영화제를 공식 파트너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지원을 통해 감독 및 제작자들에 대한 영화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와 영화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담보한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인 '영화의 경계 흔들기'는 영화의 '실험'과 '혁신'을 강조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독창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단편영화의 속성처럼 부산국제단편영화제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 혹은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아시아 영화 부문의 확대입니다. 개별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던 '아시아 쇼츠'를 확대하여 독립적인 섹션으로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아시아 영화에 대한 조명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변화, 확대하여 실험영화와 인터랙티브 영화 등 다양한 영화 창작 형식을 포괄하는 섹션인 '비욘드 쇼츠'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영화제가 개최되는 장소인 부산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퍼레이션 키노'를 경쟁 부문에 포함시켜 해당 부문의 위 상을 강화하였고, 부산 지역 시민들이 제작한 다양한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는 '부산 IN'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에 사는 영화 전문가, 영화 전공 학생은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를 망라하여 모든 부산 시민들이 영화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형식으로 유지됩니다. 총 3차례의 예심 과정을 거쳐 실험정신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경쟁 부문에 선정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에 국내외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요한 섹션인 '주빈국'을 통해서는 유럽의 영화 강국 벨기에의 다양한 영화가 소개됩니다. 벨기에를 대표하는 시네아스트인 샹탈 아커만의 단편영화를 만나 볼 수 있으며 영화라는 창을 통해 벨기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벨기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단편영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관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영화의 고유한 미학과 매력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임프로그래머
이상훈

2020 BISFF Introduction

Since its birth 100 years ago, Korean cinema has accomplished much, gaining not only international interest, but also praise and admiration. No one can deny the international caliber of Korean films today; and all speak of its optimistic prospects ahead. However, the advancement of Korean cinema is not a simple matter of course, like seasons that come and go. Instead, it is only made possible through sweat and hard work, just like those of a farmer preparing for each season. Above all, the advancement of Korean cinema is possible through the growth of short films, its groundwork. For these reasons, the role of short film festivals is also augmented as arenas for development.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contributes to the continued prosperity and advancement of Korean cinema by strengthening the unique identity of short films.

Particular efforts were made to promote the reputation of the festival abroad by joining and developing various international networks: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s Arts and Sciences, which awards the Oscars®, the 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and the Short Film Conference, a non-profit association gathering international festivals, distributors and platforms dedicated to short films. Above all, through BISFF's activities, we are striving to build trust and to foster contacts with filmmakers as well as with the larger film industry. Program exchanges with the Kaohsiung Film Festival in Taiwan, the Copenhagen Short Film Festival in Denmark, the Saguenay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Canada and the São Paulo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Brazil, allowed Korean films that were screened or awarded at BISFF to reach international audiences. In addition to festival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Swiss Films and German Films have also become official BISFF partners, providing funding for directors and producers of these countries to participate in our film festival, if selected.

BISFF's program is organized around a theme emphasizing the future direction of short films and of the film festival. The theme for our 2020 edition is: "Pushing Boundaries of Cinema", emphasizing notions of "experiment" and "innovation". Just as the short film is characterized by originality and diversity, the program as a whole was reorganized: it demonstrat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ISFF, which adapts to the changing global trends with existing programs being changed and new programs being added.

The first major change concerns Asian films, with the existing "Hub of Asia" program turned into an independent section to better spotlighting films from that region. The second change was to transform and expand the "Prism" program by including it in a new section, "Beyond Shorts", which encompasses a larger variety of creative formats, including experimental films and interactive films. The third change is the strengthening of programs related to Busan, where our festival is held. We moved "Operation Kino", made for university's students in the Busan area, to the Competition section, thus giving it more merit. We also created the "Busan IN" program which showcases various films created by Busan residents. This way, all inhabitants of our city, whether they are film professionals, film majors, or amateur filmmakers, can now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participate directly in our festival.

Meanwhile, some successful programs will proceed as in the past. Films with a strong experimental spirit and originality have been selected for Competition after going through three separate preliminaries. During the festival, they will be strictly judged by Korean and international jurors. Another one of BISFF's main programs is the "Guest Country" section, which this year will showcase Europe's film powerhouse Belgium.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watch short films by leading Belgian cineaste Chantal Akerman and learn about this country's history, culture and people through its cinema.

A heartfelt thanks goes out for your interest in short films despite the unprecedented crisis of COVID-19. We hope BISFF affords you the opportunity to discover the unique beauty and charm of short films.

Senior Programmer
Lee Sanghoon

원화 | <The night is wriggle> EOMJI

Pushing Boundaries of Cinema
영화의 경계 흔들기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 CLOSING FILMS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 Closing Films

개막작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작은 금년 주빈국인 벨기에 영화 한 편, 주목할 만한 아시아 영화 한 편 그리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작지원작인 한국 영화 한 편까지 총 세 편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올해 영화제 주빈국인 벨기에 작품으로 '벨기에 파노라마'에 포함된 〈황금 성인전〉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정신병동에 수감된 환자의 관념을 지배하는 기묘하고 이상한 이미지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우리에게 재현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이미지들의 향연을 채우는 것은 실제와 허구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저주받은 음악가, 암살자, 놀이에 빠진 괴물, 편집광적인 혁명가, 과거의 예술가, 은둔자들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객은 인간의 심리, 신화, 역사의 수많은 이미지로 이루어진 기억의 창고를 목도하면서 이로 인해 진실과 허구가 혼합된 바다에서 기약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인도 작품으로 '커튼콜' 프로그램에 포함된 〈툰그루스〉입니다. 무자비한 침입자와 그로 인해 야기된 심리적 학대를 유머와 재미로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2018 비전뒤릴국제영화제(스위스 니옹)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된 후 세계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한국 작품으로 '202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된 〈사원증〉입니다. 이 작품은 직장에서 개인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차분히 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개인적 우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고뇌하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개인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비정하고 씁쓸한 단면을 재현합니다.

일시 2020년 8월 27일(목) 19:00
장소 영화의전당 중극장

Opening Films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presents three Opening Films: one from this year's Guest Country Belgium, one noteworthy Asian film, and one Korean film.

The first film, *The Golden Legend*, features in the "Belgium Panorama" program. The film offers oddly peculiar and fast-paced images that dominate the mind of a psychiatric patient as if they are museum displays, revealing a dense collection of cursed musicians, murderers, fairground freaks, paranoiac revolutionaries, bygone artists, and recluses. Taken by these images to an endless drift in the sea of truth and fiction, the audience will witness a storage of memories consisting of human emotions, mythology, and history.

Coming from India, the second film is *Tungrus*, presented in the "Curtain Call" program. Both hilarious and entertaining while also detailing a very unique case of home invasion and emotional abuse, this short documentary about the special bond between humans and their pets enjoyed a stellar festival run following its world premiere at the 2018 Visions du Rée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Nyon (Switzerland).

The third film is *ID Card*, which was selected as the "2020 BISFF Short Film Project". This film is about the existential crisis that an individual goes through at work. Calmly contemplating today's Korea, it shows how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between people disappear under the capitalistic system. The film delicately captures the deep agony that every young person who has just started a career suffers between personal friendship and social status a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It also renders the heartless, bitter reality of modern society where solidarity collapses and human values are lost within the system.

Date & Time August 27(Thu) 19:00
Venue Cinema I, Busan Cinema Center

폐막작

폐막작은 국제경쟁, 한국경쟁,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의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3편으로, 폐막식에서 수상작 시상 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19:00
장소 영화의전당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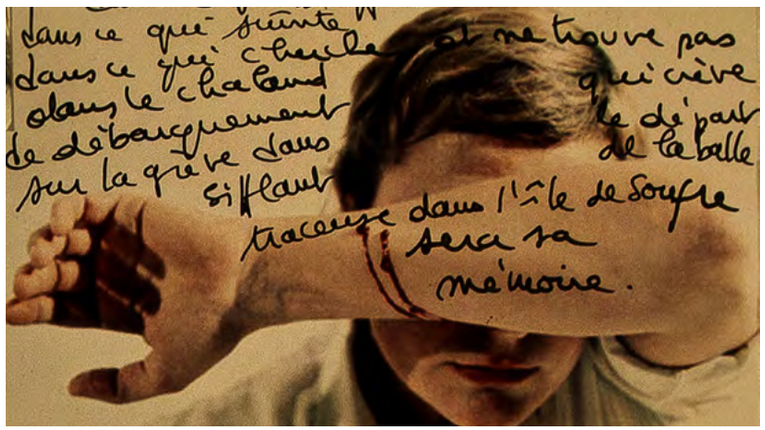
Closing Films

For the Closing Ceremony, it will be our honor to present the three films awarded with Grand Prix from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Korean Competition and the Operation Kino program.

Date & Time August 31(Mon) 19:00
Venue Cinema I, Busan Cinema Center

⑮ 27일(목) 19:00 중극장 | 27(Thu) 19:00 Cinema I
30일(일) 15:00 소극장 | 30(Sun) 15:00 Cinema II
31일(월) 10:00 소극장 | 31(Mon) 10:00 Cinema II

황금 성인전
The Golden Legend



Belgium | 2015 | Documentary, Fiction | 2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Olivier Smolders Producer Olivier Smolders Script Olivier Smolders Editor Olivier Smolders
Music Manuel Smolders Cast Philippe Grand'Henry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정신병동에 수감된 환자가 자신의 관념을 지배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으로 가득 찬 기록물을 관객에게 소개한다. 그 기록은 저주받은 음악가, 암살자, 놀이에 빠진 괴물, 편집광적인 혁명가, 벨에포크 시대의 예술가, 자신을 포기한 은둔자들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관객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신화와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로 이루어진 기억의 창고를 목도하면서 진실과 허구 사이의 바다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상훈)

A patient detained in a psychiatric institution presents a gallery of the great names in history who still haunt his mind. It's densely packed with cursed musicians, assassins, fairground freaks, paranoiac revolutionaries, artists of the Belle Epoque, and suicidal anchorites. As we witness the storehouse of memories made up of countless images of human psychology and myths, we find ourselves lost in the sea between truth and fiction.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올리비에 스몰더스 Olivier Smolders

1956년 1월 4일 레오폴드빌에서 출생한 올리비에 스몰더스는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다양한 영화제에서 약 스무 편의 작품으로 상을 받았으며, 문학과 영화에 관한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Born January 4, 1956 in Léopoldville, Olivier Smolders is a producer, screenwriter and film director. He has made twenty award-winning films at numerous international festivals. He has also published essays on literature and cinema.

15 27일(목) 19:00 중극장 | 27(Thu) 19:00 Cinema I
29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9(Sat) 13:00 Cinematheque
30일(일) 10:00 중극장 | 30(Sun) 10:00 Cinema I

툰그루스
Tungrus



India | 2018 | Documentary | 12'5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Rishi Chandna Producer Rishi Chandna Script Rishi Chandna Cinematographer Deepak Nambiar
Editor Neha Mehra Sound Vinit D'Souza Cast THE BHARDE FAMILY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어느 날 한 인디언 가족의 가장이 수탉을 반려동물로 입양하기로 하자, 이 가족의 생활은 우스꽝스러운 소란에 휘말리고 만다. (고양이 두 마리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한다. 그러나 툰그루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 수탉의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영화는 피치 못할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이 첫 연출작인 리쉬 찬드나 감독은 뭄바이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유머와 따스함으로 그려내며, 단편 다큐멘터리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 쇼츠댓알낫팬츠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다. (제임스 맥낼리)

The lives of an Indian family are hilariously disrupted when their patriarch decides to adopt a rooster as a pet. We watch as each member of the family (including two cats) tries to adjust to the new situation, even as Tungrus' constant crowing and aggression drive the film to its inevitable conclusion. First-time director Rishi Chandna captures the chaos inside a cramped Mumbai apartment with humour and warmth, proving that short documentaries can entertain. Best Documentary at the 2018 Shorts That Are Not Pants. (James McNally)



감독 Director
리쉬 찬드나 Rishi Chandna

리쉬 찬드나는 뭄바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이다. 첫 단편영화인 〈툰그루스〉는 전 세계 백여 곳 이상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이 중 2019 슬램댄스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였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단편다큐멘터리 부문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2018년 처음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쇼트 필름 어워즈에서는 논픽션 부문 최고 감독상을 수상했다.

Rishi Chandna is an independent filmmaker based out of Mumbai. His first short film, Tungrus, travelled to more than hundred festivals worldwide, picking up awards including Grand Jury prize at Slamdance Film Festival 2019, and became an Oscar qualifying short documentary. He was awarded Best Director Non-Fiction at the first CCSFA (Critics Choice Short Film Awards) in 2018.

15 27일(목) 19:00 중극장 | 27(Thu) 19:00 Cinema I
28일(금) 17:30 소극장 | 28(Fri) 17:30 Cinema II GV
30일(일) 17:30 중극장 | 30(Sun) 17:30 Cinema I

사원증
ID Card



Korea | 2020 | Fiction | 18'57"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윤혜성 Yoon Haesung Producer 원은선 Won Eunsun Script 윤혜성 Yoon Haesung
Cinematographer 윤석원 Yun Seokwon Editor 천지현 Cheon Jihyeon Music 이수빈 Lee Soobin
Sound 김영석 Kim Yeongseok Cast 장유상 Jang Yoosang, 오민애 Oh Minae, 권다함 Kwon Daham, 서석규 Seo Seokkyu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동구는 친구이자 같은 회사 동료인 지철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상사의 강요에 의해 지철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원증을 찾아와야 한다. 지철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회사는 끝까지 동구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간다. 이 작품은 직장에서 개인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차분히 관조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개인적 우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고뇌하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개인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비정하고 씁쓸한 단면을 재현한다. (이상훈)

When Dong-gu's friend and co-worker Jichul suddenly dies, Dong-gu is forced by his boss to find Jichul's employee ID card. The company that may have driven Jichul to death is now driving Dong-gu to another extreme situation. The film is about the existential crisis that an individual has to go through at work. Calmly contemplating today's Korea, it shows how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people disappear under the capitalistic system. The film delicately captures the deep agony that every young person who has just started a career suffers between personal friendship and social status a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It also renders the heartless, bitter reality of modern society where solidarity collapses and human values are lost within the system.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윤혜성 Yoon Haesung

윤혜성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 후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전문사 재학 중 단편영화 〈증명서〉(2019)와 〈셋 중 하나〉(2019)를 연출했다. 2020년에 만든 단편영화 〈사원증〉은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윤혜성에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진심에 닿으려는 노력이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fter leaving her job, Yoon Haesung began making films. While majoring in filmmaking in graduate school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directed short films *The Certificate* and *One of Three* in 2019. Her short film, *ID Card* was selected for production support at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Short Film Project. For Yoon Haesung, making a film is an effort to reach the heart and a process of finding herself.

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아시아영화진흥기구(넷팩)는 아시아 영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2015년 넷팩에 가입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국제경쟁과 한국경쟁 부문의 아시아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넷팩상을 수여 합니다.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NETPAC)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Asian films.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joined NETPAC in 2015,
and the NETPAC Award is awarded to the best Asian short film from
International & Korean competition by a jury from the NETPAC.

경쟁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국제 & 한국경쟁 부문 선정의 변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선정을 위해 총 21명(해외 6명, 국내 15명)의 예심위원들은 약 3개월 동안 국제경쟁 부문에 출품된 112개국 2,752편과 한국경쟁 부문에 출품된 593편을 대상으로 29개국 40편의 국제경쟁, 19편의 한국경쟁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경쟁 부문 심사는 이전과 다르게 총 3차례에 걸쳐 예심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과정이 한 차례 추가되었습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이와 같은 예심 과정의 세밀화를 통해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다원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제경쟁 부문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극영화 71%, 다큐멘터리 12%, 애니메이션 10% 그리고 실험영화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경쟁 부문 출품작에서는 내전이나 전쟁과 같은 정치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문제가 일으킨 이민, 난민,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 개인이 처한 현실과 실존적 위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재현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과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는 모든 장르에서 변주되어 다양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단편영화의 중요한 담론인 여성 및 어린이 관련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품 국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서유럽 영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양질의 동유럽 영화들도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출품작 수는 적었지만 아시아 영화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아시아국가의 영화들은 영화 만들기에 있어 남다른 과감성과 실험정신을 보여주며 아시아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경쟁 부문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극영화 82%, 다큐멘터리 7%, 애니메이션 6% 그리고 실험영화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단편영화의 극영화 비율은 국제경쟁 부문의 비율을 상회해 한국 단편영화의 극영화 쏠림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러닝타임을 경계로 일종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번 예심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닝타임이 긴 작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작품들이 주제나 연출의 확장성은 물론이고 양질의 아이디어나 높은 창의성 등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러닝타임이 긴 작품들에서는 유사한 상황이나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화합, 한국 사회의 비인간적 상황, 젠더, 이민, 재취업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 작품들은 주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영화로서의 모습보다는 독립 장편영화와의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 작품들은 실험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작품 간의 유사성이 증대되며 결국 개별 작품에서 고유함과 독립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높은 예술성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단편영화가 세계의 유수한 영화제들에서 여전히 큰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단편영화의 국제적 확장성을 위해서도 작품의 러닝타임과 형식의 실험성에 대한 창작자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예심위원들은 '단편다움'과 '문제의식'이라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고유한 심사 원칙에 따라 작품을 심사하였습니다. 장편영화의 습작이 아닌 독립적이고 완결성을 담보할 작품을 찾고자 했으며, 이런 특질이 보이는 작품들에 관객과 만날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손쉬운 익숙함보다는 어렵지만 고유한 자신의 방식을 택하는 영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좁고 험난하며 다른 사람이 가지 않던 길을 걸어가고, 헤아릴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 모든 창작자에게 마음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예심위원들은 출품된 모든 작품 속에서 창작 과정의 외로움을 보았으며 이는 우리에게 예술과 삶에 대한 창작자의 질문을 목도한 뜻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예심위원 일동

Select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 & Korean Competition

In selecting the films for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the 21 pre-selection jurors (15 from Korea, 6 from overseas) have selected a total of 40 films from 29 countr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19 films for "Korean Competition" as finalists. This year's pre-selection for the Competition section is different from past years: previously consisting of 2 rounds, 2020's pre-selection process had 3, in an effort to improve accuracy, integrit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entries' genre distribution was: 71% fiction, 12% documentary, 10% animation, and 7% experimental films. Many of the entries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were not only about political issues such as wars and civil wars, but also about social issues such as immigration, refugees, racism, personal reality and actual danger. In particular, the topic of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ppeared in various forms throughout the different genres. Another very current issue appearing in short films around the world is that of women and children. Taking a look at the distribution of the countries that made submissions, we note that Western Europe was prevalent, yet Eastern Europe stood out with many quality films. And while the number of entries from Asia was lower, they showed noticeable progress, with exceptional boldness and an experimental spirit revealing their potential.

In terms of genres, the "Korean Competition" showed 82% fiction, 7% documentary, 6% animation, and 5% experimental films. The proportion of fictional Korean short films exceeds tha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howing once again the Korean trend leaning towards fiction, but also a clear phenomenon occurring in films that pass the 20-minute running time. Overall, films under 20 minutes tend to present a wider range of themes and mise-en-scene styles, high-concept story ideas and general inventiveness. Meanwhile, the 20-to-30-minute-long films seem to address similar situations or characters tropes: school bullying, passive-aggressive family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humane situations, gender, immigration, employment. Interesting and compelling topics showing issue awareness but, by reaching for a longer runtime, these films tend to lose the impactful quality of the short film genre and start resembling independent feature films - often with a sameness of tone and a more risk-free veneer that can make them hard to differentiate from one another, and less memorable over time. Despite their workmanship and competitiveness, these 20-to-30-minute-long Korean short films are less susceptible to be selected by festivals abroad specifically because of their duration, which most foreign programmers do find excessive. In order to play at the international level, Korean short filmmakers should give further thought into their films' running time, as well as experimenting more with forms, styles and formats.

The pre-selection jurors made their decisions according to the unique judging principles of BISFF: "short film-ness" and "issue awareness". They strove to find shorts that are independent and complete, rather than rough drafts of feature films, in order to bring such works to the audience. And they found them – films that communicate with the world, films that choose the difficult path to be unique rather than familiar.

We send our deepest appreciation to all the filmmakers who have walked the untraveled path, spending restless nights and slaving for days in artistic creation. The pre-selection jury saw in all submitted films the lonely process of creation, and witnessed the questions that they raise about art and life.

The Pre-selection Jury of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 global network uniting the short film industry.

The Short Film Conference has been in existence since 1970 as a non-profit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short film. We are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world seeking to unite the global short film community.

SFC currently has over 70 official members, coming from over 40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hortfilmconference.com

info@shortfilmconference.com

facebook.com/sfconferenc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1 원시 수프 The Primordial Soup

15 27일(목) 16:30 시네마테크 | 27(Thu) 16:30 Cinematheque
29일(토) 20:00 소극장 | 29(Sat) 20:00 Cinema II





푸른 경계
Blue Frontier

Serbia | 2019 | Documentary | 19′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Ivan Milosavljević Producer Ivan Milosavljević
Cinematographer Strahinja Marković Editor Stevan Spasić
Sound Miloš Drndarević

시놉시스 Synopsis

국경에서 온 한 남자가 일생을 바쳐 푸른 다뉴브강에 숨어있는 거대한 물고기를 찾고 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때면 이 늙은 어부는 강물 위로 손으로 조각한 나무 조각을 쳐 소리를 내면서 이 물고기를 유혹한다. 물 위에 있는 어부와 거대한 강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물고기, 이 두 라이벌은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The man from the border has spent his entire life searching for the biggest fish that the blue Danube hides. Every sunrise sees the old fisherman attempt to lure the river giant using an ancient fishing method of clapping on the river surface with a hand-carved piece of wood. Two rivals - one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nd the other concealed within the depths of the mighty river - are waiting to finally meet.



감독 Director
이반 밀로사브예비치 Ivan Milosavljević

Contact
BLACK ROOSTER STUDIO
office@blackrooster.rs

열두 살의 여름
The Summer of 12

Taiwan | 2019 | Fiction | 25′2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Kuo Kuanling Producer Wu Yuzhen Script Kuo Kuanling
Cinematographer Lin Yuwang Editor Kuo Kuanling Music Yeh Menghsuan
Sound Yeh Menghsuan Cast Lin Menghsuan, Wu Zhixuan

시놉시스 Synopsis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절, 학교 수영팀에서 맺은 우정이 낯선 감정으로 변해간다. 6학년 소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 유 슈안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격해진다.

On the eve of adolescence, friendship becomes a bit awkward among the school's swimming team. Hiding a secret, sixth grade girl Yu Hsuan's heart is gradually revealed, day by day.



감독 Director
쿠어 관링 Kuo Kuanling

Contact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ptsfestival@gmail.com





강속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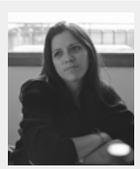
Peru | 2020 | Fiction | 1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Francesca Canepa Producer Jimena Hospina
Script Francesca Canepa Cinematographer Christian Valera
Editor Gino Moreno Music Karin Zielinski Cast Wilson Isminio Cruz,
Roover Mesia, Luis Mesia

시놉시스 Synopsis

아마존 강의 수상가옥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홉 살 어린이 후안은 어느 날 열대우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Juan, a 9-year-old kid, lives with his dad in a floating house on the Amazon River. Through an oniric journey into the rainforest jungle, he will discover the truth about his dad.



감독 Director
프란체스카 카네파 Francesca Canepa

Contact
LIGHTS ON
team@lightsonfilm.org

정신 차려
Stay Awake, Be R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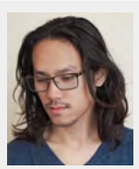
Vietnam, Korea, U.S.A. | 2019 | Fiction | 1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Pham Thien An Producer Pham Thien An, Tran Van Thi
Script Pham Thien An Cinematographer Dinh Duy Hung
Editor Pham Thien An Sound Tamas Steger Cast Le Quoc Bao Vi,
Vu Trong Tuyen, Trung Dong Cao, Be Hieu, Huynh Ngoc Hanh

시놉시스 Synopsis

거리 한 구석에 위치한 노점에서 세 청년이 수상한 대화를 나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다. 밤은 다채로운 현실의 색으로 물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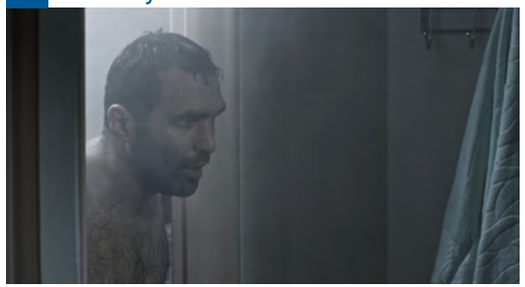
On a street corner, a mysterious conversation among three young men at a street stall. Meanwhile, there is a traffic accident on a motorbike. The night brings together a sketch, a multicolor frame of reality.



감독 Director
팜 티엔 안 Pham Thien An

Contact
LIGHTS ON
team@lightsonfilm.org

2 천의 얼굴을 가진 신
The Many-Faced God



들숨
Inhale

Iran | 2020 | Fiction | 19'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Nasser Zamiri Producer Afsaneh Arzamani, Nasser Zamiri
Script Nasser Zamiri, Neda Asadi Cinematographer Ashkan Ashkani
Editor Mohammad Tavakoli Sound Ehsan Afsharian,
Mohammad Hosein Ebrahimi Cast Mehrdad Bakhshi, Neda Asadi,
Ali Yazarloo

시놉시스 Synopsis

이브라힘의 만성불면증은 아내 마르지예와의 관계에 긴장감을 일으킨다.

Ebrahim's chronic insomnia has caused tension between him and his wife, Marziyeh.



감독 Director
나세르 제미리 Nasser Zamiri

Contact
NASSER ZAMIRI PRODUCTION
nasserzamiri.director@gmail.com

15 27일(목) 14:00 시네마테크 | 27(Thu) 14:00 Cinematheque
29일(토) 15:00 소극장 | 29(Sat) 15:00 Cinema II



비라고
Virago

Estonia | 2019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Kerli Kirch Schneider Producer Diana Mikita
Script Kerli Kirch Schneider Cinematographer Mart Ratassepp
Editor Marion Koppel Music Ann Reimann Sound Ann Reimann
Cast Tiina Tauraite, Juhan Ulfsak

시놉시스 Syn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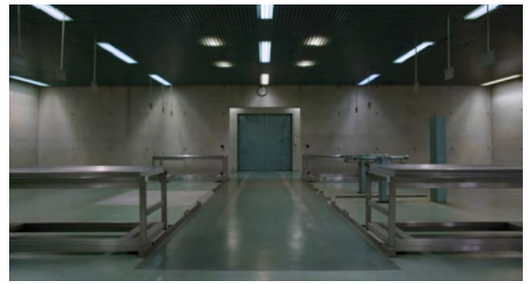
비라고 마을엔 40세를 넘겨본 주민이 없다. 그런데 투누는 40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

In the village of Virago, where no man has lived long enough to see his fortieth birthday, Tõnu is about to turn forty.



감독 Director
컬리 키르히 슈나이더 Kerli Kirch Schneider

Contact
INTERFILM BERLIN MANAGEMENT GMBH
cord.d@interfilm.de



베를린 화장장
POST MORTEM berlin

Germany | 2019 | Documentary | 25'46"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Anton von Heiseler Producer Sarah Dreyer, Malte Kutz
Script Anton von Heiseler Cinematographer Anastasia Gavrilova
Editor Merit Giesen Sound Lukas Zepf

시놉시스 Synopsis

영화는 우리 몸의 마지막 여행을 연출한다. 우리는 입관부터 분골 후 유골함에 담기는 화장의 과정을 경험한다. 지극히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오늘날의 완벽한 화장 절차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산업화된 예식이다.

POST MORTEM berlin shows the choreography of a body's last journey. We experience the process of a cremation: from the arrival of the coffin to the filling of the ash capsule. The technical and hygienically perfected process of cremation renders the deceased's last act into an industrialized ritual.



감독 Director
안톤 폰 헤이슬러 Anton von Heiseler

Contact
FILM UNIVERSITY BABELSBERG KONRAD WOLF
c.marx@filmuniversitaet.de



다시 한번
Re-Entry

The Netherlands | 2019 | Fiction | 9'15" | DCP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Ben Brand Producer STUDIO RUBA, Maarten van der Ven
Script Andy Weir, Ben Brand Cinematographer Maxime Desmet Editor NCE,
Patrick Schonewille Music Jesper Ankarfeldt Sound Mark Glynne
Cast Issaka Sawadogo, John Bang Reilly

시놉시스 Synopsis

한 사람(당신)이 교통 사고로 죽고 신과 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삶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답을 얻는다.

When a man (you) dies in a traffic accident and gets into a conversation with God, he gets an answer to the biggest question of life.



감독 Director
벤 브랜드 Ben Brand

Contact
KAPITEIN KORT
info@kapiteinmedia.nl

15 27일(목) 14:00 시네마테크 | 27(Thu) 14:00 Cinematheque
29일(토) 15:00 소극장 | 29(Sat) 15:00 Cinema II



우주를 향하여
He Can't Live without Cosmos

Russia | 2019 | Animation | 16′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Konstantin Bronzit Producer Alexander Boyarsky
Script Konstantin Bronzit Cinematographer Konstantin Bronzit
Editor Konstantin Bronzit Music Valentin Vassenkov
Sound Vladimir Golounin

시놉시스 Synopsis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운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This story is about mother and son. It is also about love and human destiny.



감독 Director
콘스탄틴 브론지트 Konstantin Bronzit

Contact
MELNITSA ANIMATION STUDIO
office@melnitsa.com

3 성장 곡선 Growth Curves



마티가 보낸 사랑
From Matti with Love

Finland | 2019 | Fiction | 18′09″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arno Lindemark Producer Patrik Sigmundt, Eero Tammi
Script Jarno Lindemark Cinematographer Janne Häkkinen
Editor Eero Tammi Sound Jarkko Kela Cast Petteri Pennilä, Rain Tolk, Tarja Heinula, Sampo Sarkola, Otso Kangasaho

시놉시스 Synopsis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핀란드의 작은 도시 이마트라는 지금 한여름이다. 외로운 남자 마티(54세)는 러시아 출신의 성전환여성 마샤를 만난다. 반짝이는 여름 밤, 마티는 자신의 거짓된 삶이 만든 복잡한 결과와 대면해야 한다.

It's midsummer in the Finnish small town of Imatra near the Russian border. Matti, a lonely 54-year-old man, meets a Russian transwoman, Masha. When the glittering night falls, Matti has to face the complex consequences of his fake life.



감독 Director
야르노 린데마크 Jarno Lindemark

Contact
KAIHO REPUBLIC
etunimi@kaihorepublic.com

15 28일(금) 15:00 소극장 | 28(Fri) 15:00 Cinema II
30일(일) 10:30 시네마테크 | 30(Sun) 10:30 Cinematheque



표류
Drifting

China, U.S.A. | 2020 | Fiction | 16′2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Bo Hanxiong Producer Wu Lisu, Wang Luxi, Bo Hanxiong, Guan Yirui Script Bo Hanxiong Cinematographer Joewi Verhoeven
Editor Bo Hanxiong, Xia Yinong Music Huang Mingxu
Sound Duan Peiqi, Nathan Nuyle Cast Han Sanming, Wang Jiali, Hu Bowen, Wang Junxiong

시놉시스 Synopsis

얀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태어난 둘째 아이이다. 그의 부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얀을 여자아이로 키우고, 첫째인 딸은 시골에 은밀히 보내 버렸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얀은 성 정체성의 혼란과 아버지의 무시에 고통받는다. 그의 도전적인 반항이 아버지의 오래된 택시 안에서 표류한다.

Yan is the illegal second child of a family during the One-Child policy in China. His parents raise him as a girl to avoid the punishment for having two children. Their first child, a daughter, is exiled and hidden in the countryside. Yan struggles with gender identity and the disdain of his father as well as being an outcast in a conservative society. His thrilling and rebellious defiance is in drifting his dad's old taxi.



감독 Director
보 한슝 Bo Hanxiong

Contact
Bo Hanxiong
bohanxiong23@gmail.com



브루클린 공원
Brookly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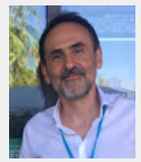
U.S.A. | 2019 | Fiction | 14′ | DCP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Nikola Duravcevic Producer Nikola Duravcevic, Emily Ziff Griffin, Stephanie Marin, Gerardo Coello Escalante Cinematographer Conor Murphy
Editor AJ Edwards Music Dylan Neely Sound Olaitan Agueh
Cast Olaitan Agueh, Absame, Charlotte, Abbas, Dione

시놉시스 Synopsis

홀로 뉴욕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사로 일하는 소말리아 출신 아브디. 야간 교대 근무를 시작하지만 고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뒷좌석에 탄 손님들의 얼굴이 계속 바뀐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과연 사실일까. 마침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현대를 사는 이민자의 소외, 슬픔, 초월감을 이야기하는 시적이고 서정적인 영화이다.

Alone in New York, Somali rideshare driver Abdi begins his nightshift with the news of a tragedy back home. The faces in the backseat change as he wrestles, unable to connect, with whether the unthinkable can be true - until a vision provides the clarity he seeks. Poetic and lyrical, *Brooklyn Park* is a modern-day immigrant tale that explores alienation, grief, and transcendence.



감독 Director
니콜라 두라브체비치 Nikola Duravcevic

Contact
AUG&OHR MEDIEN
film@augohr.de

15 28일(금) 15:00 소극장 | 28(Fri) 15:00 Cinema II
30일(일) 10:30 시네마테크 | 30(Sun) 10:30 Cinematheque



워드의 헤나파티
Ward's Henna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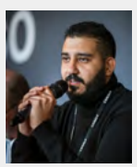
Egypt | 2019 | Fiction | 22'5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orad Mostafa Producer Morad Mostafa Script Mohamed Ali Mansour, Morad Mostafa Cinematographer ZEZO Editor Mohamed Mamdouh
Sound Ahmad Elsawy, Moustafa Shaaban Cast Halima, Ward, Amal Salah, Marina Victor, Hagar Mahmoud

시놉시스 Synopsis

할리마는 수단 출신 난민 여성이다. 이집트에 살면서 헤나로 그림을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한다. 그는 여느 날처럼 결혼식 신부를 꾸며주기 위해 기자의 마을로 향하고, 함께 간 일곱 살 딸 워드와 길을 헤메다가 장소를 발견한다.

Halima, a Sudanese refugee woman, lives in Egypt and works as a henna painter. On a regular working day, she goes to one of Giza's local areas to prepare a bride for her wedding. Her 7-year-old daughter Ward accompanies her and starts to wander around and discover the place.



감독 Director
모라드 모스타파 Morad Mostafa

Contact
SALAUD MORISSET
zoe@salaudmorisset.com



슈퍼 히어로가 되긴 아직 일러
And Yet We're Not Super Heroes

Belgium | 2019 | Animation | 12'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Lia Bertels Producer Thierry Zamparutti, Ambiances Asbl
Script Lia Bertels Cinematographer Lia Bertels Editor Lia Bertels
Sound Duarte Ferreira, Laurent Martin Cast Nina, Miguel, Elisabeth, Samuel, Sofia

시놉시스 Synopsis

어린 시절에는 상상력과 현실의 미묘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상상과 현실의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자유를 얻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There is in childhood that moment when the flimsy line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shatters. These are the testimonies of children between those two worlds, to whom the freedom to speak freely was given.



감독 Director
리아 베르텔 Lia Bertels

Contact
AUTOUR DE MINUIT - ANNABEL SEBAG
annabel@autourdeminuit.com

4 다이나믹 듀오 Dynamic Duos

15 28일(금) 10:00 중극장 | 28(Fri) 10:00 Cinema I
29일(토) 17:30 소극장 | 29(Sat) 17:30 Cinema II



천 개의 돛
A Thousand Sails

Hong Kong, China | 2019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Eric Hingweng Tsang Producer Sharon Kayan Lo
Script Eric Hingweng Tsang Cinematographer Leo Shekkeung Wong
Editor Eric Hingweng Tsang Sound Jacklam Tszyeung Ho
Cast Leong Cheokmei, Chow Pochung

시놉시스 Synopsis

홀로 지내는 나이 많은 여성 렌. 어느 날 장애를 가진 이웃이 그녀에게 부탁을 하나 한다. 도시로 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을 전해달라는 것이다. 그녀는 부탁대로 아들을 만나고 그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섬에 돌아오자 이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Solitary old lady Ren is asked by a disabled neighbor to send some gifts to his son in the city. She meets the son and brings a secret about him back to the island where she has no one to talk to.



감독 Director
에릭 칭홍 정 Eric Hingweng Tsang

Contact
FRESH WAV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fo@freshwave.hk



아버지
F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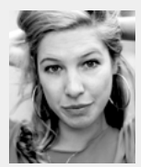
The Netherlands | 2019 | Documentary | 2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Isabel Lamberti Producer Marc Bary, Steven Rubinstein Malamud
Script Isabel Lamberti Cinematographer Jeroen Kiers Editor Sabine Maas
Cast Jacinto Marie, Shakur Bijker, Alia Karamat Huijsers

시놉시스 Synopsis

영화는 거의 6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낸 사춘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탐구한다. 하신토는 현실과 재회하기 위해 아들과 여행을 떠나고 여자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과거를 회상한다.

Fath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 and his adolescent son with whom he has barely been in touch for nearly six years. Jacinto takes his son on a road trip to reconnect in the present while he reflects on the past when talking to his girlfriend over the phone.



감독 Director
이사벨 램버티 Isabel Lamberti

Contact
IJSWATER FILMS
jose@ijswater.nl

15 28일(금) 10:00 중극장 | 28(Fri) 10:00 Cinema I
29일(토) 17:30 소극장 | 29(Sat) 17:30 Cinema II



아빠와 딸
Daughter

Czech Republic | 2019 | Animation | 14'44"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Daria Kashcheeva Producer FAMU Script Daria Kashcheeva
Cinematographer Bargav Sridhar, Daria Kashcheeva
Editor Alexander Kashcheev Music Petr Vrba

시놉시스 Syn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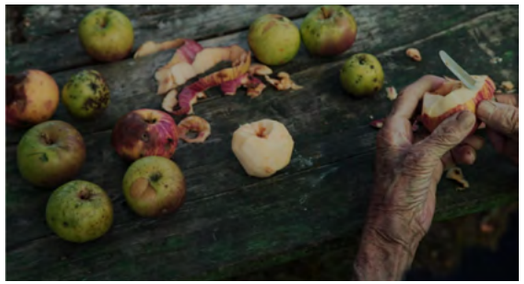
우리는 고통을 감추어야 하는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표현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내면에 스스로를 가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너무 늦기 전에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가?

Should you hide your pain? Close yourself inside your inner world, full of longing for your father's love and its displays? Or should you understand and forgive before it is too late?



감독 Director
다리아 카시치바 Daria Kashcheeva

Contact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밤이 오면
Then Comes the Ev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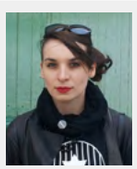
Serbia, Bosnia and Herzegovina | 2019 | Documentary | 27'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aja Novaković Producer Maja Novaković, Milan Milosavljević
Script Maja Novaković Cinematographer Jasna Priloć Editor Marija Kovačina
Sound Luka Barajević Cast Vinka Radić, Obrenija Radić

시놉시스 Synopsis

보스니아 동쪽 고립된 산간 지역의 일상을 그린, 쌉쌀한 맛의 시와 같은 영화. 그곳에서 살아가며 서로 돌봐주는 할머니들의 인간적 친밀감을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그린다.

Bitter poetry of everyday life in the isolated hills of Eastern Bosnia shows the care and intimacy of the grannies, both in their mutual relations and in their relationship with nature.



감독 Director
마야 노바코비치 Maja Novaković

Contact
Maja Novaković
milemicamalimjau@yahoo.com

5 신기루
Greener Grass

15 28일(금) 12:30 중극장 | 28(Fri) 12:30 Cinema I
30일(일) 17:30 소극장 | 30(Sun) 17:30 Cinema II



일몰
Sunsets

Thailand | 2019 | Documentary | 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Pedroli Domenico Singha Producer Pedroli Domenico Singha
Script Pedroli Domenico Singha Cinematographer Pedroli Domenico Singha
Editor Pedroli Domenico Singha Music Pedroli Domenico Singha
Sound Pedroli Domenico Singha Cast Jarat Sae-Hao

시놉시스 Synopsis

태국 남부에 위치한 송클라. 불가사의한 힘이 풍경을 지배하는 이곳에서, 세 명의 노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일상을 영위한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과 피부, 그리고 작은 몸짓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이것들은 결국 기억과 꿈으로 승화한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답고도 연약한 내면이 드러난다.

In southern Thailand, the landscape of Songkhla is shaped by mysterious forces. Three elderly people are leading their daily lives as they always did in past decades. We embark on a journey into their faces, skin, and little gestures, which will eventually transcend into their memories and dreams. Their inner world emerges in its own beautiful fragility.



감독 Director
페드로리 도메니코 싱하
Pedroli Domenico Singha

Contact
Pedroli Domenico Singha
domenico.pedroli@gmail.com



부둣가의 남자
L'Homme Jetée

Switzerland, France | 2019 | Fiction | 20'58"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Loïc Hobi Producer Loïc Hobi Script Loïc Hobi
Cinematographer Jacques Baguenier Editor Gaëtan Moineau, Loïc Hobi
Sound Arthur Meyer, Vuk Vukmanovic Cast Hubert Girard, Youssouf Abi-Ayad

시놉시스 Synopsis

젊은 부두 노동자 테오의 삶은 지나가는 화물선 경적의 리듬에 맞춰 흘러가듯 단조롭다. 그는 잠시 정박한 배의 선원 주세페를 만나게 되면서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용기를 낸다. 주세페와 함께 삶의 파도에 맞서며 거친 바다를 항해하려는 것이다.

A young docker's life flows with the monotonous rhythm of cargo ships passing by. Through his encounter with Giuseppe, a disillusioned sailor ashore for a while, Theo will gather the courage to face the waves to escape his dull existence by trying to join Giuseppe's gruff crew.



감독 Director
로익 호비 Loïc Hobi

Contact
TELL ME THE STORY
contact@tellmethestory.ch

15 28일(금) 12:30 중극장 | 28(Fri) 12:30 Cinema I
30일(일) 17:30 소극장 | 30(Sun) 17:30 Cinema II



밴
The Van

France, Albania | 2019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Erenik Beqiri Producer Olivier Berlemont Script Erenik Beqiri
Cinematographer Guillaume Le Grontec Editor Pauline Pallier
Music Julie Tribout Sound Endri Pine Cast Phénix Brossard,
Arben Bajraktaraj, Afrim Muçaj, Lulzim Zeqja, Romir Zalla

시놉시스 Synopsis

밴이 멈추고 열린 문으로 아들이 살아서 걸어 나온다. 몇 차례의 싸움이 이어지고, 아들은 알바니아를 빠져나올 돈을 마련한다. 아버지도 함께 데려올 수 있을까.

The van finally stops, the doors open and the son comes out alive. A few more fights and he will be able to pay his way out of Albania, and hopefully, take his father with him.



감독 Director
에레니크 베키리 Erenik Beqiri

Contact
ORIGINE FILMS
festivals@originefilms.fr



니자르
Niz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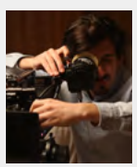
Italy | 2019 | Documentary | 17′53″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irco Valenza Producer Mirco Valenza
Script Annalisa Elba, Mirco Valenza Cinematographer Mirco Valenza
Editor Julian Grass Music Edoardo Elia, Julian Grass Sound Enos Desjardins,
Tommaso Danisi Cast Nizar Ben Amara, Agostino De Rosa

시놉시스 Synopsis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 승인을 거부당하자 튀니지 출신의 청년 니자르는 순식간에 기본권을 상실하고 만다. 니자르는 체육관 관장이자 MMA 트레이너인 아고스티노와 만나면서 격투기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인생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프로 MMA 경기에 도전한다. 어쩌면 상대 선수들 가운데 니자르가 두고 온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

When Nizar's application for political asylum is rejected by the Italian authorities, the young Tunisian finds himself stripped of his most basic rights overnight. After meeting Agostino, a local gym owner and MMA trainer, Nizar discovers his talent for the sport, eventually taking up pro MMA fighting as a means of turning his life around. Perhaps, among other local athletes, he will find the family he has left behind.



감독 Director
미르코 발렌자 Mirco Valenza

Contact
LETTERBOX FILMS LTD
mirco.valenza@gmail.com

6 구조신호
Help Wanted

15 28일(금) 15:00 중극장 | 28(Fri) 15:00 Cinema I
30일(일) 12:30 소극장 | 30(Sun) 12:30 Cinema II



당직
Dogwatch

Austria | 2019 | Fiction | 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Albin Wildner Producer Bernhard Wenger, Clara Bacher, Sophie Sy,
Albin Wildner Script Albin Wildner Cinematographer Johannes Hoss
Editor Lukas Meissner, Julia Willi Music Anna Starzinger, Volksoper Wien,
Yasuhito Watanabe Sound Florian Rabl, Ken Rischard, Philipp Mayer
Cast Rainer Wöss, Anna Tenta, Anton Noori, Gertrud Roll, Vitus Wieser

시놉시스 Synopsis

오랜 시간 일자리가 없었던 라파엘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다. 기술자였던 전 직업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도 했다. 어머니를 돌봐주는 용감한 간호사 베라, 사랑하는 개 리오와 함께 라파엘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한다.

After being unemployed for a long time, Raphael is forced to take a job as a night-time security guard - an occupation vastly different from his former technical career. To make matters more difficult, he also recently moved back in with his bedridden mother, cared for by the courageous nurse Vera. Together with Vera and his beloved dog Rio, Raphael slowly starts to manage his new life situation.



감독 Director
알빈 와일드너 Albin Wildner

Contact
Albin Wildner
a.wildner@gmx.at



리부트
Reboo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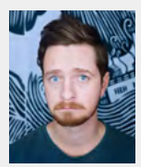
Australia | 2019 | Animation | 12′43″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Michael Shanks Producer Nicholas Colla, Chris Hocking
Script Michael Shanks Cinematographer Gerald Thompson, Max Walter
Editor Chris Hocking, Kevin Luk, Michael Shanks Music Michael Shanks
Cast Michael Wahr, Nicolette Minster, Lee Beckhurst, Nicholas Colla,
Michael Shanks

시놉시스 Synopsis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해골은 왕년에 잘나가던 은막의 천하무적 악당이었으나 지금은 배역을 따내기 위해 고전한다.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는 본인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A stop motion animated skeleton, once a formidable villain of the silver screen and now a struggling actor, takes drastic measures when he learns the film for which he was created is being remade without him.



감독 Director
마이클 생크스 Michael Shanks

Contact
LATENITE FILMS
producers@latenitefilms.com

15 28일(금) 15:00 중극장 | 28(Fri) 15:00 Cinema I
30일(일) 12:30 소극장 | 30(Sun) 12:30 Cinema II



케플러 - 452b
Night Upon Kepler 452b

Germany | 2019 | Documentary, Experimental | 14'0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Ben Voit Producer Roj Younis, Roshak Ahmad
Cinematographer Konrad Waldmann Editor Sianne Gevatter
Sound Richard Meyer

시놉시스 Synopsis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잠잘 곳을 찾아 헤맨다. 어둠을 뚫고 나온 차 한 대가 갈 곳을 잃은 듯 길 위를 방황한다.

Cold times, people are looking for a place to sleep. A car rambles through the night, to bring out of the dark what could get lost in there.



감독 Director
벤 보이트 Ben Voit

Contact
FILM UNIVERSITY BABELSBERG KONRAD WOLF
c.marx@filmuniversitaet.de



미뇽
Mignion

Romania | 2019 | Fiction | 22'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Anghel Damian Producer Anca Damian, Anghel Damian
Script Anghel Damian Cinematographer George Dascalescu
Editor Ciprian Cimpoi Sound Dan-Stefan Rucareanu, Ioan Filip
Cast Adrian Titieni, Razvan Tomus, Costel Cascaval

시놉시스 Synopsis

양치기 조수로 일하게 된 7살 소년은 양을 치는 삶에 적응하고 어른스러워지기를 강요받는다. 영화는 소년이 속한 삶의 여러 순간들을 보여준다.

This short story captures moments from the life of a 7-year-old boy, a shepherd's helper, forced to mature and bear living in the sheepfold.



감독 Director
앙겔 데미안 Anghel Damian

Contact
APARTE FILM
office@apartefilm.net

7 불타는 열정
Fiery Tempers

15 28일(금) 17:30 중극장 | 28(Fri) 17:30 Cinema I
30일(일) 10:00 소극장 | 30(Sun) 10:00 Cinema II



2050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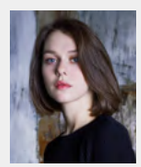
Russia | 2019 | Fiction | 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Alexandra Lupsahko Producer Aumov Alexander
Script Kulik Eugeniy, Sherbak Ivan Cinematographer Astya Trofimova
Editor Lupashko Alexandra Music BEATLES Cast Kulik Eugeniy,
Medvedev Vadim, Goriaslavec Vladimir

시놉시스 Synopsis

미래가 열렸다. 전화 판매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들을 반기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초현대적인 드라마를 다룬 러시아 코미디이다.

The future has come and it seems cold-callers are not just a thing of the past and they are just as unwelcome. A futuristic Russian dramedy.



감독 Director
알렉산드라 루프사코 Alexandra Lupsahko

Contact
KULIK PRODUCTION
productionkulik@gmail.com



아이 죽이기
The Killing of a Child

The Netherlands | 2019 | Fiction | 12'19" | DCP | B&W | No Dialogue

Director Kim Kokosky Deforchaux Producer Titus Kokosky Deforchaux
Script Kim Kokosky Deforchaux Cinematographer Christiaan van Leeuwen
Editor Tobias Cornelissen
Music Kim Kokosky Deforchaux, Olmo van Straalen
Sound Olmo van Straalen Cast Lucas van der Pot, Viggo Lingen

시놉시스 Synopsis

네덜란드의 우울한 시골 마을, 여덟 살 소년이 매일 힘겹게 학교에 다닌다. 소년은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있는 나무 기둥에서 자신의 좌절감을 표출한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 기둥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소년을 목격하고, 두 소년은 곧바로 친구가 된다. 그렇다고 소년이 자신의 비참한 일상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둘의 우정은 깊어지고, 소년의 순수함이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In the gloomy Dutch countryside, a lonely 8-year-old boy drags himself to school and back every day. On his route he lets out his frustration on the same wooden pole every time he passes, until one day he runs into another boy doing the same thing. The two boys instantly become best friends. This, however, does not free the boy from his miserable daily existence. As the friendship evolves it becomes clear that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boys' innocence will succumb to a gruesome, but inevitable, fate.



감독 Director
킴 코코스키 드포쇼 Kim Kokosky Deforchaux

Contact
KAPITEIN KORT
info@kapiteinmedia.nl

15 28일(금) 17:30 중극장 | 28(Fri) 17:30 Cinema I
30일(일) 10:00 소극장 | 30(Sun) 10:00 Cinema II



작은 영혼
The Little S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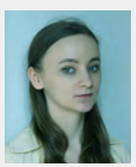
Poland | 2019 | Animation | 9'12"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Barbara Rupik Producer Agata Golanska Script Barbara Rupik
Cinematographer Barbara Rupik Editor Barbara Rupik Music Matei Vasilache
Sound Barbara Rupik

시놉시스 Synopsis

강둑에 시체 한 구가 놓여있다. 썩어가는 몸 안에 인간의 영혼이 숨어있다. 고인의 미니어처이다. 썩어가는 장기에서 나온 작은 생명체는 강둑에 서서 시체와 작별하고 사후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

A dead body became stuck by a river bank. Its decaying insides still hide a human soul - a miniature of the deceased. Rotting organs part and a tiny creature gets out. Standing on the river bank, it says goodbye to the corpse and sets off on a journey through the post-mortem land.



감독 Director
바바라 루픽 Barbara Rupik

Contact
INDEKS FILM STUDIO
office@studioindeks.pl



올라
Olla

France, UK | 2019 | Fiction | 27'02"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Ariane Labed Producer Marine Arrighi de Casanova, Ariane Labed
Script Ariane Labed Cinematographer Balthazar Lab
Editor Yorgos Mavropsaridis Music Coti K. Sound Johnnie Burn,
Sergio Henriquez Martinez Cast Romanna Lobach, Grégoire Tachnakian,
Jenny Bellay, Gall Gaspard

시놉시스 Synopsis

동유럽 여성을 찾는다는 데이팅 웹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올라. 그녀는 노모와 함께 사는 피에르의 집에 들어가기로 한다. 그러나 무엇 하나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Olla has answered an ad on a dating website for eastern women. She moves in with Pierre, who lives with his old mother. But nothing goes as expected.



감독 Director
아리안 라비드 Ariane Labed

Contact
APSARA FILMS
contact@apsarafilms.fr

8 트라우마적 유대
The Trauma Bond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I was Still There When You Left Me

Belgium | 2019 | Fiction | 23'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arie McCourt Producer MEDIADIFFUSION
Script Abdoulkarim Hamadi, Marie McCourt
Cinematographer Mélanie Jacques, Oscar Haezenberghe
Editor Lucie Floc'h Levi Music Rowan Van Hoef Sound Lewis Delsaux,
Owen Rose, Victor Connan Cast Anaé Romyns, Joël Bunganga,
Rachad Zangaba, Moon Hatangimana, Kevin Ndayambaje

시놉시스 Synopsis

어린 소녀가 이웃 청년의 도움으로 화재에서 구출된다. 그들은 아파트로 피신하여 불 타오르는 건물을 바라본다.

A little girl is saved from a fire by her young neighbor. They take shelter in an apartment from where they see their tower burning.



감독 Director
마리 매코트 Marie McCourt

Contact
MEDIADIFFUSION
diffusion@iad-arts.be



독버섯
Amanita

Czech Republic | 2020 | Fiction | 10'0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ason Wen Producer Jason Wen Script Jason Wen
Cinematographer Jason Wen Editor Jason Wen Music Kai Engel, Peter Sandberg
Sound Brahadeeshwar Chandilya Cast Eliska Slansky, Michal Skácel,
Alexander Horák

시놉시스 Synopsis

자신의 천막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열세 살짜리 소녀가 있다. 소녀는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숲 속 은밀한 곳으로 가 버섯을 모으려 한다. 바구니를 다 채우고 다시 프라하의 집으로 돌아가면 괴물을 마주할 것이다.

A 13-year-old girl says a monster lives in her tipi. Thus begins her journey by train from Prague to a secret location in the forest to gather mushrooms. Once she fills her basket, she travels back home to Prague and confronts the monster inside.



감독 Director
제이슨 웬 Jason Wen

Contact
Jason Wen
jasonjwen@gmail.com

15 29일(토) 10:00 중극장 | 29(Sat) 10:00 Cinema I
30일(일) 20:00 소극장 | 30(Sun) 20:00 Cinema II



아담
Adam

Singapore | 2019 | Fiction | 19′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Shoki Lin Producer Wan Murni Script Shoki Lin
Cinematographer Ibrahim Zubir Editor Al-Azmir Ibrahim Music Lok Sulwyn
Sound Natasha Jumari Cast Ayden Liow, Wan Sharmila, Elvis Chin,
Serina Sng, Jacob Teo

시놉시스 Synopsis

요란스러운 가족과의 생활에 지친 아담. 자신만의 장소를 갖기 위해 대안을 찾는다.

Tired of his turbulent family life, Adam seeks out an alternative arrangement in hopes of finding his place.



감독 Director
쇼키 린 Shoki Lin

Contact
LIGHTS ON
team@lightsonfilm.org



살롱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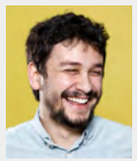
Kosovo | 2019 | Fiction | 13′47″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Zgjim Terziqi Producer Valmira Hyseni Script Zgjim Terziqi
Cinematographer Almir Đikoli Editor Esat Fejza Music ANDRRA
Sound Pellumb Ballata Cast Armond Morina, Irena Cahani,
May-Linda Kosumovic, Xhejlane Terbunja, Anisa Ismajli

시놉시스 Synopsis

한 여자가 남편을 살해한다. 다음 날 미용실에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곳에는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가 있다.

The day after a wife murdered her husband, the incident is discussed in a beauty salon where a soon-to-be wife is in a rush to get ready for her wedding.



감독 Director
스김 테르지키 Zgjim Terziqi

Contact
Zgjim Terziqi
zgjim.t@gmail.com



모자이크 조각
Shard Mosa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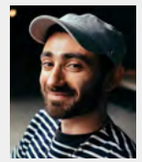
Switzerland | 2019 | Fiction | 2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onathan Hug Producer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Jonathan Hug Script Jonathan Hug Cinematographer Nino Michel
Editor Giorgi Sakhelashvili Music VOYA Sound Patricya Pakiela
Cast Lukas Kubik, Monika Varga, Julian Anatol Schneider

시놉시스 Synopsis

파브리스와 레나는 행복한 커플처럼 보이지만, 레나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파브리스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다. 끔찍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고, 파브리스는 친구 토비아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제 파브리스가 선택할 시간이다.

Fabrice and Lena are a happy couple on the surface. But her repeatedly abusive behavior makes him cave. After another bloody incident, he confides in his friend Tobias. Fabrice has to make a decision.



감독 Director
요나탄 하우기 Jonathan Hug

Contact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yasmin.joerg@zhdk.ch



밥상에서 울지마라
No Crying at the Dinne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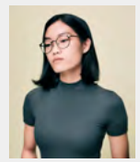
Canada | 2019 | Documentary | 15′4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Carol Nguyen Producer Carol Nguyen, Aziz Zoromba
Cinematographer Walid Jabri Editor Andres Solis, Carol Nguyen
Music Arie van de Ven Sound Alex Lane, Giulio Trejo-Martinez, Tim Horler
Cast Thao Nguyen-Duong, Ngoc Nguyen, Michelle Nguyen, Carol Nguyen

시놉시스 Synopsis

캐럴 응우옌 감독은 사랑, 슬픔, 세대 간 트라우마의 초상을 완성하기 위해 가족을 인터뷰한다.

Filmmaker Carol Nguyen interviews her family to craft a portrait of love, grief, and intergenerational trauma.



감독 Director
캐럴 응우옌 Carol Nguyen

Contact
TRAVELLING DISTRIBUTION
info@travellingdistribution.com

9 불평등의 역설 The Inequality Paradox

15 29일(토) 12:30 중극장 | 29(Sat) 12:30 Cinema I
31일(월) 15:00 소극장 | 31(Mon) 15:00 Cinema II



세우타의 관문
Bab Seb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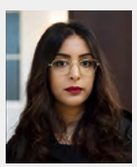
France, Morocco | 2019 | Documentary, Experimental | 2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Randa Maroufi Producer Saïd Hamich, Sophie Penson
Cinematographer Luca Coassin Editor Ismaël Joffroy Chandoutis
Sound Mohamed Bounouar

시놉시스 Synopsis

모로코 지역의 스페인 소수민족 거주지인 세우타. 〈세우타의 관문〉은 이곳에서 관찰된 상황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곳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일을 하고 있다.

Bab Sebta is a series of reconstructions of situations observed in Ceuta, a Spanish enclave in North Africa. This place is the scene of a traffic in manufactured goods sold at a discount. Thousands of people work there every day.



감독 Director
란다 마루피 Randa Maroufi

Contact
SHORTCUTS
festival@shortcuts.pro



민병대
Rebel

Canada | 2019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Pier-Philippe Chevigny Producer Geneviève Gosselin-G.
Script Pier-Philippe Chevigny Cinematographer Gabriel Brault-Tardif
Editor Pier-Philippe Chevigny Sound Simon Gervais
Cast Édouard-B. Larocque, Émile Schneider, Sasha, Migliarese, Jean-Nicolas Verreault

시놉시스 Synopsis

아빠가 이끄는 우익 민병대의 미스터리한 순찰은 천진난만한 여섯 살 꼬마 알렉스에게 숲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숨바꼭질일 뿐이다. 그날 아침 모든 상황이 또렷해진다.

To Alex, a naive 6-year-old boy, the mysterious patrols his father leads with his right-wing militia are just more occasions to go play hide and seek out in the woods. That morning, though, it all comes into focus.



감독 Director
피어 필리프 체비니 Pier-Philippe Chevigny

Contact
H264 DISTRIBUTION
info@h264distribution.com



강가에서
At a Riverside

Turkey | 2019 | Fiction | 13'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uhammed Furkan Daşbilek Producer Turan Haste
Script Muhammed Furkan Daşbilek Cinematographer Mustafa Yeşilova
Editor Muhammed Furkan Daşbilek Music Tolga Çebi Sound Meriç Erseçgen
Cast Ali Pınar, İlter Kapıcı, Berker Mehmet Korkmaz, Gözde Yıldırım, Murat Seçkin

시놉시스 Synopsis

한 시민단체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와 함께 세르비아 대학살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도망치고 있다. 가방 속에서는 라디오가 시끄럽게 울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이들은 강가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곳에 도착했음을 깨닫는다.

While a civilian group with a woman who is about to give birth is running away from Serbian genocide to a safe zone with a blaring radio in their bag and a dog barking, they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at the riverside, but at the side of another thing...



감독 Director
무함메드 푸칸 다스빌렉
Muhammed Furkan Daşbilek

Contact
Muhammed Furkan Daşbilek
m.furkandasbilek@gmail.com



혁명의 역사
History of the Revolution

France | 2019 | Documentary, Experimental | 30' | DCP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axime Martinot Producer Quentin Brayer
Cinematographer Robin Fresson, Théophile Gay-Mazas
Editor Maxime Martinot Sound Victor Praud Cast Miguel Armas, Morgane Long, Marius Loris, Hugues Perrot, Léo Richard

시놉시스 Synopsis

〈혁명의 역사〉. 혁명이라는 단어의 다의성과 가역성을 탐구하는 에세이 영화치고는 아이러니한 제목이다. 혁명에서 파생된 이미지들, 점차 발전하거나 사라지는 단어들, 투쟁의 지도 곳곳에 흩어진 반역사적 운동, 그들의 영광, 그들의 흔적…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

History of the Revolution. Ironic title for a film essay exploring polysemy and the reversibility of the word revolution: images that stream from it, words that develop it or cancel out its potential, in an ahistorical movement dotting around the map of struggles, their mournings, their glories, their traces, nestled in the present moment.



감독 Director
막심 마티노 Maxime Martinot

Contact
DON QUICHOTTE FILMS
quentin.deleau@unifrance.org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1 뫼비우스의 띠
Möbius Strip



호랑이와 소
Tiger and Ox

Korea | 2019 | Animation, Documentary | 8'16"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승희 Kim Seunghee Producer 김승희 Kim Seunghee
Script 김승희 Kim Seunghee Cinematographer 김승희 Kim Seunghee
Editor 김승희 Kim Seunghee Sound 김승희 Kim Seunghee
Cast 김연숙 Kim Yeonsuk, 김승희 Kim Seunghee

시놉시스 Synopsis

가부장제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이혼이란 무엇일까? 아빠 없는 가족은 실패한 가족인가? 이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딸은 엄마와 대화를 시도한다.

What does divorce mean to women in Korean patriarchal society? Is a fatherless family a failure?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 single mother and her daughter start a conversation.



감독 Director
김승희 Kim Seunghee

Contact
김승희 Kim Seunghee
kshee140831@gmail.com

15 27일(목) 13:30 소극장 | 27(Thu) 13:30 Cinema II
29일(토) 15:00 중극장 | 29(Sat) 15:00 Cinema I GV



어머니와 화가
Painter &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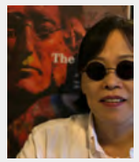
Korea | 2019 | Documentary | 12'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Forest Ian Etsler, 김영미 Kim Youngmi
Producer 김영미 Kim Youngmi Script 김영미 Kim Youngmi
Cinematographer 김승환 Kim Seunghwan, 이병호 Lee Byeongho,
윌리엄 케이퍼 William Kiefer Editor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Forest Ian Etsler
Music 안태민 Ahn Taemin Sound 김근수 Kim Geunsu
Cast 김영미 Kim Youngmi, 허건예 Hoer Konyae

시놉시스 Synopsis

화가 김영미는 2년을 제외한 평생을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의사들의 예상보다 15년 더 오래 살았지만 현재는 치매에 걸렸다. 어느 때보다 더 이 모녀는 가족의 과거를 안고, 현재를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림에 의존한다. 〈어머니와 화가〉는 모녀 관계를 영화적-시적으로 담은 가족 다큐멘터리이다.

South Korean painter, Kim Youngmi has spent all but two years of her life living alongside her mother. Although Kim's mother has outlived doctors' expectations by 15 years, she currently suffers from severe dementia. Now, more than ever, painter Kim and her mother rely on painting to embrace their past, process their present, and prepare for the inevitable future. *Painter & Mom* is a family documentary that strives for a cinematic-poetic portrayal of a child-parent relationship, highlighted with a spiritual finale that aims to transcend.

감독 Director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김영미
Forest Ian Etsler, Kim Youngmi

Contact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Forest Ian Etsler
forest.ian.etsler@gmail.com



레오
Leo

Korea | 2019 | Fiction | 27'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덕찬 Lee Deokchan Producer 이덕찬 Lee Deokchan
Script 이덕찬 Lee Deokchan Cinematographer 이태희 Lee Taehui
Editor 김정훈 Kim Jeonghoon Sound 최지영 Choi Jiyoung
Cast 박예영 Park Yeyoung, 최용진 Choi Yongjin, 황건 Hwang Gun

시놉시스 Synopsis

첼로 유학을 떠났던 은애는 수년 만의 귀국 날, 첼로를 팔기로 결심한다.

Cellist Eun-ae decides to sell her cello on the day she returns from studying abroad.



감독 Director
이덕찬 Lee Deokchan

Contact
호우주의보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파테르
Parter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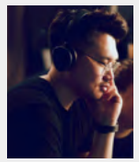
Korea | 2019 | Fiction | 26'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상환 Lee Sanghwan Producer 박소혜 Park Sohye
Script 이상환 Lee Sanghwan Cinematographer 정그림 Jeong Grim
Editor 이상환 Lee Sanghwan Music 손한묵 Son Hanmook
Sound 심규훈 Shim Gyuhoon Cast 이상현 Lee Sanghyun, 오민정 Oh Minjeong,
장준휘 Jang Junhui

시놉시스 Synopsis

미등록 체류자인 오성은 전국체전에 나가고 싶지만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Ohseong is a son of an illegal Mongolian immigrant. Being stateless, he cannot compete in a nationwide wrestling match. He ends up doing something illegal with his mother's companion to gain a citizenship.



감독 Director
이상환 Lee Sanghwan

Contact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shinsk@kofic.or.kr

2 두 번째 스물
Second Youth



상팔자
Empty

Korea | 2019 | Fiction | 20'4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민재 Kim Minjae Producer 김민재 Kim Minjae
Script 김민재 Kim Minjae Cinematographer 박정호 Park Jungho
Editor 김민재 Kim Minjae Sound 박에녹 Park Enoch, 최규승 Choi Kyusung
Cast 김금순 Kim Kumsoon, 임호준 Lim Hojun, 이윤미 Lee Yunme, 하민 Ha Min, 원춘규 Won Chunkyu

시놉시스 Synopsis

중년의 나이에 호프집 주방에서 일하는 자옥은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된다. 자옥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One day, Jaok, a middle-aged woman who works part-time at a pub, finds out that she is pregnant. She has mixed feelings about being a first-time mom.



감독 Director
김민재 Kim Minjae

Contact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15 27일(목) 16:00 소극장 | 27(Thu) 16:00 Cinema II
29일(토) 17:30 중극장 | 29(Sat) 17:30 Cinema I GV



고잉 마이 홈
Going My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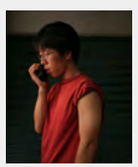
Korea | 2019 | Fiction | 26'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신종훈 Shin Jonghun Producer 신종훈 Shin Jonghun
Script 신종훈 Shin Jonghun Cinematographer 원영상 Won Yeongsang
Editor 박주영 Park Juyeong Music 임민주 Im Minju Cast 서동갑 Seo Donggap

시놉시스 Synopsis

HIV 보균자인 용근은, 아버지의 생신에 참석하기 위해 들린 강릉에서 첫사랑 은지와 우연히 만난다. 오랜만에 만난 용근에게 은지는 호감을 표현하는데, 그런 그녀에게 용근은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을 고백하게 되고, 은지는 눈물이 터진다.

Yonggeun, who is HIV-Positive, goes back to his hometown to celebrate his father's birthday. Taking pills has become his everyday life since it helps him maintain his health. He meets a man at a motel, who finds the box of pills in Yonggeun's bag.



감독 Director
신종훈 Shin Jonghun

Contact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PRIDE FILM FESTIVAL
technique@sipff.kr

3 삼일치 법칙
The Three Unities



나의 새라씨
To Each Your Sarah

Korea | 2019 | Fiction | 25'3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덕근 Kim Deokgeun Producer 권지수 Kwon Jisu
Script 김덕근 Kim Deokgeun Cinematographer 이태희 Lee Tei
Editor 김영덕 Kim Youngduk Music 강미미 Kang Mimi
Sound 김영호 Arron Kim Cast 김자영 Kim Jayoung, 오민애 Oh Minae, 전소현 Jeon Sohyun

시놉시스 Synopsis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서울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51살 아줌마 정자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새라라는 가명으로 도축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를 정자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난다.

Discouraged by her life in Seoul, a 51-year-old woman named Jungja returns to her hometown. There, she starts working at a slaughterhouse under the alias Sarah to hide her miserable plight from other people. But, someone recognizes her and calls her by her real name.



감독 Director
김덕근 Kim Deokgeun

Contact
(주)인디스토리 INDIESTORY INC.
indiestory@indiestory.com



내가 그리웠니
AKA 5JO

Korea | 2019 | Fiction | 14'45" | DCP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경원 Lee Kyeongwon Assistant Director 김은진 Kim Eunjin
Script 이경원 Lee Kyeongwon Cinematographer 박영빈 Park Youngbin
Editor 이경원 Lee Kyeongwon Music 이경원 Lee Kyeongwon, 조정민 Jo Jungmin
Sound 서희정 Seo Heijung Cast 조정민 Jo Jungmin, 주현영 Joo Hyunyoung

시놉시스 Synopsis

퇴물이 된 랩스타와 그의 오랜 팬이 우연히 월미도 대관람차에 함께 타게 된다.

A has-been rap star and one of his long-time fans accidentally ride the ferris wheel together at an amusement park.



감독 Director
이경원 Lee Kyeongwon

Contact
올드웨일 OLDWHALE
oldwhale@naver.com

15 28일(금) 10:00 소극장 | 28(Fri) 10:00 Cinema II
29일(토) 20:00 중극장 | 29(Sat) 20:00 Cinema I GV



스타렉스
Pick-up

Korea | 2019 | Fiction | 13'26"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노도현 Roh Dohyeon Producer 최병권 Choi Byungkwon
Script 노도현 Roh Dohyeon Cinematographer 홍다예 Hong Daye
Music 임민주 Lim Minju Sound 이지수 Lee Jisu
Cast 김해나 Kim Hena, 하시연 Ha Siyeon

시놉시스 Synopsis

현장 일이 서툰 제작부 추현은 스타렉스를 타고 배우를 픽업하러 가게 된다. 그러나 픽업장소에서 서로 착오하여 성매매 여성 희라가 추현의 스타렉스에 타고 만다.

Chuhyun, a newbie film crew member, drives a van to pick up an actress. But as a result of miscommunications by both parties, she ends up giving a ride to a prostitute, Heera.



감독 Director
노도현 Roh Dohyeon

Contact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눈치돌기
The Insect Man

Korea | 2019 | Fiction | 19'24" | DCP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현 Kim Hyun Producer 백용욱 Baek Yongwook
Script 김현 Kim Hyun Cinematographer 선종훈 Sun Jonghun
Editor 김현 Kim Hyun, 이민구 Lee Mingu Sound 김주현 Kim Juhyun
Cast 이민구 Lee Mingu, 김휘규 Kim Huigyu, 이태희 Lee Taehee, 김도윤 Kim Doyun

시놉시스 Synopsis

민철이 집에서 조별 과제를 하기로 한 현, 성구, 민철. 현은 눈치 없는 성구가 싫다.

Hyun doesn't like group project member Sunggu.



감독 Director
김현 Kim Hyun

Contact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조립
Assembly

Korea | 2019 | Fiction | 19'02"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신택수 Shin Tacksu Producer 김연지 Kim Yeonji
Script 신택수 Shin Tacksu Cinematographer 이재우 Lee Jaewoo
Editor 한지희 Han Jeehee Music 이한솔 Lee Hansol
Sound 김수현 Kim Soohyun, 한승희 Han Seunghee
Cast 강정민 Kang Jungmin, 강주리 Kang Joori

시놉시스 Synopsis

여름밤, 부부는 완수해야 할 과제가 있다.

On a hot summer night, a couple has a mission to finish.



감독 Director
신택수 Shin Tacksu

Contact
호우주의보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포세일
F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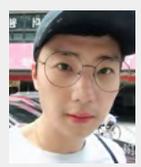
Korea | 2019 | Fiction | 12'06"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용섭 Lee Yongseop Producer 양영일 Yang Yeong-il
Script 이용섭 Lee Yongseop Cinematographer 유승만 Yu Seungman
Editor 문인대 Mun Indae Music 구자완 Koo Jawan Sound 이승철 Lee Seungcheol
Cast 김송일 Kim Song-il

시놉시스 Synopsis

유흥 사업의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홍석. 엄동설한 날씨 속에 거리 생활을 하게 된 홍석은 우연치 않게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Hongseok is chased by loan sharks because he failed in the prostitution business. Day by day, he sleeps in the open in biting weather. Accidentally, he finds a ₩500 coin in a vending machine. Hongseok uses the coin to buy warm coffee. When he leaves, he feels something strange.



감독 Director
이용섭 Lee Yongseop

Contact
퍼니콘 FUNNYCON
master@funnycon.tv

4 스파이시 걸스
Spicy Girls

15 29일(토) 10:00 소극장 | 29(Sat) 10:00 Cinema II
30일(일) 15:00 중극장 | 30(Sun) 15:00 Cinema I GV





대리시험
Proxy Exam

Korea | 2019 | Fiction | 17'0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나경 Kim Nakyung Producer 이승현 Lee Seunghyun
Script 김나경 Kim Nakyung Cinematographer 오희원 Oh Heewon
Editor 김현범 Kim Hyeonbeom Music 조현령 Jo Hyeonryeong
Sound 김윤경 Kim Yoonkyung Cast 신서희 Shin Seohee, 손영주 Son Yongjoo, 김예빈 Kim Yebin

시놉시스 Synopsis

탈북 2세 현주는 무국적자다. 신분이 없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평범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현주.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팬미팅조차 신청할 수가 없는 현주는 자신과 닮은 주희에게 대리시험을 쳐주는 조건으로 하루만 신분을 빌리기로 한다.

The daughter of a North Korean defector, Hyunjoo is stateless. Without an ID, she can't go to school nor do anything ordinary that a teenager would do. Being unable to even attend her favorite idol's fan meeting, Hyunjoo decides to borrow Joohee's identity in exchange for taking a proxy exam.



감독 Director
김나경 Kim Nakyung

Contact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여고생의 기묘한 자율학습
Bizarre Research of a High School Girl

Korea | 2019 | Fiction | 19'5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보원 Kim Bowon Producer 정한 Jeong Han
Script 김보원 Kim Bowon Cinematographer 조영천 Cho Youngchen
Editor 김보원 Kim Bowon Sound 양경원 Yang Kyungwon
Cast 박서윤 Park Seoyoon

시놉시스 Synopsis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알게 된 한 여고생.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묘한 자율학습을 시작한다.

A high school girl discovers the biological limits of a human. She takes on bizarre research to find the true meaning of life.



감독 Director
김보원 Kim Bowon

Contact
포스트핀 POST FIN
postfin@postfin.co.kr





주근깨
Freckles

Korea | 2019 | Fiction | 27'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지희 Kim Jihee Producer 진성문 Jin Seongmoon
Script 김지희 Kim Jihee Cinematographer 임정현 Yim Jeonghyun
Music 권현정 Kwon Hyunjung Sound 개화만발 IN BLOOM
Cast 권영은 Kwon Youngeun, 정수빈 Chung Subin

시놉시스 Synopsis

억지로 다이어트캠프에 끌려온 십대 영신. 룸메이트 주희와의 입맞춤 후 지겨웠던 캠프 생활이 요동친다.

Youngshin is locked up in a diet camp against her own will. After kissing her roommate, the boring days at the camp turns into a small turmoil.



감독 Director
김지희 Kim Jihee

Contact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찌르개
Pointer

Korea | 2019 | Fiction | 15'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임소라 Lim Sora Producer 박나현 Park Nahyun
Script 윤형철 Yoon Hyungchul Cinematographer 박지혜 Park Jihye
Editor 임소라 Lim Sora Music 박아름 Park Areum Sound 김태용 Kim Taeyong
Cast 문채윤 Moon Chaeyoon, 최현진 Choi Hyunjin

시놉시스 Synopsis

현정은 자신이 다녔던 화장실 리스트를 만들어 무언가를 찾아 다닌다.

Hyunjeong is searching for something with a list of the public toilets she has been to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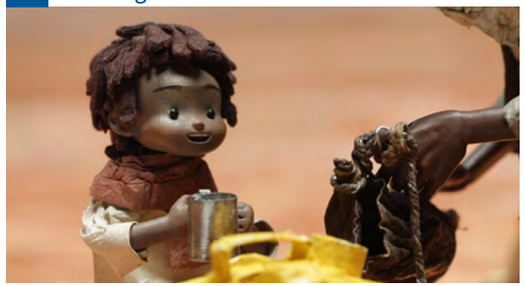


감독 Director
임소라 Lim Sora

Contact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5 상실의 시대 The Stages of Grief

15 28일(금) 17:30 소극장 | 28(Fri) 17:30 Cinema II
30일(일) 17:30 중극장 | 30(Sun) 17:30 Cinema I GV





스네일 맨
Snail Man

Korea | 2019 | Animation | 21'54"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박재범 Park Jaebeom Producer 홍승민 Hong Seungmin
Script 박재범 Park Jaebeom Cinematographer 정그림 Chung Geurim
Editor 박재범 Park Jaebeom Sound 닥터애비뉴 DR. AVENUE
Cast 강길우 Kang Gilwoo, 강진아 Kang Jin-ah

시놉시스 Synopsis

할아버지 롯이 손자 아람과 함께 아들의 유해를 찾아오기 위해 둥근 수레를 끌고 사막으로 길을 떠난다. 우물가에서 만난 검은 여인의 도움을 받은 롯은 아람을 마을에 두고 혼자 길을 떠나지만 아람은 롯을 쫓아간다. 교전 중인 마을에 도착한 롯이 죽은 아들의 주검을 수습하던 중에 또 다시 교전이 일어나고 아람은 아빠인 모압의 죽음을 목격한다. 절망한 롯과 아람 앞에 죽은 아들 모압이 꿈과 같이 나타나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한다. 롯과 아람은 모압을 나무 밑에 묻어 준다.

Heading toward a desert with his grandson named Aram, an old man named Lot is pushing a round barrow to collect his son's body. After getting some help from a black woman he met beside a well, he leaves Aram behind and continues the journey by himself.



감독 Director
박재범 Park Jaebeom

Contact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shinsk@kofic.or.kr

디어 엘리펀트
Dear Elephant

Korea | 2019 | Documentary | 24' | DCP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창민 Lee Changmin Producer 조민석 Jo Minseok
Script 이창민 Lee Changmin Cinematographer 임지수 Lim Jisoo
Editor 이창민 Lee Changmin Sound 홍대규 Hong Daegyu
Cast 이려 Mutitta Fletcher, 오현민 Oh Hyunmin

시놉시스 Synopsis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의뢰받은 나는 한국 최초의 태국 이주자인 영화감독 이경손의 흔적을 추적한다. 이경손의 딸 무티타 플레쳐(이려)와 서신을 주고받는 가운데 현재에 남은 그의 흔적을 재현한다. 잊힌 영화감독, 격변하는 시대의 난민인 이경손에 대한 기억을 영화적으로 되새겨 보는 것을 통해 역사적 기억과 사적 기억에 대해 질문한다.

Based on letters of the daughter of Lee Kyeongson, Muttita Fletcher (Lee Ryeo), we explore the life of a forgotten film director who lived as a refugee during a tragic period, attempting to answer questions about history and personal memories. Asked to produce a documentary film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ailand, I track the life of the first Korean to settle in Thailand, film director Lee Kyeongson.



감독 Director
이창민 Lee Changmin

Contact
이창민 Lee Changmin
filmanamnesis@gmail.com



령희
Alien

Korea | 2019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연제광 Yeon Jegwang Producer 연제광 Yeon Jegwang, 박우성 Park Woosung Script 연제광 Yeon Jegwang
Cinematographer 한상길 Han Sangkil Editor 박우성 Park Woosung, 연제광 Yeon Jegwang Sound 최지영 Choi Jiyoung Cast 이경화 Lee Kyunghwa, 한지원 Han Jiwon, 현봉식 Hyun Bongsik, 우상기 Woo Sangki

시놉시스 Synopsis

나와 내 룸메이트 령희는 불법체류자다. 어제, 령희가 단속반의 단속에 쫓기다 사고로 사망했다. 회사는 추모보다는 뒷수습 하기에만 바쁘다. 나는 회사가 숨긴 령희를 찾아 나만의 장례식을 치러줄 것이다.

Reonghee and I are illegal aliens. Yesterday, Reonghee died while running away from the immigration office agents. The company we worked for is only concerned about covering up the mess. I'm going to find Reonghee, whose body the company has hidden somewhere, and give her the funeral that she deserves.



감독 Director
연제광 Yeon Jegwang

Contact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K'ARTS MEDIA CONTENTS CENTER
knuadis@gmail.com

BISFF 단편영화 제작지원작 BISFF Short Film Project

15 27일(목) 19:00 중극장 | 27(Thu) 19:00 Cinema I
28일(금) 17:30 소극장 | 28(Fri) 17:30 Cinema II GV
30일(일) 17:30 중극장 | 30(Sun) 17:30 Cinema I



사원증
ID Card

* 이 상영작은 비경쟁으로 관객상 투표에서 제외 됩니다.
* This film is out-of-competition, and will be excluded from the audience award.

Korea | 2020 | Fiction | 18'57"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윤혜성 Yoon Haesung Producer 원은선 Won Eunsun
Script 윤혜성 Yoon Haesung Cinematographer 윤석원 Yun Seokwon
Editor 천지현 Cheon Jihyeon Music 이수빈 Lee Soobin
Sound 김영석 Kim Yeongseok Cast 장유상 Jang Yoosang, 오민애 Oh Minae, 권다함 Kwon Daham, 서석규 Seo Seokkyu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동구는 친구이자 같은 회사 동료인 지철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상사의 강요에 의해 지철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원증을 찾아와야 한다. 지철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회사는 끝까지 동구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간다. 이 작품은 직장에서 개인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차분히 관조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개인적 우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고뇌하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개인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비정하고 씁쓸한 단면을 재현한다.(이상훈)

When Dong-gu's friend and co-worker Jichul suddenly dies, Dong-gu is forced by his boss to find Jichul's employee ID card. The company that may have driven Jichul to death is now driving Dong-gu to another extreme situation. The film is about the existential crisis that an individual has to go through at work. Calmly contemplating today's Korea, it shows how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people disappear under the capitalistic system. The film delicately captures the deep agony that every young person who has just started a career suffers between personal friendship and social status a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It also renders the heartless, bitter reality of modern society where solidarity collapses and human values are lost within the system.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윤혜성 Yoon Haesung

Contact
윤혜성 Yoon Haesung
hazellover@naver.com



타지에 머물면서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시타딘 해운대 부산에서 내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껴보십시오.
Because life is about living.

citadines
APART'HOTEL

시타딘 해운대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20



Enjoy Ascott's Best Rate Guarantee | www.citadines.com | +82 51 662 8888

Citadines Haeundae Busan is managed by The Ascott Limited, a member of CapitaLand. It is one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serviced residence owner-operators with more than 300 properties in over 100 cities across the Americas, Asia Pacific, Europe and the Middle East. It operates three award-winning brands *Ascott*, *Citadines* and *Somerset*, along with *The Crest Collection* and *lyf*.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오퍼레이션 키노

오퍼레이션 키노가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키노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부산 중구청이 지역의 영화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자에게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오퍼레이션 키노 9기'에는 총 6팀을 선정했으며 각 팀에게 12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팀은 지난 7주간, 15분 내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완성했고 그 결과를 선보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이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그간 영화제의 특별상영으로 운영되어 온 오퍼레이션 키노를 경쟁 부문으로 옮겨 상영합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더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게스트로 참여하는 국내외 영화감독들이 함께 선정하는 아고라상을 신설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키노 참가자들에게도 선배들의 격려와 응원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퍼레이션 키노 9기 제작지원작 선정의 변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오퍼레이션 키노 9기'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지원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심사위원 3인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작품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 제작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습니다.

2012년부터 특별 상영으로 진행된 '오퍼레이션 키노'가 경쟁 부문 상영으로 옮긴 원년인 올해의 제작지원작들은 예년과 비교하면 기획서의 완성도, 준비과정의 성실함은 물론 실험적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 도출은 물론 촬영 가능성과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다큐멘터리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재 부분 또한 인간 내면, 가족, 역사적 기록, 환경문제 등 지원자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흥미 위주의 소재만으로 작품을 기획하느라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주제에 대한 고민을 놓친 작품들이나 기획서의 완성도 면에서 지원자들 간의 큰 편차를 보인 작품들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끝으로 최종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만나게 될 완성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퍼레이션 키노 9기 예심 심사위원

서영조 시나리오 작가
김동백 다큐멘터리 제작자
김경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Operation Kino

This year marks 9 years of Operation Kino. It is a project funded by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nd the city of Jung-gu, Busan, to support production of short documentary films by film majors. In 2020, "The 9th Operation Kino" has selected 6 teams and provided 1.2 million won to each team. In the last 7 weeks, each team has created a 15-minute documentary to be presented during the festival.

Several changes have been made to this year's film festival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is project. First, the Operation Kino films will be moved from special screening to the competition section. This will allow for more the audience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se films. We have also created the Agora Award, which will be selected by guest directors from around the world. We hope that this will give an opportunity for Operation Kino participants to appreciate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their predecessors.

Selection criteria for 9th Operation Kino

We want to begin by expressing our thanks to each participant of "The 9th Operation Kino" at the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Our 3 juries made their evaluations in blind format, with a focus on each film's intention, issue awareness, and production possibility.

Since 2012, "Operation Kino" was held as a special screening. As it is moved to competition screening this year, there was a marked increase in films with a higher level of execution, integrity in preparation, and experimental design. They also raised the bar with their topic, filming possibility, and specific methods of expression. Their serious interest in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documentary was also clearly evident. In terms of topics, it was apparent that the participants have diverse interests, spanning from inner human conflict to family, historical record, and environment.

Other films that did not quite meet the bar included those that put too much emphasis on entertainment rather than focusing on specific planning and on exploration of themes, as well as those that lagged too far behind in terms of execution. We applaud the participants who made the selection and look forward to see the finished films at the 37th BISFF. Thank you.

The Preselection Jury of the 9th Operation Kino

Seo Youngjo Screenwriter
Edric Kim Documentary Producer
Yeona Kim Programmer of BISFF

15 28일(금) 15:30 시네마테크 | 28(Fri) 15:30 Cinematheque GV
29일(토) 12:30 소극장 | 29(Sat) 12:30 Cinema II GV
30일(일) 17:3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30(Sun) 17:30 BNK BUSAN BANK Art Cinema



그곳에 가면
If You Go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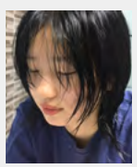
Korea | 2020 | Documentary, Experimental | 15′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주민경 Joo Mingyung Producer 곽가림 Gwak Garim
Script 주민경 Joo Mingyung Cinematographer 전유빈 Jeon Yupin
Editor 주민경 Joo Mingyung Music 주민경 Joo Mingyung
Sound 구태완 Gu Taewan Cast 해현새 Hae Hyunsae, 김무궁 Kim Moogung, 김수나 Kim Suna

시놉시스 Synopsis

우울증 환자로 정의되는 세 사람. 그들 개인의 얼굴을 가리는 우울증이라는 가면과 가면 뒤를 우리는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을까.

Three people are defined as patients with depression. Their faces are covered with masks called depression. If you explore, will you get to see what is behind the mask?



감독 Director
주민경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Joo Mingyung / Pusan National Univ. Department of Art Culture and Image

Contact
주민경 Joo Mingyung
f999x7@gmail.com



아브락사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Abraxas

Korea | 2020 | Documentary | 15′ | HD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최연주 Choi Yeonju Producer 최연주 Choi Yeonju
Script 김혜원 Kim Hyewon, 최민영 Choi Minyoung, 최연주 Choi Yeonju, 최효지 Choi Hyoji Cinematographer 김혜원 Kim Hyewon, 최민영 Choi Minyoung, 최연주 Choi Yeonju, 최효지 Choi Hyoji Editor 김혜원 Kim Hyewon, 최민영 Choi Minyoung, 최연주 Choi Yeonju, 최효지 Choi Hyoji
Music 김혜원 Kim Hyewon, 최민영 Choi Minyoung, 최연주 Choi Yeonju, 최효지 Choi Hyoji Sound 김혜원 Kim Hyewon, 최민영 Choi Minyoung, 최연주 Choi Yeonju, 최효지 Choi Hyoji Cast 권태연 Kwon Taeyeon, 하재훈 Ha Jaehoon

시놉시스 Syn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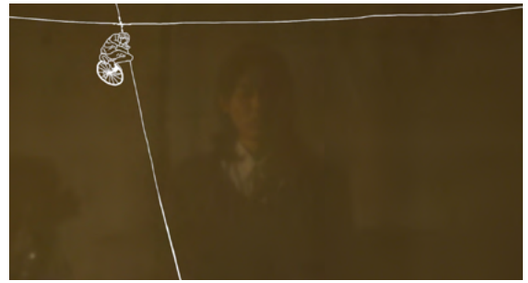
이 영화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드래그 퀸인 골든사워 씨(32세)와 문디 가르시나 씨(29세)의 이야기를 다룬다. 수많은 편견과 잣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억압적인 세계를 깨부수고, 또 다른 나를 찾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담아내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 영화로 하여금 본인의 세계를 깰 수 있는 용기를 줌으로써 새로운 '드랙 아티스트'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세상의 기준을 의식할 틈도 없이 요구 받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진 용기는 더욱 강한 힘을 갖는다.

This is a story of two local drag queen artists in Busan—Golden Sour (32) and MoonD Garcina (29). Despite all the prejudice and criticism, they strive to overcome every kind of suppression and find their true self. The two challenge us to step outside of our comfort zone. This can encourage some potential "drag artist" to bravely come out. Their bold determination resonates loudly in today's world where social norms keep trying to oppress us without our knowing it.



감독 Director
최연주 /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Choi Yeonju / Dong-A Univ.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Contact
최연주 Choi Yeonju
joo04182@naver.com



존
The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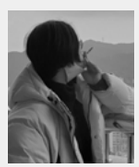
Korea | 2020 | Documentary | 15′ | HD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황지혜 Hwang Jihye Producer 박선영 Park Sunyoung, 박현경 Park Hyunkyoung Script 정윤지 Jung Younjee, 황지혜 Hwang Jihye
Cinematographer 황지혜 Hwang Jihye Editor 최건희 Choi Gunnhee
Sound 강준수 Kang Junsu Cast 김강수 Kim Kangsue, 김희재 Kim Heejae, 박수혜 Park Suhye, 안유진 Ahn Yujin, 이수빈 Lee Subin, 임유경 Lim Yukyoung

시놉시스 Synopsis

여기 가상의 공간, 존이 있다. 존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Here is a virtual space. A zone. People come to the zone and start talking about their solitude and loneliness.



감독 Director
황지혜 /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Hwang Jihye / Dong-Eui Univ. Department of Film Studies

Contact
황지혜 Hwang Jihye
penthouse_cloud@naver.com



집에 간 이후
Since I Went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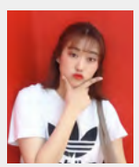
Korea | 2020 | Documentary | 15′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조우연 Jo Wooyeon Producer 전석향 Jun Seokhyang
Script 조우연 Jo Wooyeon Cinematographer 조우연 Jo Wooyeon
Editor 조우연 Jo Wooyeon Cast 조병철 Jo Byeongcheol, 류영애 Ryu Yeongae, 조성빈 Jo Seongbin

시놉시스 Synopsis

동생이 태어난 후 십여 년간, 나는 동생이 어떠한 장애를 앓고 있는지 지레짐작만 할 뿐이었다.

For a decade since my brother was born, I have just assumed the nature of his disability.



감독 Director
조우연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Jo Wooyeon / Kyungsung Univ. School of Theatre & Film Art, Department of Film

Contact
조우연 Jo Wooyeon
utyou@naver.com

15 28일(금) 15:30 시네마테크 | 28(Fri) 15:30 Cinematheque GV
29일(토) 12:30 소극장 | 29(Sat) 12:30 Cinema II GV
30일(일) 17:3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30(Sun) 17:30 BNK BUSAN BANK Art Cinema



청년 고호석
Young Ko Ho-seok

Korea | 2020 | Documentary | 15'30"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준혁 Kim Junhyeok Producer 김수아 Kim Sua
Cinematographer 정다원 Jeong Dawon Music 최주영 Choi Jooyoung

시놉시스 Synopsis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던 1970-1980년대, 당시 한 청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시간이 흘러 청년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2019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What does it mean to live as a young man? This film follows the path of a man who went through historically significant times for Korea's democracy movement in the 1970s and 80s. As time passed, he became an adult. However, he kept the spirit of his youth. By the time he passed away in 2019, he was still young at heart. What may be his secret?



감독 Director
김준혁 /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Kim Junhyeok / Pusan National Univ.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Contact
김준혁 Kim Junhyeok
rlawnsgur504@naver.com



추레라맨
Where We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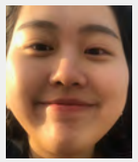
Korea | 2020 | Documentary | 15'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전소영 Jeon Soyeong Producer 전소영 Jeon Soyeong,
황윤정 Hwang Yunjeong, 이수인 Lee Suin
Script 전소영 Jeon Soyeong, 황윤정 Hwang Yunjeong
Cinematographer 박채은 Park Chaeeun, 송정은 Song Jeongeun,
전소영 Jeon Soyeong Editor 전소영 Jeon Soyeong, 황윤정 Hwang Yunjeong
Sound 전소영 Jeon Soyeong Cast 전병열 Jeon Byeongyeol, 전소영 Jeon Soyeong

시놉시스 Synopsis

커다란 짐을 싣고 달리는 거대한 화물차, 그 안에 담겨있는 아빠의 인생.

A huge, loaded truck hits the road. My father's life is in that truck.



감독 Director
전소영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Jeon Soyeong / Pusan National Univ. Department of Art Culture and Image

Contact
전소영 Jeon Soyeong
deyimanzou@gmail.com

BELGIUM
Uniquely Phenomenal
https://diplomatie.belgium.be/en/south_korea
Facebook: BEinSeoul
Instagram: BelgiuminKorea

주빈국

GUEST COUNTRY

벨기에 파노라마
Belgium Panorama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벨기에 모자이크
Belgium Mosaic

주빈국 Guest Country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빈국'은 매년 한 국가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매 시기의 중요한 주제와 더불어 한 국가의 단편영화들이 장르별로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관객들은 '주빈국' 단편영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역사, 사회, 문화, 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영화의 탄생지 프랑스를 시작으로 중국,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를 거쳐 금년에는 서부 유럽에 위치한 강소국 벨기에가 소개됩니다.

Each year, the "Guest Country" sec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ocuses on films from one particular country. Short films of various genres from the guest country are introduced to audiences at BISFF along with important timely issues. The section offers a chance to explore diverse aspects of the guest country's history, society, culture, and art through short films. Starting with France, the birthplace of cinema, this section has travelled to China, Spain, Sweden, Austria, Canada, New Zealand, and Switzerland. This year, we bring short films from Belgium, a small but strong country in Western Europe.

주빈국 벨기에 Guest Country Belgium

2020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빈국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는 이 작은 국가에게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운명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유럽 국가 간 협상의 장소이자 조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벨기에서는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 플랑드르어와 네덜란드문화 그리고 독일어와 독일문화 등 서부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독특한 문화·언어적 다양성은 역사, 특히 국가 건립의 과정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대서양에 면한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비옥한 국토와 지리적 장점은 오랫동안 많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게 되는 단점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외부의 간섭을 극복하고 1830년에 이르러서는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후 벨기에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운영한 어두운 역사를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굴곡은 현재 벨기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는 넓은 스펙트럼, 문화·언어적 다양성의 중요 요인이 됩니다.

The Guest Country of the 2020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Belgium. Geographically, Belgium shares its borders with several major European countrie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s well as the UK across the sea. Due to its geopolitical position, this small country was destined to suffer years of hardship. However, despite many difficulties, the people of Belgium proactively carved out their own path and finally established their country as the main venue for dialogues and coordination among European countries by turning their weaknesses into strengths.

Belgium is home to various cultural elements of Western Europe, including the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he Flemish language, Dutch culture, and the German language and culture. This uniqu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has arisen mainly from history - especially from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Stretched across a fertile land bordering the Atlantic Ocean, Belgium's geographical advantage long served as a drawback, attracting invasions by foreign powers. However, the Belgians overcame such intrusions with indomitable willpower and gained independence in 1830. Throughout the late 19th and 20th centuries, Belgium consolidated its national foundation and later controlled colonies in Africa - a dark period in its history. Such historical vicissitudes serve as the basis for its wide demographic spectrum, as well as the linguistic and culture diversity of Belgium.

프랑스어 혹은 플랑드르어 사용이라는 언어적 특성, 영화 강국인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문화, 특히 영화 분야에서 벨기에는 고유한 영화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역사적인 첫 번째 영화 상영이 있은 후 2개월 이후에 영화의 상영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1920-30년대에 형성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전통은 이후 벨기에 영화의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영화는 발전을 거듭했고 민간 영역의 자체 제작뿐 아니라 공적 지원을 통해서 프랑스어권과 플랑드어권에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었습니다.

In addition to its linguistic characteristics (using both French and Flemish) and its geographical ones (bordering France, a film powerhouse), Belgium boasts a unique film ecosystem. Only two months after the historic first film screening in Paris, film screenings took place in Belgium. The traditions of documentary filmmaking, established in the 1920s and 30s, went on to become an important feature of Belgian cinema.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advancement of Belgian cinema meant many films were produced with public support in both French and Flemish, not to mention privately funded ones.

1970년대 플랑드르어권에서는 벨기에의 모던 시네마를 대표하는 앙드레 델보를 시작으로 휴고 클라우스, 해리 퀴멜, 프랑스어권에서는 샹탈 아커만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1980년대에도 마크 디든, 마리옹 한셀, 장 자크 앙드리앙, 패트릭 반 안트베르펜, 제라르 코리비오 등 프랑스어권과 플랑드어권 양쪽에서 다양한 감독들이 계속해서 양질의 작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벨기에 영화가 국제적으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되는 시기로, 자코 반 도마엘, 브누와 보엘부르드 등이 세계의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특히 다르덴 형제는 1999년 〈로제타〉와 2005년 〈더 차일드〉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벨기에 대표 감독이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극영화는 물론이고 다큐멘터리 영화, 실험 영화, 에세이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제작되는 곳입니다. 단편영화 분야에서도 장르별로 많은 작품이 제작되고 있으며 국제 영화제에서의 수상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elgium's notable directors include André Delvaux, the founder of modern Belgian cinema, Hugo Claus and Harry Kümel in the Flemish-language sector, and Chantal Akerman in the French-language sector. Directors such as Marc Didden, Marion Hänsel, Jean-Jacques Andrien, Patrick Van Antwerpen, and Gérard Corbiau continued to turn out outstanding works in the 1980s. Belgian cinema began to garner further international recognition during the 1990s, with directors such as Jaco Van Dormael and Benoît Poelvoorde receiving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worldwide. In particular, the Dardenne brothers emerged as the representatives of Belgian cinema, winning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n 1999 and 2005 for *Rosetta* and *The Child*, respectively. Belgium turns out films of diverse genres including fiction, documentary, experimental, essay, and animation. The same goes for Belgian short films, many of which have swept prizes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금년 '주빈국'은 최근 벨기에 단편영화의 경향을 볼 수 있는 '벨기에 파노라마', 벨기에를 대표하는 시네아스트인 샹탈 아커만의 단편영화들을 볼 수 있는 '벨기에 시네아스트',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구성된 벨기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벨기에 모자이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은 '주빈국'의 다양한 영화를 통해 벨기에라는 개별 국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무엇보다 벨기에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year's "Guest Country" section consists of three programs. "Belgium Panorama" presents the latest trends in Belgian short films; "Belgium Cineaste" offers a chance to watch short films by Chantal Akerman, one of the most celebrated cineastes of Belgium; and "Belgium Mosaic" show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f Belgium. Our visitors will be able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Belgian society and culture and, above all, of its people.

이상훈

Lee Sanghoon

벨기에 파노라마 Belgium Panorama

'벨기에 파노라마'에서는 최근 벨기에 단편영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프랑스어권 영화와 플랑드르어권 영화라는 두 개의 복합적인 영화적 근간을 갖고 있는 벨기에는 다양한 주제와 높은 수준의 연출 능력을 가진 영화가 매년 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벨기에 단편영화의 높은 수준과 다양성을 '벨기에 파노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lgium Panorama" presents the latest trends in Belgian short films. With such a complex cinematic foundation encompassing both French-speaking and Flemish-speaking worlds, Belgium turns out highly accomplished works on various themes every year. "Belgium Panorama" will offer a chance to witness the high quality and diversity of Belgian short films.

이상훈 Lee Sanghoon

15 30일(일) 15:00 소극장 | 30(Sun) 15:00 Cinema II
31일(월) 10:00 소극장 | 31(Mon) 10:00 Cinema II



휴가
Hol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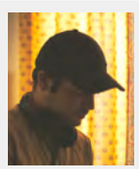
Belgium | 2019 | Fiction | 23'28"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ichiel Dhont Producer Xavier Rombaut
Script Michiel Dhont Cinematographer Esmoreit Lutters
Editor David Verdurme Music Senjan Jansen Sound Senjan Jansen
Cast Tijmen Govaerts, Circé Lethem, Jan Hammenecker, Sofie Decleir, Ina Geert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내키지 않는 주말여행에 참여한 모리스는 친척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기만 하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모리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 영화는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재현한 작품으로 단순하지만 적절하게 사용된 기술적 요소가 서사의 뉘앙스를 증폭시킨다. (이상훈)

Maurice unwillingly joins a weekend trip and experiences awkward encounters with his relatives. While those around him enjoy spending time together, Maurice grows increasingly restless and dissatisfied. This film successfully captures and embodies the characters' complex emotions, and its simple yet appropriate use of technical elements augments the nuances of the narrative.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미치엘 돈트 Michiel Dhont

Contact
DALTON DISTRIBUTION
info@fonk.be



감금
Loc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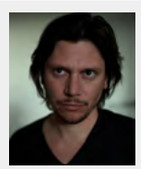
Belgium | 2017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Koen Van Sande Producer David Vermander Script Koen Van Sande
Cinematographer Dries Delputte Editor Philippe Ravoet
Music Walter Hus Sound Vital Tilborghs
Cast Lubna Azabal, Tibo Vandenborre, Hichem Yacoub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 영화는 유럽에서 증대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로 인한 파국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숨겨온 외부인에 대한 배척과 거부가 우연한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정치적인 주제의식을 장르적으로 형상화한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실제 사건인 2016년 3월의 브뤼셀 국제공항 테러를 모티브로 삼았다. (이상훈)

Inspired by the real-life terrorist attacks at 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 in March 2016, this film shows a downfall caused by the growing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of strangers across Europe. A chance accident symbolically reveals hidden sentiments of rejection and ostracism towards outsiders. The director impresses us with his ability to give shape to political themes in the given genre.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쿤 반 산데 Koen Van Sande

Contact
Koen Van Sande
koen@cartouche.tv

15 30일(일) 15:00 소극장 | 30(Sun) 15:00 Cinema II
31일(월) 10:00 소극장 | 31(Mon) 10:00 Cinema II



나의 행성
My Planet

Belgium | 2018 | Fiction | 24'1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Valéry Carnoy Producer INSAS, ATELIER DE REALISATION
Script Valéry Carnoy Cinematographer Hugo Brilmaker
Editor Julie Robert Sound Pierre-Nicolas Blandin
Cast Jean-Michel Balthazar, Stéphanie Lowette, Wim Willaert, Ninon Perez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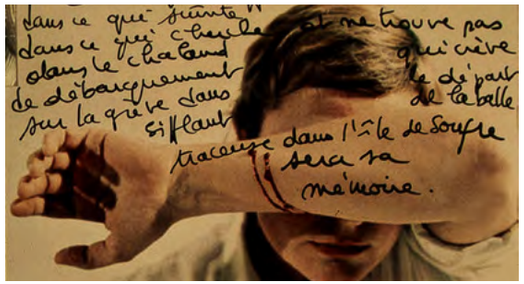
빵집을 운영하는 50대의 앙리는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아내가 남편과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앙리는 자신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사진작가 아니타와 만나게 된다. 진정한 육체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으로 2019 브뤼셀단편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이다. (이상훈)

Henri is a man in his fifties who runs a bakery and whose marriage has hit a rough patch. His wife is more caught up in grooming herself than improving her relationship with him. Then, one day, a photographer named Anita asks Henri to pose for her. The film poses questions about the true beauty of the human body. Winner of the Audience Award at the 2019 Brussels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발레리 카르노이 Valéry Carnoy

Contact
INSAS
info@insas.be



황금 성인전
The Golden Legend

Belgium | 2015 | Documentary, Fiction | 2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Olivier Smolders Producer Olivier Smolders Script Olivier Smolders
Editor Olivier Smolders Music Manuel Smolders Cast Philippe Grand'Henry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정신병동에 수감된 환자가 자신의 관념을 지배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으로 가득 찬 기록물을 관객에게 소개한다. 그 기록은 저주받은 음악가, 암살자, 놀이에 빠진 괴물, 편집광적인 혁명가, 벨에포크 시대의 예술가, 자신을 포기한 은둔자들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관객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신화와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로 이루어진 기억의 창고를 목도하면서 진실과 허구 사이의 바다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상훈)

A patient detained in a psychiatric institution presents a gallery of the great names in history who still haunt his mind. It's densely packed with cursed musicians, assassins, fairground freaks, paranoiac revolutionaries, artists of the Belle Epoque, and suicidal anchorites. As we witness the storehouse of memories made up of countless images of human psychology and myths, we find ourselves lost in the sea between truth and fiction.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올리비에 스몰더스 Olivier Smolders

Contact
LE SCARABEE ASBL
osmolders@gmail.com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벨기에는 영화사 초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극영화를 비롯하여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제작을 통해 독립적인 영화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중과 밀접한 상업영화 그리고 예술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가진 벨기에 영화는 산업과 예술에서의 균형감은 물론 수많은 거장 감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예로, 앙드레 델보, 다르덴 형제 등 국제적 명성을 가진 많은 감독들이 있으며 특히 세계 영화사에 큰 영향을 미친 샹탈 아커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샹탈 아커만은 195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폴란드계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 뤽 고다르의 〈미치광이 피에로〉를 본 후 영화 제작에 뜻을 두기 시작했고, 이후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를 만들며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영화의 전통적 관습을 전복하였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화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녀는 미술가가 작품의 대상을 다루는 것처럼 카메라 앞의 이미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세계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나, 너, 그, 그녀〉와 〈잔느 딜망〉 등의 위대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동시대, 그리고 후대의 창작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화 예술의 선구자이면서 독창적 시선을 가진 예술가였던 그녀는 2015년 마지막 연출작인 〈노 홈 무비〉를 만든 후 65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벨기에 시네아스트' 샹탈 아커만 특별전에서는 4편이 상영됩니다. 1960-1980년대에 제작된 이 4편의 영화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반란', '페미니즘', '공간' 그리고 '몸' 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연출작품인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는 향후 그녀의 영화 세계를 지배할 주제 의식과 고유한 형식들이 발현됩니다. 두 번째 작품인 〈방〉은 그녀가 뉴욕 체류 기간에 만든 작품으로 원 씬 원 숏, 360도 회전 등 형식적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인 〈르 15/8〉은 프랑스를 찾은 한 핀란드인 여성이 텅 빈 파리의 아파트에서 외부인, 방문자로서의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작품인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는 여성 첼로 연주자를 촬영하면서 프레임 내부에서의 분리된 공간, 이미지와 사운드의 기묘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상훈

From the early days in film history to the present, Belgium has secured its unique cinema ecosystem by producing various fiction, documentary, and animation films in different genr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Belgian cinema is its successful balance of industry and art, as seen in its remarkable commercial and arthouse films. Belgium is known as a home for world-renowned masters such as André Delvaux and the Dardenne brothers. In particular, Chantal Akerman, one of cinema's most influential filmmakers, is from this country.

Chantal Akerman was born in Brussels in 1950 to a Polish-Jewish family. After watching Jean-Luc Godard's *Pierrot le fou*, she made up her mind to become a filmmaker and made her first short film, *Blow Up My Town* in 1968. Akerman attempted to subvert cinematic conventions and pioneered an undiscovered field of cinema. As a painter carefully observes an object, she thoroughly composed her images with the camera. Her films such as *I, You, He, She* and *Jeanne Dielman* have left significant marks in film history, becoming a source of inspiration and courage for other filmmakers. Akerman, a trailblazer of film arts and an artist with original perspectives, made her last film *No Home Movie* and died in Paris at the age of 65, in 2015.

"Belgium Cineaste" presents Akerman's four short films produced from 1960s to 1980s. Some keywords for those films include revolt, feminism, space, and body. Her first short film, *Blow Up My Town*, reveals her unique awareness and style, which can also be found in her subsequent films. Her next film, *The Room*, was made during her stay in New York and boasts her stylistic experiments, such as one-scene-one-shot and 360-degree pan. *August 15* is the story of a Finnish woman who tells of her experience as an outsider and visitor to France in an empty Paris apartment. The last film,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highlights a female cellist and reveals a bizarre link between the divided space, image, and sound.

Lee Sanghoon

15 28일(금) 18:00 시네마테크 | 28(Fri) 18:00 Cinematheque
30일(일) 12:30 중극장 | 30(Sun) 12:30 Cinema I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
Blow Up My Town

Belgium | 1968 | Fiction | 12'59" | DCP | B&W | No Dialogue

Director Chantal Akerman Script Chantal Akerman
Cinematographer René Fruchter Editor Geneviève Luciani
Sound PATRICE Cast Chantal Akerma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 영화는 '여자가 자살을 한다.'라는 단순하면서 강력한 서사를 갖고 있다. 젊은 여자의 고통, 불안, 낙담 그리고 절망이 단어와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인도하는 비극적 음의 심포니의 형태를 갖는다. 동시에 이 영화는 비극과 희극이 중첩되어 관객에게 불안과 유머를 동시에 선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영화는 비극이며 절망은 집과 건물 그리고 도시를 폭파한다. 샹탈 아커만이 19세 때 만든 영화로 유일한 등장인물 역시 그녀다. 샹탈 아커만은 "이후 내가 만든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시적 에세이 영화, 나아가 비디오 설치 등이 이미 이 작품 안에 존재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

This film has a simple yet powerful storyline: "A woman commits suicide." The pain, anxiety, dejection, and despair of a young woman take the form of a tragic symphony of sounds guided by the humming of a song, rather than words and sentences. At the same time, the superposition of tragedy and comedy presents us with both disquietude and humor. However, above all, this is a tragic story, where the despair unleashed by the woman blows up her home, building, and town. Chantal Akerman's first film, produced at age 19, features one character: herself. The director later claimed that the other feature films, documentaries, poetic essay films, as well as video installations, that she went on to make already existed within this film.
(Lee Sanghoon)



방
The Room

Belgium | 1972 | Documentary | 11'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Chantal Akerman Producer PARADISE FILMS
Script Chantal Akerman Cinematographer Babette Mangolte
Editor Geneviève Luciani Cast Chantal Akerma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카메라가 작은 아파트의 부엌과 거실의 공간을 채운 가구와 잡동사니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기 위해 단순하지만 명백하게 움직인다. 360도로 회전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형식적 실험의 형태를 띠면서 삶의 연속성을 포착한다. 식탁 위 과일과 같은 가시적인 사물로부터 외로움과 고독과 같은 비가시적이면서 더 명백한 것들이 마치 만화경처럼 관객의 눈앞에 흘러간다. 영화 속 부동의 사물과 공간 속 움직이는 유일한 것은 시선의 대상인 배우이자 시선의 주체이자 감독인 샹탈 아커만뿐이다. 샹탈 아커만의 뉴욕 체류 기간 중에 첫 번째로 연출한 작품이다. "난 숨을 쉬고 있지만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다. 그때는 〈호텔 몬터레이〉의 촬영을 끝낸 다음 날이었다." (이상훈)

The camera moves simply yet clearly inside a small apartment cluttered with furniture and accoutrements to show a woman lying on a bed. The 360-degree pan of the camera captures the continuity of life in a simple yet bold formal experiment. From visible objects such as fruits on the table to non-visible yet more obvious things such as loneliness and solitude, images float before our eyes like a kaleidoscope. In this static space, the only thing that moves is the director herself, who is both the protagonist of the film and its main object . This is the first of Akerman's works produced during her stay in New York. "I can breathe but stay in bed. It was done the day after I finished *Hotel Monterey*."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샹탈 아커만 Chantal Akerman

Contact CINEMATHEQUE ROYALE / access@cinematek.be

샹탈 아커만은 1950년 6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했다. 1968년 자신의 첫 단편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를 만들었으며 이후 뉴욕으로 옮겨 미국의 실험영화에 눈을 뜬다. 뉴욕 체류 기간에 만든 작품이 〈방〉과 〈호텔 몬터레이〉이다. 이후 그녀는 평생 거처를 파리로 옮겼다. 델핀 세리그가 주연을 맡은 1975년작 〈잔느 딜망〉은 그녀에게 세계적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아커만이 연출한 다수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상영되었다. 아커만은 영화연출을 넘어 아티스트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여러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Chantal Akerman was born on June 6, 1950, in Brussels. In 1968, she directed her first film, *Blow Up My Town*. She then moved to New York, where she discovered American experimental cinema. She filmed *The Room* and *Hotel Monterey* there. She then moved to Paris where she lived until the end of her life. *Jeanne Dielman* was shot in 1975 with Delphine Seyrig and brought her worldwide recognition, and was followed by numerous fiction films and also documentaries broadcas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her films, Chantal Akerman has produced a number of installations, thus pursuing specific research on her own themes.



르 15/8
August 15

Belgium | 1973 | Fiction | 42' | DCP | B&W | English Dialogue

Director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Producer Chantal Akerman
Script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Cinematographer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Editor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Cast Chris Myllykosk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여름날의 파리. 햇빛이 화창한 날인 8월 15일의 한 아파트에서 젊은 여인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우리 앞에 그녀가 겪은 일상과 소소한 사건들이 긴 호흡으로 단절 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사소함이라는 외피를 갖는 독백의 심연에는 감춰진 분노가 출렁거린다. 고정된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 몸 그리고 동작을 길게 포착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 내부의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빛과 어두움의 시선이 그녀의 초상화를 완성한다. 샹탈 아커만과 사미 질링거바움의 공동 연출 작품으로 실제로 파리를 방문한 핀란드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다. 그녀의 대표작인 〈잔느 딜망〉과 같은 해에 제작되었다. (이상훈)

Paris in the summer. On August 15th, a bright sunny day, a young woman shares her own story in her apartment. The daily routine and trivial events of her life seamlessly unfold before us. However, anger simmers in the depth of her monologue, which retains the facade of triviality. The fixed camera takes a long look at her face, body, and movements. In the end, her portrait is completed by the mix of light and darkness filling the space inside her apartment. Co-directed by Chantal Akerman and Samy Szlingerbaum and produced in the same year as Akerman's masterpiece *Jeanne Dielman*, this film is the story of a Finnish woman on a visit to Paris.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샹탈 아커만, 사미 질링거바움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Contact
CINEMATHEQUE ROYALE
access@cinematek.be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France | 1989 | Experimental | 12' | Beta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Chantal Akerman Producer MALLIA FILMS Composer Henri Dutilleux
Cinematographer Raymond Fromont Editor Rose Legrand
Music Henri Dutilleux Sound Nicolas Joly Cast Sonia Wieder Atherto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며 아파트 내부 좌측에 있는 침대와 의자를 비춘다. 이윽고 첼로 연주자 소냐 비에더 아테르통이 등장하여 프랑스 현대 음악가 앙리 뒤티에의 곡을 연주한다. 창 너머 보이는 두 개의 아파트 창문에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며 일상을 반복한다. 영화는 동일한 공간을 여러 크기로 나누는 촬영, 전후로 움직이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같은 명확한 기술적 시도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의 배치를 전복하며 이를 통해 풍경과 장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제시한다. (이상훈)

Light and darkness intersect to highlight a bed and a chair on the left side of the room. Cellist Sonia Wieder Atherton enters and performs a contemporary piece composed by French composer, Henri Dutilleux. Two windows in the back reveal how people repeat their everyday lives. The film shows Akerman's technical experiments such as splitting a space in different sizes and front and rear camera movements. By doing so, Akerman subverts the alignment of image and video and presents various scenes and perspectives on landscape.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샹탈 아커만 Chantal Akerman

Contact
MALLIA FILMS
mallia@malliafilms.com

벨기에 모자이크 Belgium Mosaic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네덜란드어와 네덜란드 문화, 독일어와 독일 문화 그리고 고유한 벨기에 문화 등 서부 유럽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벨기에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은 역사에서 기인합니다. 비옥한 국토와 교역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은 벨기에에 대한 외부 세력의 침략을 야기하는 단점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식민지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후 여러 번의 부침을 겪은 후 1830년에는 마침내 독립을 쟁취합니다. 19-20세기를 거치면서 벨기에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소국으로 변모합니다. 한편 벨기에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지면서,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가 식민지를 운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역사의 굴곡이 현재 벨기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간이 됩니다.

'벨기에 모자이크'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벨기에 사람들의 다양성과 관련된 4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이방인의 침입을 바라보는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 희망과 디스토피아가 혼재된 벨기에의 옛 식민지 킨샤샤에서의 기묘한 경험, 자신의 고향에 사는 낯선 이들을 목격하는 주민의 증언 그리고 시간과 몸짓을 통해 형상화된 소녀의 성장기 등이 작품을 통해 제시됩니다. 벨기에 사람들을 고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연출된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은 벨기에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예측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훈

Belgium is home to various cultural elements of Western Europe, including the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he Dutch language and culture, the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nd, of course, its own native culture. The country's uniqu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a rises from its history. Before, Belgium'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 occupying the heart of the European trade route - and fertile land worked to its disadvantage, provoking invasions by external forces. However, Belgium gained independence in 1830 after putting its colonial past behind it and experiencing several ups and downs. Throughout the 19th and 20th centuries, Belgium emerged as one of the world's most prominent powerhouses by means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ty. Between the late 19th and 20th centuries, Belgium went from being a former colony to running its own colonies in Africa. Such historical vicissitudes formed the character of the people of Belgium today.

"Belgium Mosaic" presents four films about the diversity of Belgium resulting from history - the story of young girls observing an invasion by external forces; peculiar experiences in Kinshasa, the former Belgian colony characterized by a mix of hope and dystopia; a testimony from a man who has witnessed the arrival of strangers in his homeland; and the coming-of-age story of a girl embodied by time and movement. Their unique styles and distinctive perspectives on the Belgians will offer a chance to examine, experience and predict Belgium's past, present and future.

Lee Sanghoon

15 28일(금) 12:30 소극장 | 28(Fri) 12:30 Cinema II
30일(일) 18:00 시네마테크 | 30(Sun) 18:00 Cinematheque



대나무
Bamboe

Belgium | 2018 | Fiction | 19'19"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Flo Van Deuren Producer Flo Van Deuren Script Flo Van Deuren
Cinematographer Jannes de Leest Editor Lawrence Paul Foley
Music Aiko Devriendt Sound Renzy Saerens Cast Lotte Peeters,
Fleur Van Bergen, Roos Zijlstra, Anne Coopman, Pauline Ba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한 무리의 어린 소녀들이 무더운 여름날 누군가와 마주친다. 난생 처음 보는 외모를 가진 이방인의 출현은 순수한 그녀들의 세계를 세차게 흔들고 이로 인해 숨겨져 있던 소녀들 내면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영화는 익숙함과 생경함, 폐쇄와 관용을 다룬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잔혹한 성장영화다. 2019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 선정 작품이다. (이상훈)

On a hot summer day, a group of young girls run into a stranger in the midst of their mundane daily lives. The arrival of the stranger - whose appearance is unlike that of anyone the girls have met before - shakes their innocent world to its core, which inevitably reveals the girls' hidden inner sides. This beautiful yet ruthless coming-of-age story explores familiarity and foreignness, as well as closure and tolerance. Selected for Cinéfondation at the 2019 Cannes Film Festival.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플로 반 드렌 Flo Van Deuren

Contact
Flo Van Deuren
vandeurenflo@gmail.com



우리 셋
Us Three

Belgium | 2019 | Experimental | 30'24"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Jonas Baeckeland Producer Lotte Van Craeynest, Sieber Marly
Script Anne-Lore Baeckeland, Jonas Baeckeland
Cinematographer Dries de Clercq, Rik Zang Editor Tom Denoyette
Music Wouter Vlaeminck Sound Matthias Hillegeer, Frederik Van de Moortel
Cast Anna-Ganesha Gering, Sarah Huppermans, Nele Theuwisse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는 세 명의 사람은 또한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세 단계를 상징한다. 한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겪는 성장의 과정이 무용과 동작을 통해 표현된다. 시간의 변화와 삶의 단계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 음악, 몸짓을 통해 묘사된다. 이 작품의 제작을 위해 감독은 세 명의 소녀를 캐스팅한 후 그녀들의 6세, 12세, 18세 매 시기 때마다 촬영을 진행했다. 6세와 12세 때는 동일한 공간에서, 마지막 18세 때는 세 소녀를 숲, 건물, 골짜기 등 서로 다른 공간에서 촬영하였다. 2019 벨기에무용영화제 공식 경쟁작이다. (이상훈)

The three people existing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symbolize the three stages of one man's life. The process of growth experienced by the three people (or the man) is conveyed through dance and movement. The changing times and different life stages are depicted not in a traditional way but by means of imagery, music and movement. In order to produce this work, the director cast three girls and filmed them when they were 6, 12 and 18 years old. The same space was used for the first two times, and then at age 18, the girls were filmed in different locations. Official selection for competition at the 2019 International Dance Film Festival Brussels.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요나스 벡클랜드 Jonas Baeckeland

Contact
AUG&OHR MEDIEN
film@augohr.de

15 28일(금) 12:30 소극장 | 28(Fri) 12:30 Cinema II
30일(일) 18:00 시네마테크 | 30(Sun) 18:00 Cinematheque



좀비들
Zombie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2019 | Experimental | 14'5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Baloji Producer Baloji Script Baloji
Cinematographer Joachim Philippe Editor Bruno Tracq Music Baloji
Cast Baloji, Popaul Amisi, Gaëlle Kibikond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형형색색의 이미지, 강력한 음악, 서로 다른 언어가 다양한 공간과 인간의 육체를 통해 재현된다. 영화 속의 장소인 콩고민주공화국의 킨샤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편재하고, 낮과 밤이 함께 존재하며 희망과 디스토피아가 공존한다. 여러 편의 뮤직비디오가 중첩된 구조를 갖는 독특한 방식의 서사가 진행되는 이 작품은 래퍼이며 힙합 아티스트인 콩코계 벨기에 감독 발로지가 연출했다. 2020 끌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오베르뉴 론 알프스 커넥션상 수상작이다.
(이상훈)

Colorful images, powerful music and different languages come alive through various spaces and human bodies. Kinshasa, the capital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s a city wher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ll coexist, as well as hope and dystopia. Directed by Baloji, a Belgian rapper and hip-hop artist of Congolese origin, this unique narrative consists of multiple layers of music videos. Winner of Prix Festivals Connexion Auvergne-Rhône-Alpes at the 2020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발로지 Baloji

Contact
SUDU CONNEXION
festival@sudu.film



우리들의 땅
Our Terr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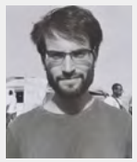
Belgium | 2019 | Documentary | 20'50" | HD | B&W | English Sub

Director Mathieu Volpe Producer Serge Kestemont, Olivier Burlet,
Mathieu Volpe Script Mathieu Volpe Cinematographer Mathieu Volpe
Editor Pauline Piris-Nury Music Vincent D'Hondt Sound Jean-Noël Boissé
Cast Mathieu Volp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다큐멘터리이면서 실험영화인 이 작품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침입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감독의 시적 증언이자 기록이다. 명암이 선명한 흑백사진과 거칠게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관객은 정치, 사회, 현실에 의해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내 그들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발견한다. 이주와 이민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려는 감독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2019 로카르노영화제 경쟁 작품이며 2019 사인오브나잇영화제 단편부문 대상작이다. (이상훈)

At once a documentary and an experimental film, this work is the director's poetic testimony and record of strangers intruding upon life in the small Italian village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The sharp black and white still photographs and rough moving images introduce us to people branded by the politics, society and reality surrounding them. However, we soon discover that they, too, cope with the present while dreaming of a better future - just like everyone else. The film offers a glimpse into the director's unprejudiced perspective towards those living in the reality of immigration and migration. Official selection for competition at the 2019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inner of the Short Film Competition Main Award at the 2019 International Festival Signs of the Night.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마티외 볼프 Mathieu Volpe

Contact
GSARA ASBL
sandra.demal@disc-asbl.be

영상 상영의 토탈 솔루션
영화제 상영 기술 컨설팅 및 인력 지원
상영 및 공연 영상, 음향 장비 대여
미디어 변환 및 자막 제작 , 극장 개봉작 DCP 제작
JINMEDIA
MAKE SOMETHING SPECIAL FOR YOU

첫째, 진미디어는 영화제 기술 관련 업무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둘째, 진미디어는 양질의 공간과 장비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화제에 공급하려 합니다.
셋째, 진미디어는 최우선으로 영화제 상영의 무사고를 지향합니다.

진미디어는 상영과 관련된 기술자막업무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제에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smartstore.naver.com / jinmedia • www.jinmedia.co.kr
상영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진미디어 • 강서구 마곡중앙 2로 11 W타워 3차 4층 • 02.704.7367

아시아 쇼츠

HUB OF ASIA

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코리안 멜팅팟'(아시아의 감독들이 한국에서 만든 단편영화), '몽골 단편'(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와의 협력 하에 마련된 몽골 특별전), '아시아를 점령하라'(아시아 국가들의 세상을 향한 외침)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Travel through Asia in three diverse programs: "The Korean Melting Pot" (short films made in Korea by Asian filmmakers), "Mongolian Shorts" (a focus on a country via a film school) and "Occupy Asia" (a theme... and a rallying cry!).

코리안 멜팅팟 The Korean Melting Pot | 몽골 쇼츠 Mongolian Shorts | 아시아를 점령하라 Occupy Asia

아시아 쇼츠 Hub of Asia

대한민국은 민족적 동질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이민의 파동으로 (특히 인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영화 제작자들을 포함한 다문화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모순된 제목의 '코리안 멜팅팟'은, '아시아 쇼츠'의 첫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방글라데시 출신의 감독들이 한국에서 만든 다섯 편의 단편영화로 시작합니다. 이 영화들의 장르나 스타일, 다루는 소재는 각각 다르고 언뜻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연출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울리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갈망.

'아시아 쇼츠'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에서 만들어진 단편영화 9편을 선보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이제까지 거의 선보이지 않았던 몽골 영화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몽골의 현재 상황과 이슈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 영화학과 강사이자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첸겔 다바삼부가 작품의 큐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치열한 사회정신과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에서 만들어진 4편의 단편영화는 대중 집회, 민중의 저항, 시민운동으로 가득한 거리의 열기, 요동치는 민주주의의 맥박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최근 홍콩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염원에 영감을 받아 구성한 '아시아를 점령하라'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들의 분노가 창의성과 만나 인류를 위해 선포하는 각 지역에서 외치는, 그러나 보편적이고 강렬한, 저항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유! 평등! 정의!

심세부

Known for its ethnic homogeneity, Korea consistently benefits from a steady wave of immigration - especially from neighboring Asian countries - and with it comes a healthy dose of multiculturalism which includes filmmakers. Ironically titled "The Korean Melting Pot", the first program in 'Hub of Asia' introduces five short films made in Korea by directors from the Philippines, Indonesia, Vietnam and Bangladesh. While genres, styles and topics diverge, and although some of these films may not, at first glance, be identified as being made by foreigners, there is nonetheless one common, universal thread: a yearning to fit in and to belong.

The second program in "Hub of Asia" presents a showcase of nine short films made at the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in Ulaanbaatar. A rare opportunity to watch recent productions from Mongolia, whose films have rarely been seen so far at BISFF, and to get a glimpse of this country's current state and preoccupations. It was curated with producer Tsengel Davaasambuu, who is also a teacher at this film school.

Get down to the streets and take the pulse of democracy through four socially-conscious and politically-engaged short films on mass protests, citizens' revolts and civic rights movements coming from Hong Kong, Indonesia, Thailand and Korea. The "Occupy Asia" program, which was inspired by the recent upheaval in Hong Kong, aims to show how artists can draw inspiration from outrage and channel their creativity for the benefit of humanism by telling rebellious and local - yet compelling and universal - stories. Liberty! Equality! Justice!

Sébastien Simon

코리안 멜팅팟 The Korean Melting Pot
15 28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8(Fri) 10:30 Cinematheque
30일(일) 15:30 시네마테크 | 30(Sun) 15:30 Cinematheque GV



의건
Eui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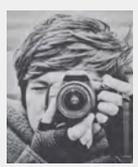
Korea | 2019 | Fiction | 22'53"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제레미아 마곤시아 Jeremiah Estela Magoncia
Producer 김수랑 Kim Surang Script 제레미아 마곤시아 Jeremiah Estela Magoncia Cinematographer 배경근 Bae Gyeonggun Editor 제레미아 마곤시아 Jeremiah Estela Magoncia Music 조한준 Jo Hanjun Sound 조한준 Jo Hanjun
Cast 문규민 Moon Kyumin 복권일 Bok Gwonil 최희진 Choi Heeji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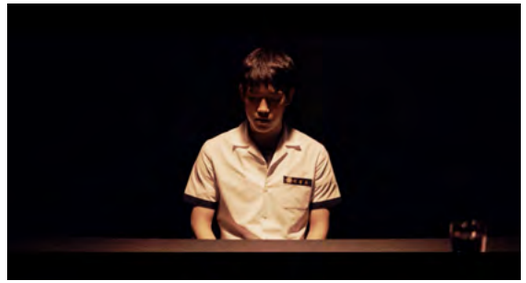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암시하는 이 민감한 영화에서 두 남자 주인공 사이에는 많은 것이 무언(無言)으로 남겨져 있다. 영화는 한국의 이해하기 힘든 직장 문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욕구, 삼가는 태도 등의 예민한 문제들을 섬세하게 다룬다. 또한 국외 이주의 개념과 자국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루는데, 이는 코리안 멜팅팟 프로그램의 마지막 영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심세부)

A lot of is left unspoken between the two male characters in this hypersensitive film which suggests much more than it shows, providing a delicate look on several touchy issues such as mind-numbing Korean work culture, socially-reprehensible desires, and self-effacement. It also introduces the notion of expatriation and the difficulty of returning to one's own country, which finds an echo with the last film of that program.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제레미아 마곤시아
Jeremiah Estela Magoncia

Contact
Jeremiah Estela Magoncia
jemagoncia@naver.com



플롭
Flop

Korea | 2019 | Fiction | 9'39"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사트리오 하얀토 Satrio Haryanto
Producer 카리사 아델리아 노비나 Carissa Adelia Novinna
Cinematographer 사트리오 하얀토 Satrio Haryanto Cast 오용택 Oh Yongtaek, 박재일 Park Jaeil, 김경균 Kim Gyunggyoon, 전찬영 Jun Chanyung, 김동일 Kim Dongi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전형적인 한국 고등학교의 폭력 이야기가 이 긴장감 넘치는 영화에서 참신하게 재편성되었다. 느와르 영화(취조실의 표현주의, 과장된 인물)와 수사극(같은 상황을 보는 상반된 관점, 모순되는 회상 장면들)의 요소들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심세부)

The classic Korean-high-school-bullying story gets refreshingly revamped in this suspenseful film which expertly utilizes elements of the film noir (expressionism of the interrogation room, heightened characters) and the whodunit (conflicting point of views on the same situation, contradictory flashbacks).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사트리오 하얀토
Satrio Haryanto

Contact
Satrio Haryanto
satrio.haryanto.work@gmail.com



스프라우트
Sprout

Korea | 2019 | Fiction | 15'48"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봉 누엥 한 Vuong Nguyen Hanh Producer 카리사 아델리아 노비나 Carissa Adelia Novinna Script 봉 누엥 한 Vuong Nguyen Hanh Cinematographer 사트리오 하얀토 Satrio Haryanto Editor 봉 누엥 한 Vuong Nguyen Hanh Music 고든 바잘리 Gordon Bazali Sound 올리비아 첸 바오 형 Olivia Tran Bao Khong Cast 정수연 Jung Sooyeon, 진아진 Jin Ahji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모든 등장 인물이 여성인 이 뻔뻔스럽게 페미니스트적인 영화는, 은유적으로(수족관, 수영장에서 물 속의 장면들) 그리고 문자 그대로(이 이야기는 모두 털에 관한 이야기이다), 허리 아래를 뻔히 들여다본다. 이 영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요구되는 기준에 대해 감탄할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 몸매 지적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어두운 결과를 암시적으로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유머가 돋보인다 (왁싱하는 장면 중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는 정말 딱 어울리는 내용이다!). (심세부)

Unabashedly feminist, this film with an all-female cast dares to look under the waist, both metaphorically (fish tank; underwater shots in the swimming pool scenes) and literally (the story is all about the bush). This film admirably questions the expected standards of female beauty and, although it remains suggestive on this issue, it also inevitably evokes its dark corollaries: the obsession of the self-image, and the fear of body shaming. All this, however, doesn't prevent humor to shine through (what an apt documentary that TV happens to be broadcasting in the waxing scene!).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봉 누엥 한
Vuong Nguyen Hanh

Contact
Vuong Nguyen Hanh
vuongnguyenhanh1997@gmail.com



여름이 끝날 무렵
After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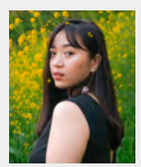
Korea | 2018 | Experimental, Fiction | 10'41"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발레리 마벨 Valerie Mabelle Producer 장천옥 Jang Cheonok
Script 발레리 마벨 Valerie Mabelle Cinematographer 조시아 라스커 Josia Lasker
Editor 조시아 라스커 Josia Lasker, 발레리 마벨 Valerie Mabelle Sound 이건희 Christian Lee Cast 소피얀 다르마 Sofyan Dharma, 발레리 마벨 Valerie Mabell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이 로맨스 영화는 한국에 있는 외국 학생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그들의 어려움과 걱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과도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메시지 앱들을 (환상에 불과한) 의사소통의 (감추어진) 수단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진실을 부각한다: 사랑은 모두를 구한다. (심세부)

Both personal and sociologically grounded, this romantic film made by foreign students in Korea is about the struggles and concerns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The story plays on today's overuse of smartphones and messaging apps as (veiled) means of (illusory) communication while hitting upon a fundamental truth, which also ties into the following film: love saves all.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발레리 마벨
Valerie Mabelle

Contact
Valerie Mabelle
valeriemabelle64@gmail.com

15 28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8(Fri) 10:30 Cinematheque
30일(일) 15:30 시네마테크 | 30(Sun) 15:30 Cinematheque GV



세컨드 홈
Second Home

Korea | 2019 | Documentary | 26'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셱 알 마문 Shekh Al Mamun Producer 정소희 Jeong Sohee
Script 셱 알 마문 Shekh Al Mamun Cinematographer 이정훈 Lee Jeonghoon
Editor 사이풀 이스람 자흐날 Saiful Islam Jarnal Music 사이풀 이스람 자흐날 Saiful Islam Jarnal Sound 이승완 sWan Cast 까우살 Kawsar, 누스락 Nusra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서울이주민예술제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정겨운 한 남자와 그를 방문하는 그의 아내, 그가 한국에서 하는 일, 그의 희망, 외국에 살면서 겪는 많은 역경 속에서도 보여주는 낙관주의, 그리고 한국에 대한 끊임없는 그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이 영화는 끝부분 내레이션에서 이 프로그램 전체에 잘 어울리는 교훈을 알려준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심세부)

From one of the founders of the Seoul Migrant Art Festival comes this documentary tale of an endearing Bangladeshi man, of his visiting wife, of his work in Korea, of his hopes, of his optimism in the face of the many hardships of living abroad, and of his enduring love for this country. This heart-warming film eventually delivers, in its closing narration, a moral that befits this program as a whole: all of us may end up becoming foreigners to someone else.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셱 알 마문
Shekh Al Mamun

Contact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AMC FACTORY
amcfactory@naver.com



몽골 쇼츠 Mongolian Shorts
15 28일(금) 20:00 소극장 | 28(Fri) 20:00 Cinema II
31일(월) 10:30 시네마테크 | 31(Mon) 10:30 Cinematheque



숨
Breathe

Mongolia | 2018 | Fiction | 6'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Batmaa Bayaraa, Enkhjargal Batjikh Producer Batmaa Bayarsaikhan
Script Enkhjargal Batjikh Cinematographer Bat-Erdene Boldbaatar
Editor Bat-Erdene Boldbaatar Music Altangerel Chuluunbaatar
Sound Nergui Sambuu Cast Batmma Bayarsaikhan, Altantesetseg Shinekhuu, Munk-Od Purev, Batnamsrai Baljindorj, Purev Jargal Erdenebile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만큼 단순하면서도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있을까. 호흡이라는 행위를 기본 내러티브로 하면서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탄생, 삶, 죽음의 이야기를 깊은 울림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로 전한다. (심세부)

Inhale, exhale, inhale, exhale... nothing is more simple yet vital than breathing. This very act becomes the narrative source of this resonant, multi-characters story of birth, life and death which feels both personal and universal.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바트마 바야라아, 엥크하르갈 바트하크
Batmaa Bayaraa, Enkhjargal Batjikh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끈
Tie

Mongolia | 2019 | Animation, Fiction | 7'33"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Saruulbuyan Zorigt Producer Saruulbuyan Zorigt
Script Saruulbuyan Zorigt Editor Bold-Erdene Music Bold-Erdene
Sound Bold-Erdene Cast Dorjkhand, Zay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 젊은 여성이 삭막한 방에 몸이 묶인 채 갇혀 있다. 탈출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탈출할 의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혼합한 영화에서 고통, 기억, 해방이라는 순환의 이야기가 몽환적으로 펼쳐진다. (심세부)

A young woman, sequestered and tied in a spartan room, seems unable to mount an escape... or is she unwilling to? This film mixes live action and animation in a dreamlike, circular tale of anguish, memory and emancipation.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사룰부얀 조리트 Saruulbuyan Zorigt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15 28일(금) 20:00 소극장 | 28(Fri) 20:00 Cinema II
31일(월) 10:30 시네마테크 | 31(Mon) 10:30 Cinematheque



아름다움
The Face of Beauty

Mongolia | 2019 | Experimental | 5'47"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Nomin Delger Producer Nomin Delger Script Nomin Delger
Cinematographer Nomin Delger Editor Nomin Delger
Music B. Sarantuya, Urna Chahar Cast Bolortuya Ganbold, Anujin Bat-Ochi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음악과 에스닉한 요소가 가미된 실험 영화이다. 리듬감 있는 편집, 쇼트의 반복, 다채로운 채색 스타일, 독특한 음향효과 등 스타일의 재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노래, 무용, 의상을 통해 몽골의 (사라지는?) 전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심세부)

A musical and ethnical experimental film which is playful with style (rhythmical editing, repetitions of shots, varying coloring styles, marked sound effects) while providing insight into (fading?) Mongolian traditions through songs, dance and costumes.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노민 델거 Nomin Delger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미처 하지 못한 인사
Never Said Goodb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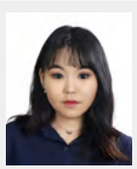
Mongolia | 2019 | Fiction | 6'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Altjin Batchuluun Producer Altjin Batchuluun
Script Altjin Batchuluun Cinematographer Turbold Ariunbaatar
Editor Zoljargal Erdenekhuyag Music Davaasuren Ganbayar
Sound Bayarjargal Ganbayar Cast Tungalagmoron, Tumenhuslen Tami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사랑스러운 젊은 연인의 컬러풀한 로맨스. 베일에 싸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실이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심세부)

A colorful and romantic meet-cute between two adorable young lovers, but who is that mysterious benefactor? The answer might move you more than you may expect.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알트진 베출룬 Altjin Batchuluun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고집
Persistence

Mongolia | 2019 | Fiction | 12'12"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Otgon-Erdene Erdene-Ochir Producer Galsandorj Tsagaantsooj
Script Otgon-Erdene Erdene-Ochir Cinematographer Munkhbayar Dambajav
Editor Otgon-Erdene Erdene-Ochir Sound Amgalanbaatar Terbish
Cast Bayarsanaa Batchuluun, Temuulen Tegshbaya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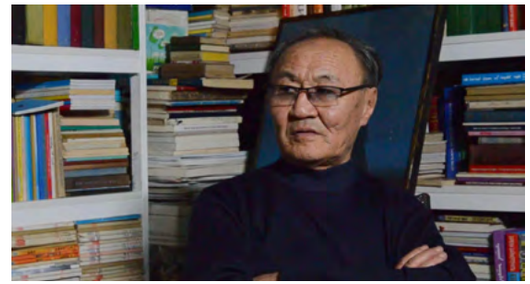
대화와 움직임은 없으나 표현과 감정이 넘치는 이 영화야말로 적은 것이 많은 것임을 보여준다. 카메라, 캐릭터, 감정의 부동성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뒤에 찾아오는 참담한 슬픔을 표현한다. (심세부)

Less is definitely more in this mostly wordless and motionless, yet expressive and emotional, film which uses immobility (of camera, of characters, of sentiments) in order to represent the crushing sense of grief that comes after the loss of a loved one.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오곤에뎬 에뎬오키르
Otgon-Erdene Erdene-Ochir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삶
As the Rock G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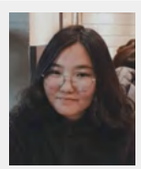
Mongolia | 2019 | Documentary | 9'49" | HD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Tuvshinzaya Batbayar Producer Tuvshinzaya Batbayar
Script Tuvshinzaya Batbayar Cinematographer Anar Bolor,
Gansaikhan Bayanmunkh Editor Tuvshinzaya Batbayar
Cast Ulziikhutag, Sodnompil, Munkh-Erdene, Tsegt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소련 시절 몽골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시, 기억, 흔적을 담은 한 노작가와의 인터뷰에 기반한 다큐멘터리 초상. (심세부)

Cosmic awareness, poetry, memories and remnants of Mongolia's soviet past come across in that interview-based documentary portrait of an old writer.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투브신자야 바트바야르 Tuvshinzaya Batbayar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15 28일(금) 20:00 소극장 | 28(Fri) 20:00 Cinema II
31일(월) 10:30 시네마테크 | 31(Mon) 10:30 Cinematheque



반자연주의
Antinatural

Mongolia | 2019 | Experimental | 2'49"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Nomin Delger Producer Nomin Delger Script Nomin Delger
Cinematographer Nomin Delger Editor Nomin Delger
Cast Tuwshinzaya Batbayar, Tsegtsbold Erkhemsaikha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위가 아래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형태와 색에 대한 최면을 거는 듯한 실험작품이다. 겹쳐지고 뒤집히고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공간(황량한 풍경), 시간(종소리), 문화(책)를 향해 흘러간다. 간간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는 길을 잃고 표류한다. (심세부)

Up is down and left is right in this hypnotic experiment on shapes and colors made of superimposed, inverted and repeated images that seem to flow across both space (the barren landscape), time (the bell sounds) and culture (the book), and in which just a few human silhouettes remain, lost and adrift.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노민 델거 Nomin Delger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재앙
Ara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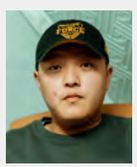
Mongolia | 2019 | Fiction | 6'2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Tuguldur Bayarmaa Producer Oyudari Chuluuntseren
Script Tuguldur Bayarmaa Cinematographer Otgonnyam Batbileg
Editor Otgonnyam Batbileg Music Od-Erdene Adilsuren
Sound Od-Erdene Adilsuren Cast Ganzorig Balgan, Oyudari Chuluuntseren, Uuganbayar, Nawaantseren, Oyun Erden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외딴 시골에서 평생 염소를 치던 사람은 서서히 이성을 잃어 간다. 서스펜스가 넘치는 영화는 가중되는 불안과 긴장을 통해 시골과 도시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심세부)

Deep in the countryside, a lifelong goat herder slowly loses his mind. This suspenseful film efficiently develops a growing sense of unease and anxiety, while suggesting a strong difference of character between people in the countryside and people in the city.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투굴두르 바이라마 Tuguldur Bayarmaa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잃어버린 시간
Lost Time

Mongolia | 2019 | Fiction | 7'58"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Otgon-Erdene Erdene-Ochir Producer Galsandorj Tsagaantsooj
Script Otgon-Erdene Erdene-Ochir Cinematographer Enkhjargal Bayrsanaa
Editor Otgon-Erdene Erdene-Ochir Sound Amgalanbaatar Terbish
Cast Davaasamba Sharav, Tulga Ganbile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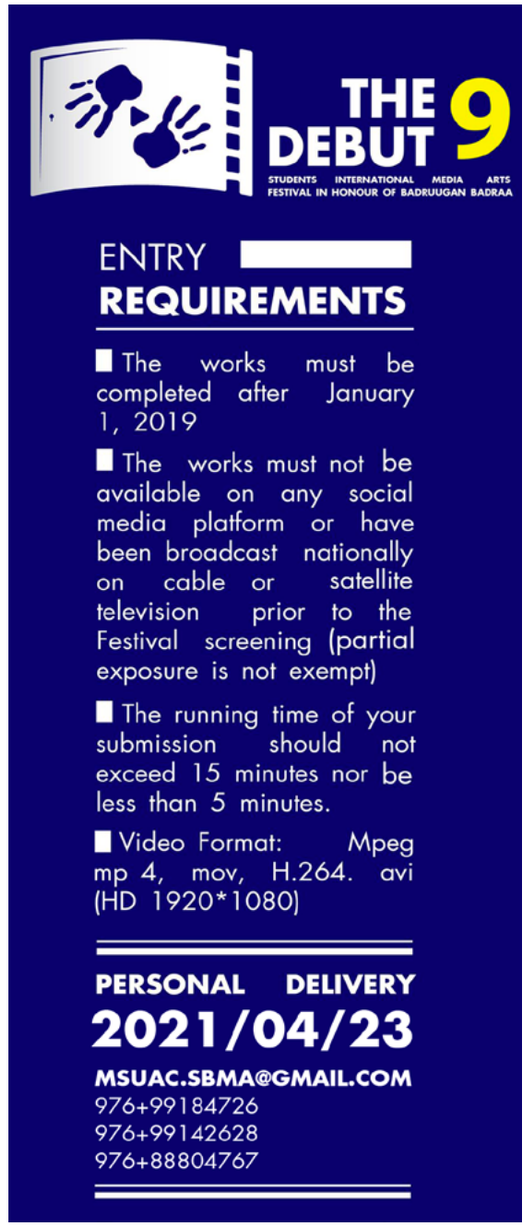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오지만 두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다. 영화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늙음과 젊음, 시골과 도시 같은 대비를 표현하며 양립이 불가능한 몽골의 세대 간 문화 차이를 보여준다. (심세부)

A father comes to visit his son, but the two barely have anything to say to each other. This film plays out simple but effective series of oppositions (old/young, countryside/city) to highlight Mongolia's generational and cultural gaps, possibly irreconcilable.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오곤에덴 에덴오키르
Otgon-Erdene Erdene-Ochir

Contact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아시아를 점령하라
Occupy Asia

15 30일(일) 13:00 시네마테크 | 30(Sun) 13:00 Cinematheque GV
31일(월) 15:30 시네마테크 | 31(Mon) 15:30 Cinematheque



빗물: 표상과 의지
Being Rain: Representation and Will

Hong Kong, China | 2014 | Fiction | 26'06"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Chan Tzewoon Producer Wong Wingyi Script Chan Tzewoon
Cinematographer Wong Homing Editor Chan Tzewoon Sound Ho Jacklam
Cast Hung Yunki, Lam Tinghim, Chan Tzewoon, Wong Homi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우산혁명이 한창이던 2014년 홍콩, 여러 감독이 모인 집단은 어딘가 수상한 회사(어쩌면 정부 기관일지 모르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예정된 집회 때마다 어김없이 쏟아지는 폭우와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다. 피해망상과 음모론 사이에 줄타기하면서 논리와 서스펜스 속에 실제 사건을 파헤친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사실일까? 홍콩프레쉬웨이브단편영화제 비키 웡 프로그램 담당자의 추천작이다. (심세부)

In the midst of the 2014 Umbrella Revolution in Hong Kong, a team of filmmakers starts investigating a shady company - or is it a governmental agency? - in relations to strange and inopportune rainfalls which coincidentally happen during each scheduled protest. A clever and suspenseful account of real-life events steeped in a growing paranoia and in conspiracy theories - but could these be true? Recommended by Vicky Wong, festival officer from Fresh Wav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진 재환 Chan Tzewoon

Contact
FRESH WAV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fo@freshwave.hk



침묵
Silence

Indonesia, U.S.A. | 2018 | Documentary | 15'59"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Riani S Producer Riani S, Esteban Zuluaga Cinematographer Riani S
Editor Riani S Music ASADA Sound Victor Nhieu Cast Wanggi Hoediyatno,
Maria Catarina Sumarsih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정처 없이 떠도는 거리의 예술가는 자신의 팬터마임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의 침묵 시위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팬터마임은 1998년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학생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저항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저항의 동력이 된다. 미니키노영화주간-발리단편영화제 프로그램 디렉터 프란시스카 프리하디의 추천작이다. (심세부)

A rootless street artist finds in his pantomime a natural fit for accompanying today's continuing silent protests in Indonesia. He uses his talent as fuel for his activism in order to commemorate the victims of the 1998 student-led riots against then-President Suharto, and to keep the memory of that movement alive. Recommended by Fransiska Prihadi, program director from Minikino Film Week - Bali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리아니 S Riani S

Contact
Riani S
rianisinggih@gmail.com



근대성의 신화
Myth of Modernity

Thailand | 2014 | Documentary, Experimental | 16'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Chulayarnnon Siriphol Producer Chulayarnnon Siriphol
Script Chulayarnnon Siriphol Cinematographer Chulayarnnon Siriphol
Editor Chulayarnnon Siriphol Music Chulayarnnon Siriphol
Sound Chulayarnnon Siriphol Cast Nuttorn Kungwankla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2014년 태국 쿠데타 이전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정치(집회)는 상징(모던한 삼각형태로 단순화한 정령의 집), 종교(불교 우주론)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한다. 영화는 매우 독창적인 시각에서 대중의 봉기와 대규모 시위를 부패한 여당이 쌓은 나쁜 업보의 증거이자 영적인 형벌로 간주한다. 태국단편영화영상페스티벌 프로그래머 산차이 초티로세라니의 추천작이다. (심세부)

Produced in 2014 before Thailand's coup d'état, this film puts the political (rallies) on par with the symbolic (the triangular form, a modern and simplified version of the spirit house) and the religious (Buddhist cosmology). It also presents a very original perspective: the idea of popular uprising and mass protests as the embodiment of the corrupt ruling class' bad karma, and as their spiritual punishment. Recommended by Sanchai Chotirosseranee, programmer from Thai Short Film and Video Festival.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주라얀논 시리폴 Chulayarnnon Siriphol

Contact
Chulayarnnon Siriphol
csiriphol@gmail.com



명령
Order

Korea | 2017 | Fiction | 18'33" | DCP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박성호 Park Seongho Producer 정유진 Chung Youjin
Script 박성호 Park Seongho Cinematographer 이종욱 Lee Jongwook
Editor 주혜리 Ju Heyri Music 장영규 Jang Younggyu Sound 신지은 Shin Jeeeun
Cast 최시형 Choi Sihyung, 박철민 Park Chulmin, 최 봄 Choi Bom,
박민희 Park Minhe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편의 아름다운 가극이 떠오르는 영화에서 딸을 잃고 비통에 빠진 아버지와 전경으로 복역하고 있는 딸의 남자친구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감독은 강렬한 울림을 전하는 판소리 곡조를 액자식 구성 요소로 사용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미지(주로 어린 희생자들의 사진), 그리고 그 이후 전국민적인 시민 운동이 촉발되는 과정을 되짚어 본다. (심세부)

A father grieving his daughter, and her boyfriend who's doing his training in riot police squad, find themselves on a collision course in this beautiful and operatic film. While using a haunting Pansori song as a framing device, the director deploys the imagery associated with the 2014 Sewol accident (the portraits of mostly young victims) and the civil unrest it ignited in order to evoke all the ensuing protests in Korea.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박성호 Park Seongho

Contact
(주)인디스토리 INDIESTORY INC.
indiestory@indiestory.com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8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출품 안내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Competition Submission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매년 전 세계의 다양하고 새로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 단편영화를 세계에 알리며 '아시아 단편영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국내최초 '미국 아카데미 공식 인증 영화제'가 되었으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의 단편부문 후보로 추천됩니다.
2021년 영화제와 함께 할 창의적인 단편영화의 많은 출품을 바랍니다.

BISFF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Hub of Asian Shorts" by introducing various new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every year, while also promoting Korean short films to the world.

In 2018, it became Korea's first "Academy Awards Qualifying Film Festival" and the Grand Prix recipient
in the competition section will be nominated for the shorts section at the "US Academy Awards".
Please apply for many creative short films with the 2021 Film Festival.

출품 기간 Submission period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0.10.20 ~ 2021.01.14	2020.10.20 ~ 2021.01.04

출품 조건 Entry Requirements

- **2020년 1월 이후에 완성된 작품**
  Films completed after January 1st, 2020
- **러닝타임 30분 이하의 단편영화**
  Maximum running time: 30 minutes
- **장르와 주제 구분 없이 출품가능**
  Any type of film (Fiction, Animation, Documentary, Experimental)

문의 Contact | +82-51-714-1220 | submit@bisff.org | www.bisff.org

비욘드 쇼츠

BEYOND SHORTS

'비욘드 쇼츠' 섹션은 전통적인 영화 형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영화 형식과 상영 방식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섹션은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프리즘', 영화와 관객 사이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 할 '인터랙티브 쇼츠'로 구성됩니다.

The "Beyond Shorts" section introduces films that cross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films and showcase experimental and innovative audiovisual forms. This includes "Prism", which demonstrates experimental performance, and "Interactive Shorts," which enables active and direct interaction of films and audiences.

프리즘 Prism | 인터랙티브 쇼츠 Interactive Shorts

프리즘 Prism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제는 '영화의 경계 흔들기'입니다. '프리즘'의 두 프로그램은 이 주제에 걸맞게 익스팬디드 시네마,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1970년대부터 새로운 세대의 영화인들은 직사각형의 스크린 밖으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확장하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영화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 내부의 모든 표면 또는 영화관 밖에서 영사하고, 신체에 직접 투사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영화를 공연 예술로 만들기도 하고 관객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이제 박물관이나 록 콘서트에서 라이트 쇼 및 멀티스크린 상영은 보편화 되었습니다.

'프리즘 1'의 영화들은 라이브 퍼포먼스로 진행됩니다. 이행준은 서울에서 익스팬디드 시네마 작업을 하는 영화인으로 전 세계 각종 영화제에서 공연 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에서는 16mm 프로젝터를 이용해 필름을 잡아 당기며 영상이 아닌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파리 출신의 젊은 영화인 자크 페콘트는 비디오 영상을 변형시켜 픽셀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에 추상화 패턴을 덧칠합니다. 그는 오페라를 포함한 여러 라이브 퍼포먼스를 해왔습니다. '프리즘 1'에서 자크 페콘트는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 비디오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행준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 하나의 완성된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프리즘 2'의 영화들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1970년대 런던에서 몇몇 익스팬디드 시네마 공연을 한 가이 셔윈은 최근 유럽에서 이 공연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셔윈은 들판에서 스크린으로도 쓰이는 거울을 들고 있거나, 종이 조각을 찢으며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곤 영화관에서 그 모습을 재현하며 거울을 들고 있는 자신에게 촬영된 영상을 영사하거나, 스크린 자체를 찢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투명한 스크린에 영사되는 동안 그 뒤에서 붓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환상과 현실의 미러링이 이루어집니다. 켄 제이콥스는 1960년대부터 영화 작업과 퍼포먼스를 해왔습니다. 그의 최신작은 3D 효과를 주는 깜빡이는 추상화인데, 관객이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정지된 프레임의 겹겹이 보이는 깊이, 질감, 색상, 및 디테일을 고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영화는 스크린에 투영되기보다는 우리 뇌의 후두엽에 투영되어 우리의 지각은 계속해서 마법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핍 초도로프

The theme of this year's BISFF is "pushing the boundaries of cinema." The two programs in this year's "Prism" will demonstrate this theme through expanded cinema, performance and audience interaction.

Starting in the 1970s,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started to outgrow the rectangular screen. An interest in expanded consciousness and in going beyond the limits of perception led these filmmakers to create innovative works, projecting on all surfaces in the cinema or outside, projecting onto the body so films became performance art, or involving the viewers participation. Light shows and multi-screen projections became common especially as museum installations or at rock concerts.

The films in "Prism" program 1 are performed live. Lee Hangjun is a filmmaker of expanded cinema living and working in Seoul who has performed in festivals and venues around the world. In this piece, he will perform with a 16mm projector but rather than create images, he will create sounds as he pulls the film through the apparatus. Jacques Perconte, a young filmmaker from Paris, has been working with video, distorting playback and creating abstract patterns in the mosaic of pixels that make up a digital image. He has made live performances including an opera. Here he will perform live from his home while Lee Hangjun creates an improvised soundtrack.

The films in program 2 invoke the audience. Guy Sherwin created several expanded cinema performances in London in the 1970s which he has been performing again recently in Europe. Sherwin filmed himself in the field holding a mirror which is also a screen, or tearing away pieces of paper to reveal a landscape. In the movie theatre, he recreates the situation, projecting onto himself holding a mirror, or painting a transparent screen from behind as his projected self is ripping away at the original screen. A mirroring of illusion and reality is thus created. Ken Jacobs has also been doing films and performances since the 1960s. His latest film is a flickering abstraction that creates 3D effects for the viewer, but here he invites us to pause the screen and to contemplate the still frames, as we become aware of ever intriguing layers of depth, texture, color and detail. The movie is not so much projected onto the screen but into the occipital lobe of our brain where our perception can continue to create magic.

Pip Chodorov

1 이행준 & 자크 페콘트
Lee Hangjun & Jacques Perconte

12 29일(토) 18:00 시네마테크 | 29(Sat) 18:00 Cinematheque PG



필름 워크
Film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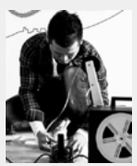
프로젝션 퍼포먼스: 이행준
즉흥음악: 류한길

Projection performance: Lee Hangjun
Improvisation: Ryu Hanki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행준은 〈필름 워크〉 퍼포먼스에서 영사기를 문자 그대로 악기처럼 다룬다. 옆으로 눕힌 영사기의 사운드 헤드에 16mm 필름을 끼워 넣는데, 필름에 뚫려 있는 스프라켓 구멍 때문에 사운드 헤드에서 필름을 직접 손으로 뽑아낼 때 음이 발생하게 된다. 소리를 얼마나 키우는지에 따라 그르렁 소리가 나기도 하고 금속을 긁는 듯한 불쾌한 소리가 나기도 한다. (조나단 월리)

Lee Hangjun's performance *Film Walk* treats the projector literally as an instrument as Lee threads 16mm film through only the sound head of a projector tuned on its side, bypassing the projector's gate. The film has sprocket holes where the soundtrack would usually be, which when pulled over the sound head by hand produce an electronic purr, or, when amplified enough, an unpleasant metallic grinding. (Jonathan Walley)



감독 Director 이행준 Lee Hangjun

이행준은 영상작가이자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EXiS)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해 왔다. 필름의 물질성과 즉흥 음악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여러 편의 멀티 프로젝션과 퍼포먼스 작품을 발표했으며, 국내외의 여러 음악가와 협업을 진행해왔다.

Lee Hangjun is a filmmaker, an independent curator and a programmer at EXiS in Seoul. He has curated screenings and live media programs such as *Cinematic Divergence* (2013) and *Mujanhyang* (2014). His works are based on multi-projection and optical sound, often involving improvisations with a variety of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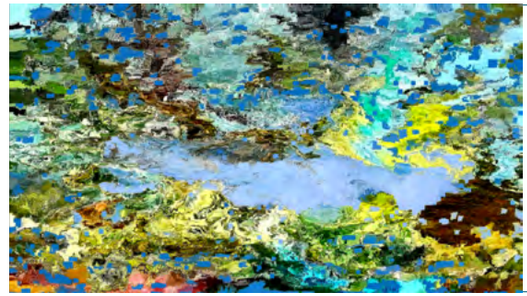
Contact Lee Hangjun | afterimage.hangjun@gmail.com



음악가 Musician 류한길 Ryu Hankil

류한길은 전자 음악가이자 즉흥 연주자이다. 시계, 타자기와 같은 버려진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인 음악 구조를 찾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즉흥 연주자이자 기획자로서 활동해왔다. 2008 년부터 아시아 즉흥 음악 그룹인 FEN (Far East Network)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이전의 작업과는 반대의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합성법을 통한 음향적 허구를 강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Ryu Hankil is an electronic musician and improviser, born in Seoul, South Korea in 1975. He was interested in finding an alternative musical structure possessed by abandoned objects like clockworks and typewriters. He has been a member of *FEN (Far East Network)* since 2008, and since 2015 he began a different approach by starting various fiction projects that use digital synthesis.



와일드 익스텐션
Wild Extension

라이브 비디오 퍼포먼스: 자크 페콘트
즉흥음악: 이행준, 류한길

Live video performance: Jacques Perconte
Improvisation: Lee Hangjun, Ryu Hanki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자크 페콘트의 비디오 퍼포먼스 〈와일드 익스텐션〉은 마데이라섬의 풍경을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를 서서히 추상화시키면서 색상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추상화된 디지털 이미지는 점차 원래 촬영된 풍경으로 되돌아온다. 이행준의 라이브 사운드와 합동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핍 초도로프)

Jacques Perconte's video performance *Wild Extension* starts from digital images shot on the island of Madeira and interrogates color through a progressive abstraction of the landscape. The digital material gradually gives way to the original filmed landscapes. In collaboration with Lee Hangjun for the live sound performance. (Pip Chodorov)



감독 Director 자크 페콘트 Jacques Perconte

199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 디지털 아트와 아방가르드 영화계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 자크 페콘트는 자신을 비주얼 아티스트로 간주한다. 그는 극장용 선형적 영화와 전시 및 갤러리를 위한 생성적 영화,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사진 및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A major figure in the French digital art and avant-garde film scenes since the late 1990s, Jacques Perconte considers himself a visual artist. He concentrates on the landscape, utilizing a variety of forms including linear film for cinema and generative film for exhibition/gallery, audiovisual performance, photography and installation.

Contact Jacques Perconte | jacques.perconte@gmail.com

2 가이 셔윈 & 켄 제이콥스
Guy Sherwin & Ken Jacobs

12 28일(금) 13:00 시네마테크 | 28(Fri) 13:00 Cinematheque PG
30일(일) 20:30 시네마테크 | 30(Sun) 20:30 Cinematheque PG





페이퍼 랜드스케이프 #1
Paper Landscape #1

UK | 1975- | Experimental | 10′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Guy Sherwin Producer Guy Sherwin Cinematographer Guy Sherwin
Cast Guy Sherwin

거울을 든 사람
Man with Mirror

UK | 1976- | Experimental | 10′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Guy Sherwin Producer Guy Sherwin Cinematographer Guy Sherwin
Cast Guy Sherwi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가이 셔윈의 퍼포먼스 〈페이퍼 랜드스케이프〉와 〈거울을 든 사람〉은 1970년대 후반에 익스팬디드 시네마 퍼포먼스로 제작되었다. "당시의 주요 개념은 환상과 현실의 대비, 혹은 (영사 공간이) 실외이냐 실내이냐였다. 두 영화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몇 차례 공연된 후 2000년대에 와서 다시 공연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잊혀져 있었다. 물론 그동안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바로 이 나이의 대비가 영화의 주요 관심사 된 것 같다!" (가이 셔윈)

Guy Sherwin's performances *Paper Landscape* and *Man with Mirror* were originally made in the late 1970s as expanded cinema performances. "The central idea was around illusion vs reality, or outdoor space vs interior space (of projection). Both films were performed a few times in the '70s and early '80s and then dropped until I was invited to perform them again in the 2000s. By this time I'd aged of course and I think have now become the central interest in the films!" (Guy Sher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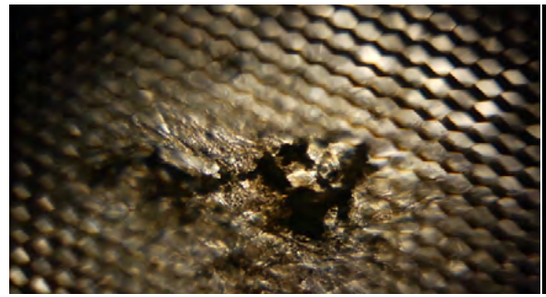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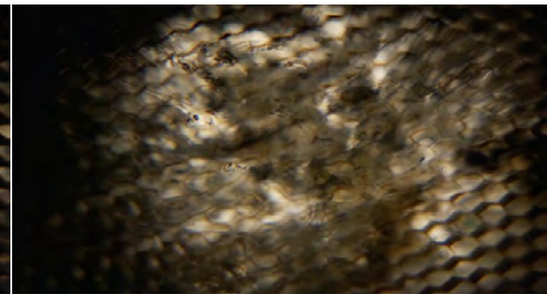
감독 Director 가이 셔윈 Guy Sherwin

가이 셔윈은 1960년대 후반 첼시예술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그의 후속 작품들은 시리즈 형식과 라이브적인 요소를 사용했으며 영화의 기본 요소인 빛, 시간, 사운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의 최근 작업으로는 전시 공간을 위해 만들어진 설치와 다중 프로젝터와 광학 사운드를 사용하는 린 루와의 공동 작업이 있다.

Guy Sherwin studied painting at Chelsea School of Art in the late 1960s. His subsequent film works often use serial forms and live elements, and engage with light, time and sound as fundamental to cinema. Recent works include installations made for exhibition spaces and performance collaborations with Lynn Loo working with multiple projectors and optical sound.

Contact Guy Sherwin | guy.k.sherwin@googlemail.com





일시 정지로 이끄는 영화
Movie that Invites Pausing

USA | 2020 | Experimental | 24′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Ken Jacobs Producer Ken Jacobs Cinematographer Ken Jac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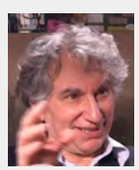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켄 제이콥스의 〈일시 정지로 이끄는 영화〉는 그의 추상화 및 시각적 모호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색상과 그림자를 통해 상상의 깊이로 보이는 환상을 만들어 낸다. 관객들은 마음을 열고 감각의 모험에 빠져볼 수 있게 된다. (핍 초도로프)

Ken Jacobs' *Movie that Invites Pausing* evolved out of Jacobs' interest in abstract art and an embrace of visual ambiguity. Colors and shadows create the illusion of imaginary depth. Viewers willing to open their mind can experience an adventure in perception. (Pip Chodorov)

퍼포먼스 안내
Guide for Performance

〈일시 정지로 이끄는 영화〉는 감독의 연출 의도에 따라 영화를 정지 없이 상영한 후 반복 상영할 때 관객을 위해 영화 중간중간에 화면을 정지시키는 작은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or's intention, the film will be screened a first time uninterrupted and a second time with pauses as part of a mini-performance.



감독 Director 켄 제이콥스 Ken Jacobs

켄 제이콥스는 1950년대 중반 추상표현주의 양식의 주요 창시자 중 한 명인 한스 호프만에게 회화를 배웠고 이즈음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초기 연구는 추상표현주의 영화로 이어지는 그의 영화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50여 년 동안 그의 작품은 19세기 관객들이 처음으로 영화를 보았을 때와 같은 미스터리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Ken Jacobs studied painting in the mid-fifties with Hans Hofmann, one of the prime creators of Abstract Expressionism, and began filmmaking. His own early studies under Hofmann would increasingly figure in his film work, making for an Abstract Expressionist cinema. For more than 50 years, Ken Jacobs's work has inspired the sense of awe and mystery that 19th-century audiences must have felt when confronting motion pictures for the first time.

Contact Ken Jacobs | nervousken@aol.com

인터랙티브 쇼츠 Interactive Shorts

인터랙티브 영화는 전통적인 영화와 달리 관객이 직접 능동적으로 영화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선택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개념의 영화를 말합니다. '인터랙티브 쇼츠' 프로그램은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과 스피커의 음향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영화보기 방식에서 벗어나,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랙티브 쇼츠 1'은 다비드 뒤프렌느의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온라인 상영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즌 밸리〉의 공동연출자로 익히 알려진 다비드 뒤프렌느는 감독뿐 아니라 프로듀서, 프리랜서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프리즌 밸리〉를 포함하여 〈포트 맥머니〉, 〈다다-다타〉를 소개합니다. 〈프리즌 밸리〉는 장편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지만 높은 완성도를 지닌 다비드 뒤프렌느 감독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두 편의 영화들과 함께 소개합니다.

'인터랙티브 쇼츠 2'는 분기형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인터랙티브 영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상영 프로그램입니다. 선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분기형 내러티브 구조의 인터랙티브 영화는 각 사건에 분기점들이 존재하고, 영화는 이 분기점에서 관객에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관객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결말에 이르는데, 이러한 방식은 영화와 관객 사이의 더욱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터랙티브 쇼츠 2'에서는 분기형 내러티브 구조를 선택한 인터랙티브 뮤직비디오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활용하여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인터랙티브 영화 등을 선보입니다.

김경연

Interactive films feature the innovative concept of allowing the viewer to actively participate, making choices and changing the outcome of a film. The "Interactive Shorts" program is a new program designed to allow the viewer to actively participate for a novel experience, rather than passively watch and simply taking in the viewing screen and speaker sounds.

"Interactive Shorts 1" is an online screening program introducing David Dufresne's interactive documentary. Known not only as the co-director of *Prison Valley*, but also as a producer and freelance journalist, Dufresne is pioneering the field of interactive media. This program will focus on Dufresne's *Prison Valley*, *Fort McMoney*, and *Dada-Data*. Even though *Prison Valley* is a feature length interactive documentary, we will show it along with David Dufresne's shorts because it is one of his major works.

"Interactive Shorts 2" is an online screening program that introduces interactive films with a branching narrative structure, which deviates from the linear structure. Presenting forks in each event, they provide the audience with numerous choices: depending on these, the story unfolds in the desired direction and comes to an end, by requiring a more direct and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film and the audience. This program will introduce interactive music video and interactive films produced by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Film Studies at Dong-Eui University using technology from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Yeona Kim

인터랙티브 쇼츠 상영 안내

- 상영 기간: 2020년 8월 27일 ~ 8월 31일
- 상영 방법: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영 (www.bisff.org)

Screening Guide for Interactive Shorts

- Screening dates: August 27th-31st
- Screening form: online screening on website of BISFF (www.bisff.org)

1



프리즌 밸리
Prison Valley

France | 2010 | Documentary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David Dufresne, Philippe Brault Producer ARTE, UPIAN
Editor Cédric Delpor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관객(또는 사용자)을 '프리즌 밸리'라 불리는 콜로라도주 캐논 시티로 안내한다. 13개의 교도소가 모여 있는 프리즌 밸리에 도착한 관객은 새로운 계정을 등록하면 이 지역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거나 등장인물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에서 수동적인 관찰자로 존재하던 관객은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하고, 이는 지역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 낸다. (김경연)

This web-based documentary takes the audience (or user) to Canon City, Colorado, called "Prison Valley". Audiences arriving in this area, where 13 prisons are gathered, can access more content by registering a new account. You can learn more about the region, participate in online debates, or exchange e-mails with characters. Through this, the audience, usually passive observers in a general documentary, turns here into active participants, which creates a critical discourse on the region and an avenue to elicit possible change. (Yeona Kim)





감독 Director
다비드 뒤프렌느, 필립 브로
David Dufresne, Philippe Brault

Contact
David Dufresne
dufresne@davduf.net



포트 맥머니
Fort McMoney

Canada | 2013 | Documentary | Interactive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David Dufresne Producer ARTE, NFB, TOX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다큐멘터리와 게임이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에 위치한 포트 맥머리 지역의 석유 산업과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다룬다. 가상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포트 맥머리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 토론을 벌이거나 국민 투표에 참여 할 수도 있다. 저널리즘의 대안적 형태로서 영향력을 가진 이 프로젝트는 가상공간에서 대중의 참여를 통해 현실 공간인 포트 맥머리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김경연)

This documentary-game combination project addresses the oil industry and subsequent environmental changes in Fort McMurray, Canada. Participants in this virtual space can meet various people around Fort McMurray and listen to their opinions. They can also have discussions with other participants or take a poll. As an alternative form of influential journalism, this project will allow public participation in a virtual space to bring about change in a real space: Fort McMurray. (Yeona Kim)



감독 Director
다비드 뒤프렌느 David Dufresne

Contact
David Dufresne
dufresne@davduf.net



다다-다타
Dada-Data

Switzerland | 2016 | Documentary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David Dufresne, Anita Hugi Producer ARTE, SRG SSR
Cinematographer David Dufresne Editor Léa Klaue
Music THE DEAD BROTHERS Sound DJ TOTY, Louis-Philippe Quesne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예술적 전통을 부정하고 기존의 사회체제와 문명을 거부하는 예술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다다' 라 한다. 다다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기사, 사진, 영상, SNS 등의 콘텐츠가 뒤얽혀 있으며, 사용자가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든 구조와 비선형적 특성은 정해진 틀과 형식을 거부하는 '다다'의 정신과 닮아 있다. (김경연)

"Dada" refers to an art movement formed in Europe and the US toward the end of World War I, in which artists rejected all social and artistic traditions, as well as the existing social order and civilization. This interactive documentary is designed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Dada Movement, with articles, photos, videos, and SNS content with which users can directly interact.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and the complicated structures are in keeping with the "Dada" spirit, which rejects conventional rules. (Yeona Kim)




감독 Director
다비드 뒤프렌느, 아니타 후기
David Dufresne, Anita Hugi

Contact
David Dufresne
dufresne@davduf.net

www.bisff.org



상처 주는 말
Words Hurt

France | 2015 | Fiction | 10'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Romain Chassaing Producer Nicolas Tiry, Edouard Chassaing Script Romain Chassaing
Cinematographer Julien Meurice Editor Roxane Fauré-Huet Music NAÏVE NEW BEATERS



감독 Director
로맹 샤생 Romain Chassaing

Contact
SOLAB PICTURES
sarah.gabay@solab.fr

시놉시스 Synopsis

이 인터랙티브 영상은 3인조 밴드 나이브 뉴 비터스의 노래 '상처 주는 말'의 뮤직비디오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에서 관객의 선택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주인공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주인공이 시험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이 선택에 따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또한 선택의 결과에 따른 각 장면은 다양한 장르와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이는 장르적이고 시각적인 쾌감을 선사한다. (김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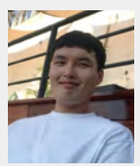
This is an interactive music video for "Words Hurt" by the three-man band NAÏVE NEW BEATERS. The viewer's choices are reflected immediately to affect the character's life. The moment the character decides whether or not to cheat on his test, he stands at the crossroads with completely unexpected consequences. Each scene that results from the different choices showcases a high-quality production design with a visual kick. (Yeona kim)



존 윅: 콤피튬
John Wick: Compitum

Korea | 2019 | Fiction | 48'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강상묵 Kang Sangmuk Script 강상묵 Kang Sangmuk Editor 최건희 Choi Geonhee,
강상묵 Kang Sangmuk Sound 이영빈 Lee Youngbin



감독 Director
강상묵 Kang Sangmuk

Contact
강상묵 Kang Sangmuk
bandi8332@gmail.com

시놉시스 Synopsis

킬러 생활에서 은퇴한 존 윅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곧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Retired killer John Wick lives a happy life with his dog. But fate soon puts him at a crossroads...



어쩌다 마주친 그대
Destiny

Korea | 2019 | Fiction | 10'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다혜 Kim Dahye Producer 김다혜 Kim Dahye, 김태성 Kim Taesung
Script 김다혜 Kim Dahye, 김지현 Kim Jihyun, 박현경 Park Hyunkyoung, 권우진 Kwon Woojin
Cinematographer 박현경 Park Hyunkyoung, 김태성 Kim Taesung Editor 김지현 Kim Jihyun,
신영철 Sin Youngchul Music 임도훈 Im Dohun Sound 임도훈 Im Dohun Cast 권우진 Kwon Woojin,
이지훈 Lee Jihoon, 엄주혁 Eom Juhyuk, 정원영 Jung Wonyoung, 신영철 Sin Youngchul



감독 Director
김다혜 Kim Dahye

Contact
김다혜 Kim Dahye
cmckma@naver.com

시놉시스 Synopsis

소개팅을 나간 여자, 들뜬 마음으로 기대를 하며 남자를 기다린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길 바라는 여자. 하지만 소개팅에 나온 남자의 정체는 심상치 않은데…

A woman waits excitedly for her blind date, hoping he will be the man of her dreams. But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about the man who meets her...



흠집
Not Today

Korea | 2019 | Fiction | 12′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류민주 Ryu Minju, 김한설 Kim Hanseol Producer 김수민 Kim Soomin
Script 김한설 Kim Hanseol Cinematographer 정혜원 Jeong Hyewon Editor 이효원 Lee Hyowon
Sound 이지이 Lee Jiyi Cast 김현준 Kim Hyeon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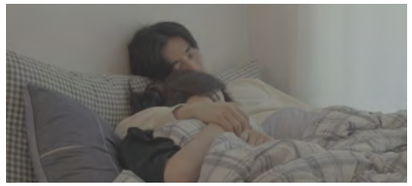

감독 Director
류민주, 김한설
Ryu Minju, Kim Hanseol

Contact
류민주 Ryu Minju
roonajoo@naver.com

시놉시스 Synopsis

언제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착해 보여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진 수혁. 그러나 수혁의 다이어리로 인해 학원 친구들에게 그의 본성을 들키게 되고, 수혁의 삶은 흠집이 난다. 삶의 흠집을 메우기 위해 가장 완벽한 죽음을 준비하게 된 수혁이와 당신의 선택은?

Wanting to always appear to be nice and caring, Soohyuk sets strict standards for himself. But when his diary is revealed, his friends find out his true nature and Soohyuk's life is no longer perfect. To fix this problem, Soohyuk prepares for the perfect death. What will be his and your choice?



데이, 데이
Day, Day

Korea | 2020 | Fiction | 13′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전소진 Jeon Sojin Producer 김진아 Kim Jina Script 전소진 Jeon Sojin
Cinematographer 권규진 Kwon Gyujin Editor 송은지 Song Eunji Sound 전효빈 Jeon Hyobin
Cast 최지민 Choi Jimin, 이동기 Lee Dongki, 김지석 Kim Jiseok, 강서희 Kang Seohui



감독 Director
전소진 Jeon Sojin

Contact
전소진 Jeon Sojin
vj4330@naver.com

시놉시스 Synopsis

옛 봄날의 첫사랑에 힘들어했던 현주는 정교수가 되기 위해 중요한 세미나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첫사랑에게 연락이 온다. 결혼하기 전 여행을 떠나자는 것. 여전히 첫사랑이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여자는 갈등하기 시작한다.

After a difficult breakup with her first love, Hyunjoo tries to move on and devotes her efforts to prepare for an important seminar in order to become a full professor. One day, she gets a call from her first love, who will soon be marrying another woman. He wants to take her on a trip before his wedding. Still in love and crying over him at night, Hyunjoo is conflicted.



그의 기억
His Memory

Korea, France | 2020 | Experimental | 10′ | B&W, Color | No Dialogue

Director 정인재 Jung Injae Script 정인재 Jung Injae Cinematographer 송준하 Song Juneha, 이승주 Lee Seungju Editor 최건희 Choi Gunnhee Music 최건희 Choi Gunnhee
Cast 니콜라 프랑코 Nicolas Franco, 이지훈 Lee Jihoon



감독 Director
정인재 Jung Injae

Contact
정인재 Jung Injae
wjddlswo45@naver.com

시놉시스 Synopsis

낯선 곳에서 일어난 남성.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주변엔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만 가득하다.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한 처음 보는 핸드폰.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다가 들고 나간다. 밖으로 나간 그는 핸드폰으로 주위를 찍어보다가 자신이 옛날에 찍었던 기억을 하나하나씩 떠올리게 되고, 그의 기억을 찾아 시네마테크와 에펠탑으로 간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남자는 그랑 카페로 가게 되고 자신이 뤼미에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 man with no recollection of his past wakes up in a strange room which he doesn't recognize. On a table in front of him is an object he sees for the first time: a cell phone. Using it to take pictures, he goes outside and slowly remembers things, one memory at a time. He ends up visiting an exhibition at the Cinematheque, and realizes that he might be Lumière himself.

앙코르 쇼츠
ENCORE SHORTS

세계는 넓고 단편영화는 무궁무진합니다. 본 섹션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커튼콜'과 4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단편영화를 통해 브라질의 사회의 다양성과 통찰을 보여주는 '포커스 온 브라질', 부산에 사는 내외국인이 만든 단편영화로 구성되는 '부산 IN', 한국의 단편영화배급사 센트럴파크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센트럴파크 특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Because there are always more short films out there, this section gathers a staple of our festival ("Curtain Call") plus four wholly original programs! Discover the diversity and insights of Brazil's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Focus on Brazil"), local films from Busan's Korean and foreign citizens ("Busan IN"), a retrospective from a Korean short film distribution agency ("Central Park Films Special")... and will you be able to handle the "Surprise!" program?

커튼콜 Curtain Call | 포커스 온 브라질 Focus on Brazil | 서프라이즈! Surprise! | 부산 IN Busan IN | 센트럴파크 특별전 Central Park Films Special

커튼콜 Curtain Call

세상에는 영향력 있는 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제들은 칸, 베를린, 선댄스 또는 끌레르몽페랑처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단편영화나 영화 감독들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인증 영화제와 단편영화협회 회원들의 목록만 보더라도(이 중에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처럼 중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100에서 200개 사이의 수준 높은 영화제들이 있으며, 전체적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올해 '커튼콜' 프로그램은 다섯 편의 단편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들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프로그래머들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심사위원으로 또는 프로그램 교환을 위해 참석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프로그래머들은 파트너십의 확장 및 기념, 그리고 관련 행사의 홍보를 위해 가오슝영화제(대만 가오슝), 쇼츠댓알낫팬츠(캐나다 토론토), 미니말렌단편영화제(노르웨이 트론헤임), 상파울루단편영화제(브라질 상파울루), 그리고 누보시네마페스티벌(캐나다 몬트리올) 등에 참석해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선정작들은 복잡다단한 가족의 역학(〈한 해의 끝〉), 끊임없이 장난스러운 동물(〈툰그루스〉), 캐릭터 감성의 참신한 표현(〈예언자〉, 〈에그〉), 춤을 기본으로 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멋있는 파워플레이(〈스윙게라〉)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음악의 중요성(〈한 해의 끝〉, 〈스윙게라〉)과 몸매에 대한 집착(〈에그〉, 〈스윙게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편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커튼콜' 프로그램은 협력 영화제의 근간을 넓혀 여러 장르와 제작국가를 아우름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훌륭한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있으니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심세부

The worldwide film festival circuit includes many influential festivals which, although they may not be as commonly known as Cannes, Berlin, Sundance or Clermont-Ferrand, matter just as much in the career of the short films and of their directors. The list of Oscar-qualifying festivals and the list of members of the Short Film Conference (which sometimes overlap, like with BISFF) alone provide between 100 to 200 quality festivals - and that's far from all of them.

This year's "Curtain Call" program introduces five awarded short films from overseas festivals in which BISFF programmers were invited in late-2018 and 2019 as jurors or for program exchanges, as a way to extend and celebrate these partnerships and to highlight these relevant events: Kaohsiung Film Festival (Kaohsiung, Taiwan), Shorts That Are Not Pants (Toronto, Canada), Minimalen Short Film Festival (Trondheim, Norway), São Paulo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São Paulo, Brazil) and Festival du Nouveau Cinéma (Montréal, Canada).

Complex family dynamics (*Tail End of the Year*), which may even include a relentlessly impudent animal (*Tungrus*), original expressions of a character's sensitivity (*Oracle, Egg*) and dance-based genderific powerplay (*Swinguerra*) feature among this program's themes of choice,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usic (*Tail End of the Year, Swinguerra*) and the obsession with body shape (*Egg, Swinguerra*).

Still very much a 'short film best-of', the "Curtain Call" program broadens its sources of reference festivals to bring you always more varied and excellent shorts of all genres and geographical origins. Enjoy!

Sébastien Simon

15 29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9(Sat) 13:00 Cinematheque
30일(일) 10:00 중극장 | 30(Sun) 10:00 Cinema I



한 해의 끝
Tail End of the Year

Taiwan, U.S.A. | 2018 | Fiction | 23'5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Yang Chieh Producer Yu Yenchang, April Hung, Sandra Mitrovic
Script Yang Chieh Cinematographer Peter Pan Editor Gong Liyo, Yang Chieh
Music Owen Wang Sound Shanice Yang Cast Angel Ho, Kris Kuan,
Fan Guangyao, John Ting, Liu Yinsha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서양의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이야기와 같은 이 영화는 양 지에 감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신을 대변하는 작은 소녀를 통해 감독은 1980년대, 새해 전날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한 중국 가정의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하리만치 즐거워하는 이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슬픔, 중국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대만이 변해 온 역사를 볼 수 있다. 2018 가오슝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황 하오지에)

Like a Western Christmas Eve family story, this film is based on director Chieh Yang's own experience. Using the little girl as her avatar, she's telling us the farce of a Chinese family reunited on a Chinese New Year's Eve in the 1980s for a dinner that's not a happy meal, but also a magnification of grievances. Through the little girl's unreasonable fun, we see her regret for her father's absence, an epitome of a Chinese family, and the larger history of Taiwan's national changes. Jury Prize for Taiwan Competition at the 2018 Kaohsiung Film Festival. (Huang Haojie)



감독 Director
양 지에 Yang Chieh

Contact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ptsfestival@gmail.com



툰그루스
Tungrus

India | 2018 | Documentary | 12'54"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Rishi Chandna Producer Rishi Chandna Script Rishi Chandna
Cinematographer Deepak Nambiar Editor Neha Mehra Sound Vinit D'Souza
Cast THE BHARDE FAMILY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어느 날 한 인디언 가족의 가장이 수탉을 반려동물로 입양하기로 하자, 이 가족의 생활은 우스꽝스러운 소란에 휘말리고 만다. (고양이 두 마리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한다. 그러나 툰그루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 수탉의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영화는 피치 못할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이 첫 연출작인 리쉬 찬드나 감독은 뭄바이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유머와 따스함으로 그려내며, 단편 다큐멘터리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 쇼츠댓알낫팬츠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제임스 맥낼리)

The lives of an Indian family are hilariously disrupted when their patriarch decides to adopt a rooster as a pet. We watch as each member of the family (including two cats) tries to adjust to the new situation, even as Tungrus' constant crowing and aggression drive the film to its inevitable conclusion. First-time director Rishi Chandna captures the chaos inside a cramped Mumbai apartment with humour and warmth, proving that short documentaries can entertain. Best Documentary at the 2018 Shorts That Are Not Pants. (James McNally)



감독 Director
리쉬 찬드나 Rishi Chandna

Contact
Rishi Chandna
fishychandna@gmail.com

15 29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9(Sat) 13:00 Cinematheque
30일(일) 10:00 중극장 | 30(Sun) 10:00 Cinema I



예언자
Oracle

Canada | 2019 | Fiction | 9'17" | DCP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Aaron Poole Producer Breann Smordin Script Aaron Poole
Cinematographer Nikolay Michaylov Editor Orlee Buium
Music BLITZ//BERLIN Cast Carl Mh Brooks, Sarah Naomi Campbel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흥분한 한 소년이 스스로의 두려움을 마주하며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자 미스터리, 집착, 몽상이 이 소년의 마음 속에 찾아온다. 이 소년은 적대적이고 공허하며 멋없는 주택 건축 현장을 서성이고 있다. 아론 풀러 감독은 느린 쇼트와 카이로스쿠로 조명을 사용하여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예측불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2019 누보시네마페스티벌에서 국내단편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에밀리 푸와리에)

Mysteries, obsessions and reveries overlap as a feverish child's mind plays tricks on him by making him confront his fears and face anxiety-inducing situations while he wanders a hostile, empty, uninviting house undergoing construction. Director Aaron Poole blurs the line between the real and the dream through slow shots and chiaroscuro lighting, allowing the unpredictable and the unexpected to happen. Grand Prix National Competition Shorts at the 2019 Festival du Nouveau Cinéma. (Émilie Poirier)



감독 Director
아론 풀러 Aaron Poole

Contact
Breann Smordin
breann@deigratiapictures.com



에그
Egg

France, Denmark | 2018 | Animation, Documentary | 12'07" | DCP | B&W | English Dialogue

Director Martina Scarpelli Producer Emmanuel Alain Raynal,
Pierre Baussaron, Lana Tankosa Nikolic Script Martina Scarpelli
Editor Albane Du Plessix, Martina Scarpelli
Sound Amos Cappuccio, Andrea Martignon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형태를 비틀어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 놀라운 흑백 애니메이션은 혁신적일 뿐 아니라 거짓말처럼 단순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니멀한 스타일과 매혹적인 더빙을 결합시켜 식이장애를 가진 한 여인의 몸과 마음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 2019 미니말렌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 노르딕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가이아 무씨 아스리, 마리 닐슨 네이라, 심세부)

In a striking black-and-white animation that's as deceivingly simple as it is inventive with form, this shape-bending, haunting short film combines a minimalist style with a captivating voice-over to transport us into the mind and body of a woman trapped by an eating disorder. Best Nordic Animation at the 2019 Minimalen Short Film Festival.
(Gaia Meucci-Astley, Mari Nilsen Neira,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마티나 스카펠리 Martina Scarpelli

Contact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스윙게라
Swinguer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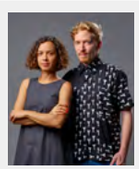
Brazil | 2019 | Documentary | 22'51"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Bárbara Wagner, Benjamin de Burca Producer Dora Amorim,
Julia Machado, Thaís Vidal Script Barbara Wagner, Benjamin de Burca
Cinematographer Pedro Sotero Editor Eduardo Serrano Music Carlos Sá
Sound Nicolau Domingues Cast Eduarda Lemo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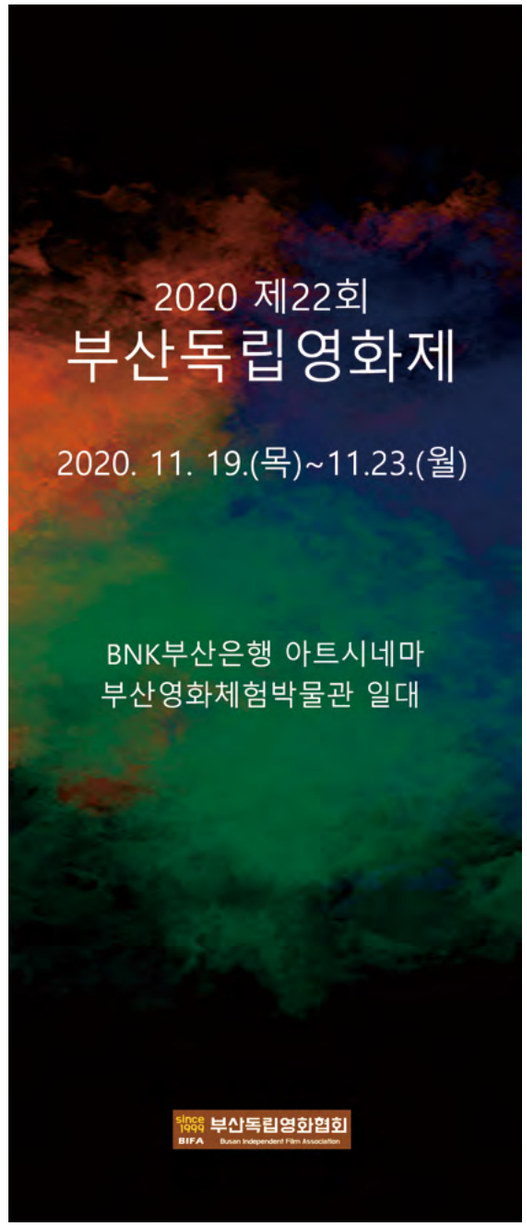
바바라 와그너와 벤자민 드 버카 감독의 최신작인 〈스윙게라〉-이는 '스윙'과 '게라'를 합친 포르투갈어로 전쟁을 의미한다-는 2019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브라질을 대표하여 소개된 작품이다. 끊임없는 예술적 탐구를 뒤쫓는 이 영화는 문화, 특히 브라질의 음악 장르 중 하나인 스윙게라의 대중적인 표현을 보여주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댄스경연대회는 환상적일 정도로 꿈과 같은 수준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상의 전쟁이 기발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단편영화는 시각예술과 영화가 결합된 작품으로, 무엇보다도 정치가 인체와 그 움직임으로 변모하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2019 상파울루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 브라질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페드로 티넨)

The latest work from the duo Bárbara Wagner and Benjamin de Burca, *Swinguerra* - a word play between "swing" and "guerra" (meaning war in Portuguese) - was commissioned to represent Brazil at the Venice Biennale in 2019. Following a continuous artistic research, the film references popular expressions of culture, specifically, the Brazilian musical genre of swingueira. The dance competitions being explored are given a dreamlike, almost fantastical, quality. Here, the fictional war has a whimsical effect. A hybrid of visual arts and cinema, this short film is above all a sensorial experience where politics are transfigured into bodies and their movements. Best Brazilian Short Film at the 2019 São Paulo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Pedro Tinen)



감독 Director
바바라 와그너, 벤자민 드 버카
Bárbara Wagner, Benjamin de Burca

Contact
PONTE PRODUTORAS
doraa.amorim@gmail.com



포커스 온 브라질 Focus on Brazil

2020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는 남미의 영화 강국 브라질 영화를 볼 수 있는 '포커스 온 브라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세계에서 가장 긴 아마존 강과 같은 지리적 특성, 세계적 축구 강국이자 카니발의 본고장이라는 문화적 특성, 남미 유일의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라는 언어적 특성 등 브라질은 인접한 남미의 스페인어권 국가와 구별되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미에서 가장 큰 이 나라는 원주민인 인디오는 물론이고 유럽계·아프리카계·아시아계 이민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어울려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의 대표적인 다인종, 다민족 국가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브라질은 제7의 예술인 영화의 탄생 초기부터 상영과 제작 부문에서 고유한 영화 세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50-60년대에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과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도입한 발생한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는 세계영화사의 중요한 영화 사조입니다. 브라질 영화는 시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격동하는 브라질 사회를 반영한 다양한 영화를 통해 여전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커스 온 브라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은 브라질 영화의 다양성, 독창성, 우수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최근 브라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현상과 여러 문제에 대한 창작자들의 독창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브라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삶과 그것을 구성하는 행복과 불행을 재현하는 연출자들의 내밀한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훈

The 2020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as prepared the "Focus on Brazil" program as a tribute to South America's film powerhouse Brazil. This country has an array of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its Spanish-speaking neighbors: only country in South America to use the Portuguese language, world's soccer powerhouse, home of the carnival, longest river in the world (the Amazon River), and vast land. Above all, this largest country in South America is the world's epitome of a multiracial and multi-ethnic nation, embracing not only the indigenous Índios, but also Europeans, Africans and Asians.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Brazil made its own, unique mark on the 7th art, both in its screening and production sectors. For example, in the 1950s and 1960s, Brazil incorporated Italy's Neorealism and France's New Wave into Cinema Novo, which remains an important film trend in world film history. Despite the turbulent times faced by Brazilian society, it continues to gain global attention through the various films that reflect this unrest.

We hope that the "Focus on Brazil" program gives you the chance to see the diversity, originality, and excellence of Brazilian films. These films will show the filmmakers' unique insights into the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and problems facing Brazilian society today. Through them,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see the lives of Brazilian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s well as the intimate perspective of the directors reproducing these lives.

Lee Sanghoon

18 28일(금) 20:30 시네마테크 | 28(Fri) 20:30 Cinematheque
30일(일) 15: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30(Sun) 15:00 BNK BUSAN BANK Art Cinema



악마와 함께 춤을 춘 소녀
The Girl who Danced with the Devil

Brazil | 2016 | Fiction | 14'49"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oão Paulo Miranda Maria Producer GRUPO KINO-OLHO
Script João Paulo Miranda Maria Cinematographer Thiago Ribeiro Pereira
Editor João Paulo Miranda Maria Music Leo Bortolin Sound Leo Bortolin
Cast Aline Rodrigues Cost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에 사는 한 소녀의 몽환적 여정의 이야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정한 사회에서 그녀는 다른 세계가 아닌 그녀가 사는 처참한 현실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한다. 피상적인 종교와 현실의 삶 사이의 간극을 소녀의 세계를 통해 몽환적이면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6 칸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특별언급 작품이다. (이상훈)

This film follows a dreamlike journey undertaken by a girl living in a conservative and religious society. She struggles against the society's heartless oppress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seeks heaven not in another world but within her miserable reality. The director presents a dreamy yet stark portrait of the gap between religious superficiality and real life through the girl's world. Recipient of Special Mention in the Short Film Competition at the 2016 Cannes Film Festival.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João Paulo Miranda Maria

Contact
CINEMA CAIPIRA
jpmirandamaria82@gmail.com



개미 퇴치제
Ant Killers

France, Brazil | 2017 | Fiction | 12'38"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oão Paulo Miranda Maria Producer Damien Megherbi, Justin Pechberty Script João Paulo Miranda Maria
Cinematographer Thiago Ribeiro Pereira Editor Jérôme Bréau
Sound Léo Bortolin, Vincent Arnardi Cast Amanda Araujo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 소녀가 키가 큰 유칼립투스 나무로 가득 찬 숲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그녀의 손에는 플라스틱통이 들려 있다. 걸음을 멈춘 그녀는 땅 위에 구멍을 판 후 하얀 액체를 구멍 위로 천천히 붓는다.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병충해인 개미를 죽이는 직업을 가진 브라질 시골 마을의 10대 여성의 삶을 관조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브라질 사회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이상훈)

A girl slowly walks into a forest of tall eucalyptus trees, holding a plastic bag in her hand. She comes to a halt, digs a hole in the ground, and slowly pours a white liquid into it. This film takes a contemplative look at the life of a teenage girl living in a Brazilian village whose job is to kill ants that hinder the growth of trees, thereby blowing a whistle on the oppressive and violent side of Brazilian society.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João Paulo Miranda Maria

Contact
LES VALSEURS
liyan@lesvalseurs.com

18 28일(금) 20:30 시네마테크 | 28(Fri) 20:30 Cinematheque
30일(일) 15: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30(Sun) 15:00 BNK BUSAN BANK Art Cinema



비가 내려도 축구
Sadder than Playtime on a Rainy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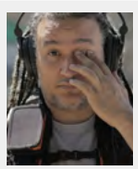
Brazil | 2018 | Documentary, Experimental | 14'01"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Lobo Mauro Producer Aurélio Aragão, Bárbara Tavela, Lobo Mauro, Roberto Souza Leão, Roberto Robalinho Script Lobo Mauro
Cinematographer John C.M. Editor Lobo Mauro Music Luiz Docarmo
Sound Damião Lopes, Fernando Morais, Lobo Mauro, Luiz Docarmo
Cast Márcio Artista da Bol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브라질에서 축구는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다. 공 하나를 가지고 승부가 벌어지는 이 경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이며 유일한 종교다. 2018년 브라질 월드컵의 이전 그리고 이후의 시간 동안 축구 밖에서는 보통의 브라질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일들이 대중의 시선 밖에서 진행된다. 축구와 정치를 교차시키며 브라질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2018 오버하우젠단편영화제 특별언급, 2019 끌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선정작이다. (이상훈)

In Brazil, soccer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Brazilians, it is a religion and part of everyday life. During the days before and after the 2018 FIFA World Cup in Brazil, a number of incidents outside the realm of soccer devastated and destroyed the lives of many ordinary Brazilians away from the public eye. This documentary paints an intuitive portrait of different aspects of Brazilian society by interwinding politics and soccer. Recipient of Special Mention at the 2018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and official selection for competition at the 2019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로보 마우로 Lobo Mauro

Contact
ROCINANTE PRODUCOES
rocinante2005@gmail.com



여전히 어제
Only Yesterday

Brazil | 2018 | Fiction | 20'11"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essica Candal Producer Antonio Junior Script Jessica Candal
Cinematographer Maurício Baggio Editor João Menna Barreto
Cast Matheus Moura, KVS, Maicon Douglas, Guilherme Henrique, Felipe Sha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네토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자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꾼다. 청소년기란 무엇보다 선택의 기로라는 점에서 특별하고 중요하다. 이 영화는 청소년기의 익숙함을 넘어 어른이라는 불분명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다.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19 끌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선정작이다. (이상훈)

Neto often stares at cars running down the highway and dreams about his future. One's teenage years are important because they offer a crossroad of choices. This film is the story of a young man who goes beyond the familiarity of adolescence and steps into the obscure unknown world of adulthood. The director's warm gaze towards young people shines throughout. Official selection for competition at the 2019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제시카 칸달 Jessica Candal

Contact
GRAFO AUDIOVISUAL
contato@grafoaudiovisual.com



구아슈마
Guaxuma

France, Brazil | 2018 | Animation, Documentary | 14'16"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Nara Normande Producer Damien Megherbi, Justin Pechberty, Livia de Melo Script Nara Normande Cinematographer Jean-Louis Padis, Maíra Labrudi, Pedro Sotero, Simon Gesrel Editor Eduardo Serrano
Music Normand Roger Sound Normand Roger Cast Nara Normand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자란 두 소녀에 관해 담담하게 읊조리는 목소리는 자신과 그녀의 친구가 함께 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한다. 이 영화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재료인 모래와 서사의 구체적 장소인 바다가 효과적으로 결합되며 관객의 정서를 고양시킨다. 2019 SXSW영화제 애니메이션 단편 부문 수상, 2018 빈터투어단편영화제 청소년상 등 세계의 많은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은 작품이다. (이상훈)

A calm voice narrates the story of two girls growing up near a windy beach, recalling their past experiences. The combination of sand - the main work material - and the sea as the specific backdrop for the narrative effectively enhances our sentiments. This film has received awards at numerous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2019 SXSW Film Festival (Best Animated Short Film Award) and the 2018 Winterthur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Youth Film Award). (Lee Sanghoon)



감독 Director
나라 노르망드 Nara Normande

Contact
LES VALSEURS
liyan@lesvalseurs.com

모퉁이극장은 시민관객들이 영화소비자를 넘어 영상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관객문화응원단체입니다.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중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 있는 관객문화전용관으로 시민들의 영화문화 향유권 확장과 커뮤니티극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커뮤니티비프 프로그램은 물론 시민밀착형 상영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청년교류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관
· 자체 프로그램 운영 외 기간 신청
· 상영관 및 홀, 커뮤니티 룸 공간별 대관 가능(홈페이지 참조)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13, 3층(BNK부산은행 신창동 지점 3층)

문의
Tel. 051-465-1895 Fax. 051-465-1896
cornertheater2016@gmail.com

blog.naver.com/cornertheate
www.facebook.com/thecornertheater
www.instagram.com/corner_theater

서프라이즈! Surprise!

좀 솔직해집시다! [redacted]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끄럽긴요,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과학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죠. 솔직히 단편영화 하나 보는 것보다 그거 한번 하는 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정적이고도 재미난 [redacted]을 주는 이 둘을 동시에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학자적인 안목으로 여섯 편의 단편영화를 엄선했습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에 끈질기게 집중한 강렬한 [redacted]광 영화들입니다. 위트 있는 강렬한 영화, 경쾌한 흐름의 애니메이션의 조합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redacted]를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redacted]합니다. 즐겁게 금기를 넘어서는 영화들이 누군가에겐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redacted]입니다. [redacted]고 차갑고 [redacted]한 이 영화들은 물론 성인만 입장가능합니다.

올해 신설된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는 딱 이런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어는 왜 숨었냐고요? 글쎄… 영화를 보기 전에 내용을 알아버리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니까?! ;-)

심세부

Let's be honest: everybody likes [redacted]. There is no shame in admitting it: it's natural, it's been proven to be good for health, and it's arguably a better use of one's time than watching short films… but what if we combined these two intense and delightful sources of [redacted] together?

If we did, it would manifest as six eruditely-selected, [redacted]-crazed short films with a strong, even obstinate focus on [redacted], [redacted], [redacted] and [redacted]. It would look like a mix of witty, bold fictions and playful, fluid animations - all full of characters [redacted] it, talking about it, or [redacted] about it. It would be both entertaining, boundary-pushing, probably somewhat shocking, but most certainly [redacted]. It would be [redacted] and cool and [redacted], and admission would have to be adults-only…

… and it's exactly what we will be showing you this year as part of this new program!

And why are parts of the texts redacted, you might be wondering? Well… it wouldn't be a "surprise" if we revealed the films that you're going to see, would it? ;-)

Sébastien Simon

18 29일(토) 20:30 시네마테크 | 29(Sat) 20:30 Cinematheque PG
31일(월) 13:00 시네마테크 | 31(Mon) 13:00 Cinematheque



[redacted] 먹어
[redacted]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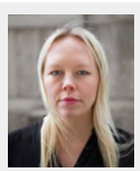
Sweden | 2018 | Fiction | 14'40"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Anette Sidor Producer Jerry Carlsson, Anette Sidor
Script Anette Sidor Cinematographer Marcus Dineen
Editor Anette Sidor, Magnus Eriksson Music Natali Noor
Cast Yandeh Sallah, Martin Schaub, TJ Miansangi, Astrid Plynning, Omeya Simbizi-Lundqvis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 여자가 [redacted] 숍에서 장난으로 [redacted]을 훔친다. 겸손하고도 결연한 자세로 훔친 물건을 착용한 여성은 남자친구를 비롯, 자신의 남자들을 초대해 그 물건을 [redacted]게 한다. 무척 도발적인 방식으로 성역할에 반항하는 주인공들의 행위가 관객들에게도 도발감을 선사하지 않을까. (심세부)

After stealing for fun a [redacted] at a [redacted] shop with her friends, a young woman starts wearing it and, respectfully yet resolutely, invites the guys of her group to [redacted] it - including her boyfriend. What may be too provocative and gender-role-defying for these characters may possibly be so for the audience as well.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아네트 시도르 Anette Sidor

Contact
KURZFILM AGENTUR HAMBURG
sales@shortfilm.com



심비오시스 [redacted]
Simbiosis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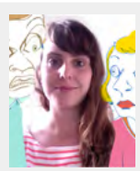
Belgium | 2017 | Animation | 10'08"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Rocío Álvarez Producer William Henne, Delphine Renard
Script Rocío Álvarez Cinematographer Rocío Álvarez
Editor Faustine Cross, Rocío Álvarez Music FLYING CHAIRS, MEMO PIMIENTO
Sound David Nelissen Animation Gwendoline Gamboa, Jeanne Boukraa, Lora D'Addazio, Nicolas Fong, Rocío Álvarez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redacted]가 그저 둘 또는 다수가 공유하는 개인의 [redacted]적 [redacted]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이것은 단세포 생물 출현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수행된 하나의 전쟁이다. 전쟁을 하는 두 그룹은 [redacted]이 필연적인 만큼 상대에 대한 [redacted]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상반된 두 행동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심세부)

[redacted] isn't just a [redacted] [redacted] shared by two (or more) individuals: it is also a war waged for millennia - since the very first unicellular organism! - by two opposite groups that are as irresistibly [redacted] to each other as they are inevitably prone to [redacted] each other. Sometimes both at once!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로시오 앨버레즈 Rocío Álvarez

Contact
THE BELGIAN SHORT FILM AGENCY
info@agenceducourt.be

18 29일(토) 20:30 시네마테크 | 29(Sat) 20:30 Cinematheque PG
31일(월) 13:00 시네마테크 | 31(Mon) 13:00 Cinematheque



[redacted]

Belgium | 2018 | Fiction | 17'43"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Marion Renard Producer Vincent Canart Script Capucine Berthon, Marion Renard Cinematographer Lisa Willame Editor Maïlys Degraeve Music Jérémy Saive, Still Charon, Zipper Double Sound Elie Hanquart Cast Nora Dolmans, Félix Matagne, Manon Delauvaux, Igor Dejaiffe, Adrien de Bias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 여학생이 같은 반 [redacted] 친구와 처음으로 [redacted]를 하게 되는데, [redacted]에 다다른 [redacted]의 순간 남성으로 [redacted]한다. [redacted]를 다룬 이 작품은 타협을 거부하는 강렬하고 [redacted]으로 시작해 난처한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즉 [redacted]에 이를 때마다 [redacted] 몸이 편해지는 건 고사하고, 더이상 [redacted]을 정의하기가 애매해진다. (심세부)

[redacted] into her first [redacted] with a [redacted] classmate, a young woman [redacted] a young man when she [redacted]. Right off, this [redacted] of a short film starts as strong and as uncompromising as they come, with an [redacted] followed by an impossible quandary for the protagonist: how could one assert any sort of [redacted] when one's body keeps [redacted] with each [redacted], let alone manage to feel comfortable with it?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마리온 레나르 Marion Renard

Contact
INSAS
info@insas.be



[redacted]

UK | 2019 | Animation | 5'43"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Chung Chenghsu Producer ROYAL COLLEGE OF ART
Script Chung Chenghsu Editor Chung Chenghsu Music FATHER
Sound FATHE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반어적인 제목에 영상도 기이한 이 애니메이션은 [redacted]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온당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들도 [redacted]와 [redacted]에 대해 궁금해하고, [redacted]를 보고 [redacted]앱을 이용한다. 또한 왕성한 신체 [redacted]를 [redacted]시키기 위해 무던 애를 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심세부)

As visually bizarre and ironically titled as this animated short film can be, it also keeps it fair for people in the [redacted] community: they too are curious about [redacted] and [redacted]; they too watch [redacted] and use [redacted] apps; and they too will [redacted] their physical [redacted] as eagerly, as willingly and as plentifully as everybody!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종 청쉬 Chung Chenghsu

Contact
Chung Chenghsu
chenghsuchung@gmail.com



사라의 [redacted] 고백
Sara's [redacted] Confessions

Norway | 2018 | Fiction | 22'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Emilie Blichfeldt Producer Ole Elverhøi Script Marianne R. Kielland
Cinematographer Vegard Landsverk Editor Gøthe Ellevsøy
Sound Adam Andersson Cast Anne Sofie Wanstrup, Dagny Backer Johnsen, Mattis H. Nyquist, Gorm Grømer, Gisken Armand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품은 내면의 목소리를 상상 이상의 차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드는 작품은 대담하고 경쾌한 영상으로 [redacted] [redacted]에 대한 극도로 재미난 모험을 그린다. 또한 미적 기준을 거부하며 이를 파괴한다. (가이아 무씨아스리, 마리 닐슨 네이라, 심세부)

This film brings the idea of an empowering inner voice to a truly unexpected level! Blending fiction and animation, this is a daring, visually playful, extremely entertaining exploration of [redacted] and the refusal to be defined by undermining standards of beauty. (Gaia Meucci-Astley, Mari Nilsen Neira,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에밀리 블리크펠트 Emilie Blichfeldt

Contact
THE NORWEGIAN FILM SCHOOL
filmskolen@inn.no



[redacted] 쇼
[redacted]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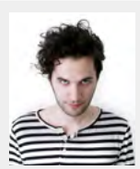
Italy | 2016 | Animation, Experimental | 7'34"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Rino Stefano Tagliaferro Producer Rino Stefano Tagliaferro
Script Rino Stefano Tagliaferro Editor Rino Stefano Tagliaferro
Music Enrico Ascoli Sound Enrico Ascol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품은 닫힌 문 저쪽, [redacted]한 구경꾼들의 [redacted]적 시선 아래에서 벌어지는 [redacted] 가득한 [redacted]와 [redacted] 수 없는 [redacted]의 끊임없는 반복이다. [redacted]고 [redacted]적인 영화는 외설적인 르네상스 회화의 몽상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관객을 몰아넣는다. 더욱 [redacted]하고 [redacted]인 맛의 몽상으로! (심세부)

Carried by a non-stop litany of [redacted] [redacted] and [redacted] of [redacted] happening behind closed doors or under the [redacted] gaze of [redacted] onlookers, this dizzying and hypnotic short film will put you into an animated daydream of [redacted] Renaissance paintings, one more [redacted] and [redacted] than the other! (Sébastien Simon)



감독 Director
리노 스테파노 탈리아피에로
Rino Stefano Tagliaferro

Contact
Rino Stefano Tagliaferro
mail@rinostefanotagliaferro.com

부산 IN Busan IN

'부산 IN'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이 제작한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응원하고자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부산 시민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5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리퀴드아트72시간영화제', '부산시민영화제',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프로젝트텐데이즈' 총 4개의 교육 프로그램 및 영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퀴드아트72시간영화제'는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예술 활동 커뮤니티인 리퀴드 아트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팀을 구성하여 3일 동안 단편영화를 완성한 후 상영 및 시상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리퀴드 아트 네트워크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첫 협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를 통해 완성된 두 편의 영화 〈캡틴〉과 〈키키가 보낸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영화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산시민영화제'는 공모를 통해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선정한 후, 멘토링 과정을 거쳐 제작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후 영화제에서 시민관객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관객상이 선정됩니다. 2019 부산시민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영지〉가 '부산 IN'에 상영됩니다.

'영화의전당 아카데미'는 부산 출신의 영화 예술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영화 예술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화제작워크숍 12기에서 제작된 〈네 번째 여름〉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텐데이즈'는 10일 동안 영화의 기획에서부터 제작, 배급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퍼니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영화 〈태〉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부산 IN' 프로그램은 부산 시민이 주축이 되어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 전반에 참여하여 완성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합니다. '부산 IN'은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열정과 마음을 담은 가장 '부산다운'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부산 시민들의 창작활동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김경연

"Busan IN" is a new program designed to encourage and promote short films created by ordinary citizens of Busan. Five projects produced by Busan citizens last year will be screened. Four education programs and film festival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Liquid Arts 72H Film Festival", "Busan Citizen Filming Festival", "Busan Cinema Center Academy", and "Project 10 Days".

The "Liquid Arts 72H Film Festival" is organized by the Liquid Arts Network, a community of foreigners in Busan. Participants must form teams and complete a short film within 3 days for screening and awards. This event is most meaningful this year as the first collaboration between the Liquid Arts Network and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usan IN" will feature *The Captain* and *Message from Kiki*.

"Busan Citizen Filming Festival" is a project organized by the Busan Filmmakers Association. After short film scenarios are selected through a contest, the winners receive mentoring and funding to produce their films. They are then screened at the film festival and the citizen evaluation committee votes on the recipient of the Audience Award. Its recipient at the 2019 Busan Citizen Filming Festival, *Young Ji: Work Hard*, will be screened in "Busan IN".

"Busan Cinema Center Academy" aims to foster talented film artists from Busan. To that end, this educational program holds various lectures and produces filmmakers every year. We will introduce one of the films produced during its 12th film production workshop, *The 4th Summer*.

Last but not least, "Project 10 Days" is a hands-on education program that lets you experience 10 days of film plann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project is a joint collaboration by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Busan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and Funnycon. We will introduce one of its productions, *Form*.

As you can see, the stars of "Busan IN" are the citizens of Busan who have participated in every aspect of filmmaking, including screenplay, shooting, and editing. "Busan IN" is a truly "Busan-made" project representing the passion of local film-lovers. We hope that it continues to be a meaningful program promoting the creative filmmaking activities of Busan citizens.

Yeona Kim

12 29일(토) 17:3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9(Sat) 17:30 BNK BUSAN BANK Art Cinema
30일(일) 20:00 중극장 | 30(Sun) 20:00 Cinema I GV



영지
Young Ji: Work H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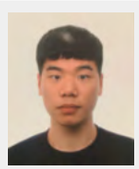
Korea | 2020 | Fiction | 13'37"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문성산 Moon Seongsan Producer 배명환 Bae Myunghwan
Script 문성산 Moon Seongsan Cinematographer 천요환 Chun Yohwan
Editor 정지수 Jung Jisoo Music 황하늘 Hwang Haneul
Sound 황하늘 Hwang Haneul Cast 이수정 Lee Soojung, 이인규 Lee Inkyu, 김우진 Kim Woojin, 김윤영 Kim Yoonyuo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대학원 입시에 불합격한 영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 면접에 불참한 총장의 조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아파트 미화 문제로 부녀회장에게 꾸중을 듣던 경비원은 어질러진 쓰레기 더미에서 영지의 주소를 발견한다. 이 영화는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인간의 이중성을 유머러스하게 꼬집는다. 먹이 사슬처럼 연결된 이들의 관계를 통해, 인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이 영화는 2019 부산시민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김경연)

Youngji's application for graduate school is rejected. On her way to throw out the trash, she learns that the chancellor's nephew got in even though he wasn't even interviewed. Meanwhile, the apartment security guard gets a mouthful from the HOA president regarding apartment beautification. He then finds Youngji's address in the garbage pile. This film uses humor to point out the hypocrisy of people whose attitudes change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or position. They are all connected to one another as though in a food chain, and their relationships accurately criticize our social conflicts. The film received the Audience Award at the 2019 Busan Citizen Filming Festival. (Yeona Kim)



감독 Director
문성산 Moon Seongsan

Contact
문성산 Moon Seongsan
tjdtks200@naver.com



캡틴
The Captain

Korea | 2019 | Fiction | 10'30" | HD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Tim Paugh Producer Eric Plese Script Ryan Estrada
Cinematographer Tim Paugh Editor Tim Paugh Sound Eric Plese
Cast Kerry Maher, Maurice Turne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경찰과 용의자,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테이블 위에는 우산 하나가 올려져 있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두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 효과적인 조명의 활용 그리고 위트 넘치는 대사들을 통해 단조로움을 극복한다. 두 배우의 능숙한 연기와 단편다움이 잘 드러난 이 영화는 리퀴드아트 72시간영화제에서 제작되었다. (김경연)

A policeman and a suspect sit across from each other, and there is an odd tension between them. An umbrella sits atop the table between them, and the policeman begins to question the suspect.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these two actors, the limited setting doesn't seem at all monotonous because of the varying camera angles, effective lighting and witty dialogues. The actors' skillful performances and the film's effectiveness are the highlights of this production from the Liquid Arts 72H Film Festival. (Yeona Kim)



감독 Director
팀 파우 Tim Paugh

Contact
Tim Paugh
tdpaugh@gmail.com

12 29일(토) 17:3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9(Sat) 17:30 BNK BUSAN BANK Art Cinema
30일(일) 20:00 중극장 | 30(Sun) 20:00 Cinema I GV



태
Form

Korea | 2019 | Fiction | 10'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서보금 Seo Bogeum Producer 배한솔 Bae Hansol
Script 서보금 Seo Bogeum Cinematographer 하다현 Ha Dahyun
Editor 정다운 Jung Daun Sound 조윤희 Jo Yunhee Cast 김미라 Kim Mira, 박지수 Park Jisoo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숙은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 온 여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괴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경숙은 결국 옆집을 찾아간다. 그런데 옆집 여자의 모습과 행동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이웃의 의미가 무색해진 현대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영화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프로젝트텐데이즈'를 통해 제작되었다.
(김경연)

Apartment manager Kyungsook is on edge because of her new neighbor. Stressed out by the horrible screams coming from next door, she finally pays her a visit. She notes that something is off about the woman's appearance and behavior. This film stresses the importance of showing an interest in our neighbors, a word that has lost its meaning in our modern society. This was a film produced through the citizen education program "Project 10 Days".
(Yeona Kim)



감독 Director
서보금 Seo Bogeum

Contact
퍼니콘 FUNNYCON
master@funnycon.tv



키키가 보낸 메시지
Message from Kiki

Korea | 2019 | Animation, Fiction | 4'40" | HD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Leslie Dian Williams Producer Jonathan Andrew Hardy
Script Leslie Dian Williams Cinematographer Jonathan Andrew Hardy
Editor Jonathan Andrew Hardy Music Jonathan Andrew Hardy
Sound Jonathan Andrew Hardy, Leslie Dian Williams
Cast Leslie Dian Williams, Jonathan Andrew Hardy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조금 특이한 것에 집착하는 여자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낸 후 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즐긴다. 어느 날 여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못다 한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 리퀴드아트 72시간영화제를 통해 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실제 촬영한 영상과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합성한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익살스러운 상황 설정과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가 매력적인 영화다. (김경연)

A woman becomes obsessed with eccentric items, and enjoys sending their pictures to her boyfriend to see his reaction. One day, she learns that her grandmother passed away, and wants to tell her goodbye. This film is a rotoscope animation that combines actual footage with animation. This charming film with a comic setting and a quick wit was produced at the Liquid Arts 72H Film Festival.
(Yeona Kim)



감독 Director
레슬리 디안 윌리엄스 Leslie Dian Williams

Contact
Leslie Dian Williams
hiimleslieee@gmail.com



네 번째 여름
The 4th Summer

Korea | 2019 | Fiction | 27'20"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양혜랑 Yang Hyerang Producer 배재형 Bae Jaehyeong,
추다영 Chu Dayeong, 박영근 Park Yeonggeun, 김보민 Kim Bomin
Script 양혜랑 Yang Hyerang Cinematographer 강은영 Gang Eunyeong,
이종광 Lee Jonggwang, 전인룡 Jeon Inryong Editor 양혜랑 Yang Hyerang,
차시영 Cha Siyeong Sound 김동환 Kim Donghwan, 이대현 Lee Daehyeon
Cast 홍승이 Hong Seungi, 배재영 Bae Jaeyeong, 박희진 Park Huijin,
박세재 Park Seja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아들이 죽고 난 후 네 번째 여름을 맞이한 수경. 아들 친구인 경오의 출소 하루 전, 수경의 집을 찾아온 형사는 경오에게 가는 것을 만류한다. 하지만 수경은 묵묵히 경오에게 가져갈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사는 것 같은 수경의 일상을 긴 호흡으로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리고 원망과 자책감 따위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인물의 일상과 풍경에 녹아들어 영화 전체를 가득 메운다. 이 영화는 영화의전당 아카데미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김경연)

It is the fourth summer since Sookyung's son died. On the eve of her son's friend Kyungoh's release from prison, a detective visits Sookyung to stop her from going to see him. Sookyung is silent as she begins to make the tofu that she plans to bring to Kyungoh. Though it's summer, Sookyung's life seems to be one long winter day in this film where the characters and scenery are filled with emotions such as resentment and guilt. This film was produced at the Busan Cinema Center Academy. (Yeona Kim)



감독 Director
양혜랑 Yang Hyerang

Contact
양혜랑 Yang Hyerang
ohr9434@naver.com



센트럴파크 특별전 Central Park Films Special

'센트럴파크 특별전'은 단편영화 배급사 '센트럴파크'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센트럴파크가 공동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젊고 열정적인 배급사 중 하나인 센트럴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국내를 비롯한 해외 유수 영화제에 한국 단편영화를 소개해 왔고, 단편영화 배급사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010년 초반에 제작된 배급사의 초창기 작품을 중심으로, '경계 밖의 청소년들'을 주제로 한 네 편의 단편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돌보아야 하는 청소년, 사회제도 밖에 위치해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조차 쉽지 않은 청소년의 모습을 밀도 있게 담아냅니다. 가난, 폭력, 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적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영화 안에서 어른의 존재는 부재하거나 무능력한 대상으로 그려지고, 영화는 이 청소년들에게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불편하고 씁쓸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껴안아 줄 것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급사 센트럴파크가 추구하는 단편영화의 가치와 특색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센트럴파크의 홍성윤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경연

In honor of the 10 years anniversary of short film distributor "Central Park",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nd Central Park joined together to prepare the program, "Central Park Films Special". As one of the youngest and most passionate distributors, Central Park has been introducing Korean short films to leading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since it launched in 2010. It stands firmly as a leader in short film distribution.

The program focuses on the distributor's early productions from 2010, namely, four short films with the theme "teenagers on the outskirts." The films closely depict teenagers who must fend for themselves because they don't have the security of a family, as well as teenagers who can barely live normal lives because they lie outside the social system. Unable to escape poverty, violence, and disability, these teenagers struggle to care for themselves. For that, they seem to be more adult than the adults, and at times suffer ethical conflicts. The adults in the films are either absent or incompetent, unable to provide plausible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teenagers. By sharing such uncomfortable and biting emotions, the films hope that we understand and embrace these youth a little better.

We hope you enjoy these films that convey the characteristics which Central Park Films values in short films. We also express our thanks to president Hong Sungyoon and the staff of Central Park Films for all their help in making this program possible.

Yeona Kim

15 28일(금) 20:00 중극장 | 28(Fri) 20:00 Cinema I GV
29일(토) 15: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9(Sat) 15:00 BNK BUSAN BANK Art Cinema



로니
Ro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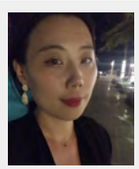
Korea | 2013 | Fiction | 20'53"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혜연 Lee Hyeyeon Producer 전창현 Jeon Changhyun
Script 이혜연 Lee Hyeyeon Cinematographer 양희진 Yang Heejin
Music 서혜윤 Seo Hyeyoon Sound 이재의 Lee Jaeui
Cast 김혜주 Kim Hyeju, 정형렬 Jeong Hyungryeo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소녀 가장인 재은은 생계수단인 자전거 '로니'를 잃어버린다. 신문 배달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자전거를 되찾아야 하는 소녀 앞에 한 소년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한다. 이 영화는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윤리적 잣대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재은의 자전거 '로니'의 고장난 체인은 철걱거리기만 할 뿐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의 씁쓸함과 닮아 있다. (김경연)

Jaeeun is the teen head of a household. One day she loses her bike "Roni", which she desperately needs to make newspaper deliveries. Then a boy comes to her aid. The film is a detailed portrayal of the heavy load that a young girl must bear to make a living, and how it threatens to shake her ethical standards. The broken, clanking chains of "Roni" seem to be a bittersweet symbol of a reality without future. (Yeona Kim)



감독 Director
이혜연 Lee Hyeyeon

Contact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미드나잇 썬
Midnight Sun

Korea | 2013 | Fiction | 23'14"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강지숙 Kang Jisook Producer 윤지혜 Yun Jihye
Script 강지숙 Kang Jisook Cinematographer 김문하 Kim Moonha,
이준학 Lee Junhak Music 신현진 Shin Hyunjin Sound 이인경 Lee Inkyung
Cast 김도진 Kim Dojin, 서예린 Seo Yerin, 나경민 Na Kyungmin,
류경수 Ryu Gyeongsu, 류준열 Ryu Junyeo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 영화는 청각장애인 남매가 각자 다르게 보냈지만, 전혀 다르지 않았던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세상은 늘 반복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생채기를 남긴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에게 태양이 지지 않는 기나긴 밤은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지난한 여정과 같다. 영화는 이러한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 인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의 끈을 놓지 않고 섬세하게 그려낸다. (김경연)

Two siblings with hearing impairments spend a night separately from each other, yet it goes similarly for both of them. Although their silent world is a repetitive routin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m leaves a mark. And to heal these wounds takes time. For them, the long night in which the sun does not set is a strenuous journey to welcome a new morning. Throughout this journey, the film continuously portrays the characters with warmth and detail. (Yeona Kim)



감독 Director
강지숙 Kang Jisook

Contact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15 28일(금) 20:00 중극장 | 28(Fri) 20:00 Cinema I GV
29일(토) 15: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9(Sat) 15:00 BNK BUSAN BANK Art Cinema



선
The Line

Korea | 2013 | Fiction | 26'39"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수진 Kim Soojin Producer 신용식 Shin Yongsik
Script 김수진 Kim Soojin Cinematographer 김주인 Kim Jooin
Music 박현웅 Park Hyunwoong Sound 제민철 Je Minchul
Cast 이명하 Lee Myungha, 최규영 Choi Kyuyoung, 조판수 Cho Pansoo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영화는 '선의'로 시작된 나의 행동이 어느 순간 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적정한 '선'을 넘었을 때의 일을 다룬다. 여자는 선의로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소년을 집으로 들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의 수상쩍은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 여자와 소년 사이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은 증폭된다. 마치 둘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넘을 듯 말 듯 한 '선'의 경계 어디쯤 위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영화는 한정된 공간이 가지는 단절과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강렬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낸다. (김경연)

This film deals with a time when an act of goodwill is repaid with an intrusion of privacy, or crossing of the line. As a good deed, a woman invites a boy who was sitting on her doorsteps into her home. Over time, the boy's suspicious behavior and lies create increasing tension and anxiety between them. Their relationship seems like a perilous tightrope walk, suspended somewhere on the edge of a border line. The film also creates intense suspense by making effective use of the detachment and tension created by limited space. (Yeona Kim)



감독 Director
김수진 Kim Soojin

Contact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수학여행
A Brand New Journey

Korea | 2010 | Fiction | 29'50"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희진 Kim Heejin Producer 양새미 Yang Semi
Script 김희진 Kim Heejin Cinematographer 최민호 Choi Minho
Sound 이주석 Lee Juseok Cast 이지웅 Lee Jiwoong, 장의영 Jang Euiyoung, 손승엽 Son Seungyeop, 김소숙 Kim Sosuk, 정재식 Jeong Jaesik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중학생 병화는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녹즙 배달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하지만 녹즙 가게 사장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수학여행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다. 남들보다 일찍 녹록하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린 채,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다. 영화는 이러한 소년의 모습을 시종일관 차분하게 응시하며, 담담하게 그려낸다. (김경연)

Middle schooler Byunghwa wakes up at the crack of dawn to make juice deliveries and distribute flyers to raise enough money to go on a school excursion. However, the juice company owner gives a ridiculous excuse to not pay him, and he isn't able to make his excursion payment in time. The only thing left for a young boy facing an unkind reality is to keep one eye hidden, and refuse to look at the world with both eyes. The film maintains a calm, serene gaze on the boy. (Yeona Kim)



감독 Director
김희진 Kim Heejin

Contact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어린이 쇼츠

SHORTS FOR KIDS

'어린이 쇼츠' 섹션은 어린이들이 단편영화를 통해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단편영화와 더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단편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꿈과 환상이 가득한 단편영화의 세계로 떠나 볼까요?

Hey, kids! This section is meant for you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short films, to enjoy and share them with your parents, and especially to let you unleash your dreams and imagination. Let's dive into the fantasy of short films together!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친구가 존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심지어 로봇까지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작은 용기'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쇼츠 1'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섯 편의 영화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조금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인도한다면 어떨까요? '어린이 쇼츠 2' 프로그램에서 상영되는 네 편의 영화를 통해, 아이들이 꿈과 상상으로만 그려 온 특별한 순간이 현실로 나타나는, 특별한 모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때로는 그 모험이 동화처럼 신나고 멋진 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과 장애물들이 눈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험심'과 '상상력'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험을 멋지게 그리고 무사히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경연

There are many kinds of friends in our world. Other people can be our friends, but so can animals, plants, and even robots. So what do we need to become good friends? With just a little courage and a considerate heart, you will surely make a great friend.

The five films in the "Shorts for Kids 1" program are about characters with strong personalities building special friendships. They learn that becoming good friends requires work on both sides. You will be able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true friendship.

How would you like to escape ordinary life and have a magical moment? And what if that moment takes you on a journey to a world of adventures? With the four films of the "Shorts for Kids 2" program, let your dreams and imagination come alive in a journey to a world of special adventures. Adventures aren't always full of wonderful fairy tales: sometimes there are also scary things and obstacles to overcome. But curiosity and imagination will lead you to victory and, at the end of the road, you may find that you have grown up a bit.

Yeona Kim

1

G 27일(목) 11:30 시네마테크 | 27(Thu) 11:30 Cinematheque
29일(토) 13: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9(Sat) 13:00 BNK BUSAN BANK Art Cinema
31일(월) 10:00 중극장 | 31(Mon) 10:00 Cinema I



담요
Blanket

Russia | 2020 | Animation | 5'36"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Marina Moshkova Producer Boris Mashkovtsev
Script Marina Moshkova Editor Marina Moshkova
Music Alexey Yakovel Sound Serget Moshkov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추운 북쪽 나라에 사는 심술궂은 북극곰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다. 그 손님은 바로 따뜻한 나라에서 온 불곰이다. 불곰은 자신에게 쌀쌀맞은 북극곰과 친해지기 위해 달콤한 꿀을 나눠 먹기도 하고, 빙판에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자신의 담요를 기꺼이 내어주기도 한다. 이처럼 영화는 성격도 사는 지역도 서로 다른 북극곰과 불곰이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김경연)

A brown bear from a warm land pays an unexpected visit to a grumpy polar bear living at the cold North Pole. Trying to become friends, the brown bear shares his honey with the polar bear, goes sled riding on ice, and even hands over his blanket. Different personalities and different habitats aside, the brown bear and the polar bear slowly become friends. (Yeona Kim)



감독 Director
마리나 모시코바 Marina Moshkova

Contact
Marina Moshkova
mosh.marina@gmail.com



꽉 찬 마음
Stuf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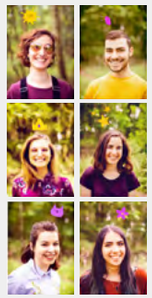
France | 2018 | Animation | 6'34"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Élise Simoulin, Édouard Heutte, Clotilde Bonnotte, Anna Komaromi, Marisa Di Vora Peixoto, Helena Bastioni Producer Philippe Meis
Script Élise Simoulin Editor Élise Simoulin Music Romain Camiolo
Sound Hector Bon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고양이는 화가 나면 몸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어느 날 고양이는 숲 속에서 우연히 만난 기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린의 도움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영화는 고양이와 기린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 곁에서 도움을 준다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경연)

A cat finds it difficult to control his emotions. When he gets angry, a monster living inside him spews out. One day he meets a giraffe in the forest, who helps him to change little by little as they spend time together. As the cat and the giraffe build their friendship, we learn that problems are easier to solve with someone's help than by ourselves. (Yeona Kim)



감독 Director
엘리즈 시물랭, 에두아르 외트, 클로틸드 본노트, 안나 코마로미, 머리사 디 보라 페이쇼투, 헬레나 바스티오니
Élise Simoulin, Édouard Heutte, Clotilde Bonnotte, Anna Komaromi, Marisa Di Vora Peixoto, Helena Bastioni

Contact
JE REGARDE
contact@jeregarde.com



토비와 터보버스 한국어 더빙
Tobi and the Turbobus

Germany | 2020 | Animation | 7'30"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Verena Fels, Marc Angele Producer Verena Fels Script Verena Fels
Cinematographer Marc Angele Editor Verena Fels Music Alexander Wolf David
Sound Christian Heck Animation Chirstofer Stodt, Fynn Grosse-Bleie, Marcel Unkauf, Noel Winzen, Tim Nendz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은 늑대 토비가 타는 터보 버스에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버스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토비는 단짝 친구 프레디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과연 토비는 자리와 우정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영화는 기발하고 코믹한 상황을 설정하여, 내가 친구를 생각하는 만큼 친구가 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이다. (김경연)

Young little wolf Tobi rides the turbobus with a special rule: if you don't sit down right away, you will be flown out the bus. Tobi tries his best to save a seat for his best friend Freddy, but it isn't easy. Will he succeed in saving both his friendship and the seat? In this brilliant and comical film, we learn that we don't have to be upset if our friends don't think about us as much as we think of them. There is always room to make new friends. (Yeona Kim)



감독 Director
베레나 펠츠, 마크 안젤
Verena Fels, Marc Angele

Contact
FELSFILMS
contact@felsfilms.de



기린의 자전거
The Giraffe's Bicycle

Sweden | 2019 | Animation | 6'58"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Lasse Persson Producer Lisa Tulin Script Lisa Tulin
Cinematographer Lasse Persson Editor Lasse Persson Music Magnus Dahlberg
Sound Olle Tannergård Cast Pytte Ravn, Hans Hägerström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새 자전거를 갖게 된 기린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한다. 기린은 친구인 원숭이의 도움을 받아보지만 혼자 자전거를 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원숭이는 기린의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며 곡예까지 선보인다. 이 모습을 지켜본 기린은 원숭이에게 질투를 느끼고 심통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친구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김경연)

A giraffe tries to ride his new bike, but keeps falling down. He asks his friend the monkey for help, but it is still hard. Even worse, he gets mad and jealous as he watches the monkey riding his bike with ease, even performing acrobatics on it. *The Giraffe's Bicycle* takes a common situation that can occur between friends, and shows how they can resolve their conflict by recognizing each other's strengths. (Yeona Kim)



감독 Director
라세 페르슨 Lasse Persson

Contact
Lasse Persson
seflasse@tele2.se

G 27일(목) 11:30 시네마테크 | 27(Thu) 11:30 Cinematheque
29일(토) 13: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9(Sat) 13:00 BNK BUSAN BANK Art Cinema
31일(월) 10:00 중극장 | 31(Mon) 10:00 Cinema I



로봇과 고래
Robot & the Whale

Sweden | 2018 | Animation | 6'30" | DCP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Jonas Forsman Producer Nima Yousefi Script Jonas Forsman
Editor Jonas Forsman Music Eirik Røland Sound Jakob Oldenbur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인간들이 모두 떠나버린 지구에 남은 로봇 로보는 단짝인 반조와 산책을 하던 중 해변으로 떠밀려온 커다란 고래를 발견하게 된다. 고래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고래를 바다로 옮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로보는 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만 하는데…. 과연 로보는 고래를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로봇과 고래〉는 위험에 빠진 친구를 돕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 그것을 이겨 내려는 용기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연)

Robots Robo and Banjo are left on planet Earth after all the humans are gone. One day, they meet a big whale that is stranded on the beach. To save the whale, Robo must move her into the ocean, but that is no easy task considering how big she is. Not only that, but Robo must also overcome his fear of water. Can Robo safely return the whale into the ocean? *Robot & the Whale* shows that if you must overcome your fears to help a friend in danger, just having the courage to try can make a big difference. (Yeona Kim)



감독 Director
요나스 포스만 Jonas Forsman

Contact
SWEDISH FILM INSTITUTE
registrator@filminstitutet.se



2

G 29일(토) 10:30 시네마테크 | 29(Sat) 10:30 Cinematheque
30일(일) 13: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30(Sun) 13:00 BNK BUSAN BANK Art Cinema
31일(월) 12:30 소극장 | 31(Mon) 12:30 Cinema II



달의 아이들
Moon Children

Korea | 2019 | Animation | 8'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김다솜 Kim Dasom Producer 김다솜 Kim Dasom
Script 김다솜 Kim Dasom Editor 윤운걸 Yoon Ungeol
Music 가이아 옛 사운드 그룹 GAÏA AT SOUNDGROOVES MUSIC STUDIO
Sound 김다솜 Kim Dasom, 서울애니메이션센터 SBA Cast 김수영 Kim Suyong,
김현우 Kim Hyunwoo, 김지은 Kim Jieun, 신원규 Shin Wonkyu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몸에서 돌이 자라는 소년과 햇빛 알레르기 증세를 가진 소녀. 두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햇빛이 쨍한 낮에 뛰어놀지 못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놀이터에서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달의 아이들'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하는 밤의 공간에서 우정을 나누는 두 아이를 통해, 동화처럼 순수하고 꿈처럼 환상적인 모험의 순간을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들과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경연)

A boy who has stones growing in his body and a girl with a sunlight allergy. These "moon children" can't run around under the sun like other children - only in a playground covered in darkness. But their friendship shines brighter than any sun. Through them, we can enjoy a moment of fantastic adventure and fairy tale innocence as we learn that being different is not weird, but just a little special. (Yeona Kim)



감독 Director
김다솜 Kim Dasom

Contact
씨앗 ANISEED
kaniseed@kiafa.org



테오도르와 마법의 붓
Drawn to Trouble

Norway | 2017 | Animation, Fiction | 17'07"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im S. Hansen Producer Merete Korsberg Script Endre Lund Eriksen
Cinematographer Torkel Riise Svenson Editor Karen Gravås
Music Raymond Enoksen Sound Andreas Wangsbro, Rune Hansen
Cast Sigurd Heiene Krogh, Alina Michelle Wilhelmsen,
Gabriel Hasani Holland-Nell, Trond Peter Stamsø Munch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테오도르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브레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누나 빌야의 도움을 받아 브레머로부터 도망치던 테오도르는 우연히 한 예술가의 집에 숨게 된다. 테오도르와 빌야는 예술가의 집에서 아주 특별한 마법의 붓을 발견하고, 그 붓을 이용해 브레머를 혼내 줄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붓을 이용해 공룡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어 공룡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톡톡 튀는 영화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이 영화를 통해 흥미진진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연)

Theodor is bullied by Bremer at school. One day, he escapes from Bremer with the help of his sister Villja and they run inside an artist's house to hide. In the house, they discover a special magic brush, and come up with an idea to get back at Bremer. They decide to use the magic brush to draw a dinosaur that comes to life. This film is brimming with imagination that will provide you with a fascinating experience. (Yeona Kim)



감독 Director
짐 S. 한센 Jim S. Hansen

Contact
FABELFJORD
merete@fabelfjord.no

G 29일(토) 10:30 시네마테크 | 29(Sat) 10:30 Cinematheque
30일(일) 13: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30(Sun) 13:00 BNK BUSAN BANK Art Cinema
31일(월) 12:30 소극장 | 31(Mon) 12:30 Cinema II



포스트 잇!
Post It!

Korea | 2019 | Fiction | 14'03"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이동은 Lee Dongeun Producer 한승상 Han Seungsang
Script 이동은 Lee Dongeun Cinematographer 이우현 Lee Woohyun
Editor 최현숙 Choi Hyunsook Music 도재명 Doe Jaemyung
Sound 이주석 Lee Jooseok Cast 유나 Yu Na, 홍제이 Hong Jey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두 자매는 엄마가 냉장고 앞에 붙여 둔 포스트잇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한다. 만약 포스트잇에 갖고 싶은 무언가를 쓰고, 어딘가에 그것을 붙이면 진짜로 이루어질까? 두 자매는 포스트잇에 간절함을 담아 원하는 것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순수한 두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날지도 모른다. (김경연)

When a mother leaves her two young daughters alone at home for a while, their curiosity is roused by a Post-it that she left on the fridge. If you write down what you want to have on a Post-it and post it somewhere, will your wish really come true? The two sisters begin to write down a list of things they want in earnest. Who knows? Such a miracle may just come true in their innocent world. (Yeona Kim)



감독 Director
이동은 Lee Dongeun

Contact
이동은 Lee Dongeun
ed.lee137@gmail.com



에이코
Aye Ko

Myanmar | 2019 | Fiction | 18'17"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Daniel Fahn Schoffman Producer David Israeli, Pyae Pyae, Tin Lay Khaing Script Daniel Fahn Schoffman
Cinematographer Mg Mg Tha Myint Editor Daniel Fahn Schoffman
Music Aung Soe Min Sound Dan Ben Haim Cast Nan Khin Min Myat Noe, Ko Min Htay, Salai Kyaw Min, Aung Pyae Sha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미얀마의 어느 마을, 12살 에이코와 아빠는 언니의 결혼식에 필요한 염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염소를 놓친 에이코는 염소를 뒤쫓다가 엉뚱한 버스를 타게 되고, 일은 점점 꼬여간다. 에이코가 염소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가기 위해선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 끝에서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한 에이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에이코가 염소를 사수하기 위한 과정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려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경연)

In a small village in Myanmar, 12-year-old Aye Ko and her dad are on their way home with a goat for her sister's wedding. The goat escapes while her father is away for a minute and Aye Ko runs after it. She accidentally gets on the wrong bus and things keep getting worse. Obstacle after obstacle await on her journey to bring the goat back home. In the end, we will meet an older and wiser Aye Ko. The film adds comedy to Aye Ko's dangerous endeavors to capture the goat, but also conveys a strong message. (Yeona Kim)



감독 Director
다니엘 판 스코프만 Daniel Fahn Schoffman

Contact
Daniel Fahn Schoffman
danischoffman@gmail.com

다함께 BISFF
BISFF TOGETHER

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 관객리뷰단 Audience Critics | 37초 UCC 공모전 SHORT TIME | 이벤트&기념품 EVENT & SOUVENIR

BISFF 토크: 듀엣

'BISFF 토크: 듀엣'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과 영화 세계를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토론과 더불어 관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마스터 클래스와는 다르게 창작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물론 작품과 영화 창작에 대한 창작자 간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두 감독의 창작의 경험과 작품 설명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20 BISFF 토크: 듀엣'에서는 올해 주빈국인 벨기에의 쿤 반 산데 감독과 '포커스 온 브라질'에 작품이 소개된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감독이 초청되었습니다. 영화 창작에 관한 두 예술가의 심도 있는 교류의 장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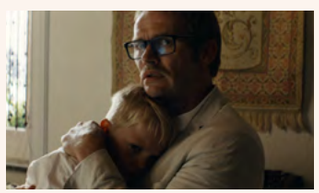
This program brings together two filmmakers from different countries who will introduce theirs works ask questions about each other's cinematic world and engage in an in-depth discussion before inviting the audience to participate. Unlike most other masterclasses, the program consists of vivid testimonies from the two directors, not to mention a discussion about their works and creative practices. The two participating directors will explain their works and share their creative experiences as well as future plans. We have invited Koen Van Sande from Belgium, this year's Guest Country, and João Paulo Miranda Maria from Brazil featured in the "Focus on Brazil" program. We look forward to witnessing the two artists' exchange of ideas about filmmaking.

일시 2020년 8월 30일(일) 20:00
진행 온라인 화상회의
게스트 쿤 반 산데(영화감독)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영화감독)

Date & Time August 30(Sun) 20:00
Venue Online meeting
Guests Koen Van Sande (Filmmaker)
João Paulo Miranda Maria (Filmmaker)

작품 소개 Films Information

쿤 반 산데
Koen Van Sa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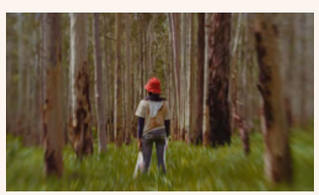


감금
Lockdown

Belgium | 2017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Sub

* 자세한 작품정보는 9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ilm information on page 95.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João Paulo Miranda Ma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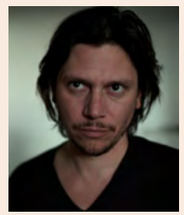
개미 퇴치제
Ant Killers

France, Brazil | 2017 | Fiction | 12'38" | DCP | Color | English Sub

* 자세한 작품정보는 13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ilm information on page 135.

BISFF Talk: Duet

게스트 Guests



쿤 반 산데 Koen Van Sande

쿤 반 산데는 영화감독, 촬영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등 영화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벨기에 감독이다. 첫 번째 영화인 〈WES〉(1998)을 비롯해서 〈리서치〉(2014), 〈크랙스〉(2015), 〈에브리 세컨드 새터데이〉(2016), 〈감금〉(2016) 등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하였다. 브뤼셀에 기반을 둔 그는 TV 분야에서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16+〉와 〈필 프리스코의 납치〉의 여러 에피소드를 연출했다.

Koen Van Sande is a director from Belgium with an extensive filmmaking experience; he has worked as producer, cinematographer, and scriptwriter. He has directed a number of short films, including *WES* (1998), *Research* (2014), *Cracks* (2015), *Every Second Saturday* (2016), and *Lockdown* (2016). Based in Brussels, Koen Van Sande also works actively in TV. He has directed several episodes of *16+* and *The Kidnapping of Phil Frisco*.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João Paulo Miranda Maria

1982년 상파울루주에서 태어난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는 2004년 에스타시오데사대학에서 영화 학위를, 이후 캄피나스대학에서 멀티미디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피라시카파감리교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또한 브라질 영화촬영협회 회원이며 영화 연구 및 실무 그룹인 키노 올로의 창립자이자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2014년 〈악마의 이동〉을 시작으로 〈커맨드 액션〉(2015), 〈악마와 함께 춤을 춘 소녀〉(2016), 〈개미 퇴치제〉(2017) 등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João Paulo Miranda was born on the inland side of São Paulo state in 1982. 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Cinema in 2004 from Estacio de Sá College (Rio de Janeiro). He holds a Master's degree in Multimedia from the University of Campinas. A professor at the Methodist University of Piracicaba (SP), he is also a member of the Brazilian Association of Cinematography and the founder and coordinator of the research and film practice group Kino-olho. He has directed a number of short films, including *Ida do Diabo* (2014), *Command Action* (2015), *The Girl who Danced with the Devil* (2016), and *Ant Killers* (2017).

※ BISFF 토크: 듀엣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진행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bisf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ISFF Talk: Duet will be held online, and details on how to proceed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stival (www.bisff.org).

라운드테이블

1. 단편영화 마켓의 역할과 가치

일시 2020년 8월 28일(금) 20:00-21:30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영화제는 상영, 시상 그리고 레드 카펫만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영화 창작자들에게 영화제는 업계에서 인맥을 쌓고 새 영화 프로젝트를 위해 로비를 하고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영화제들은 영화 마켓을 만들어 게스트들에게 가능한 많은 네트워킹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합니다. 칸, 베를린 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 이러한 영화 마켓이 장편영화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단편영화 마켓이 존재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단편영화 산업이 더 많은 단편영화 마켓을 활성화할 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을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단편영화 제작지원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20년 8월 29일(토) 11:00-12:30
방법 온라인 라이브

한국의 영화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 온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2020년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프랑스 및 한국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단편영화 제작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편영화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모든 라운드테이블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진행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bisf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oundtable

1. The Role and Value of Short Film Markets

Date August 28(Fri) 20:00-21:30
Venue online meeting

Film festivals aren't only about screenings, awards and red carpets. For filmmakers, they also represent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 connections, to lobby for their next projects and, generally, to meet and converse with peers. Some festivals even make sure to provide their guests with as many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as possible by establishing film markets. While these platforms may seem to make more sense for feature film festivals such as Cannes, Berlin or Busan, several short film markets also exist and thrive. But is the global short film industry profitable enough to justify the creation of more short film markets?

2.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hort Film Production Support

Date August 29(Sat) 11:00-12:30
Venue live broadcast

In 2020, BISFF launched its 'Short Film Project' as we felt the need to provide an extra opportunity for filmmakers in Korea to find funding for their projects. By focusing on case studies from Korea and France, we want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and the various aspects of production support for short films, and to conduct an in-depth discussion on its possible prospects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 All roundtables will be held online, and details on how to proceed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stival (www.bisff.org).

관객리뷰단
Audience Critics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영화를 국내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기회!
'관객리뷰단'은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단편영화를 미리 보고, 직접 쓴 리뷰를 다양한 영화제 홍보 채널을 통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관객리뷰단'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짧은(단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unique chance to watch BISFF films before everyone!
"Audience Critics" program invites audience members to watch in advance the short films selected at BISFF and then to introduce them online (via the festival website and social media) by writing reviews. This program is set to continue next year. Please share your short stories with us!

2020 관객리뷰단			
금광진	김대환	김지원	남지현
배민경	선민우	성유경	안소정
안은아	양지민	오준일	유수미
유수민	이나래	이수연	이준혁
전광현	정서연	정혜진	

2020 Audience Critics			
Kum Kwangjin	Kim Daehwan	Kim Jiwon	Nam Jihyun
Bae Minkyung	Sun Minwoo	Sung Youkyung	An Sojeong
An Euna	Yang Jimin	Oh Junil	Rue Sumi
Yoo Sumin	Lee Narae	Lee Suyeon	Lee Junhyeok
Jun Kwanghyun	Jeong Seoyeon	Jung Hyejin	

제공사항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페스티벌 배지 제공

Benefits
A festival badge of the 37th BISFF

리뷰 보러가기 Reviews
www.bisff.org

37초 UCC 공모전 "SHORT TIME"
37-sec UCC Contest "SHORT TIME"

누구나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는 37초 UCC 공모전 "SHORT TIME"
'SHORT TIME'은 자신만의 시각을 담은 영상 제작 공모전입니다. 올해 영화제를 설명하는 '벨기에, 부산, IN(안), 실험'을 주제로 37초의 짧은 영상을 만드는 이 공모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심사를 거친 수상작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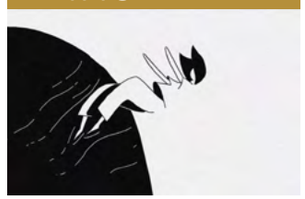
"SHORT TIME", a 37-second UCC contest where anyone can be a star
"SHORT TIME" is a video producing contest. Many citizens have entered this year's contest to create a short 37-second video on the themes: "Belgium, Busan, IN, Experiment." You can watch the winning video on the official BISFF YouTube channel.

대상 Best Pr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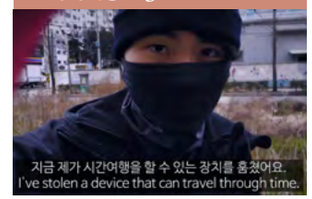
〈Tremendous〉 *Tremendous*
조하연 Jo Hayeon

최우수상 Second Pr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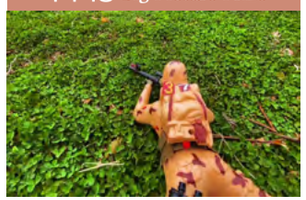
〈Infinity〉 *Infinity*
김효정, 정다윤
Kim Hyojeong, Chung Dayoon

빅픽처상 Big Picture Pr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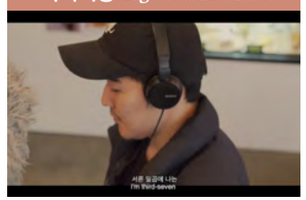
〈37Stuck38〉 *37Stuck38*
신명찬 Shin Myeongchan

빅픽처상 Big Picture Prize



〈부산상륙작전〉 *Busan Landing Operation*
정재훈 Jeoung Jaehun

빅픽처상 Big Picture Prize



〈서른일곱〉 *37*
박현수 Park Hyunsoo

참가상 Participation Award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Award for all participants.

이벤트 & 기념품
EVENT & SOUVENIR

운영 시간

- **일시** 8월 27일(목) – 30일(일) 11:00~19:00
  8월 31일(월) 11:00~15:00
  ※운영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소**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6층 이벤트&기념품

OPENING HOURS

- **Dates & Times** August 27 (Thu) - 30 (Sun) 11:00~19:00
  August 31 (Mon) 11:00~15:00
  ※Opening hour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Venue** Busan Cinema Center Cinemountain 6F
  EVENT & SOUVENIR

기념품 SOUVENIR



❶ 파우치
Pouch
₩5,500



❷ 핀버튼
Pin-back buttons
₩1,500



❸ 키링
Keyring
₩4,500

BISFF SET



+



+



~~₩11,500~~
→ ₩10,000

※ 페스티벌 배지 소지 시 품목 당 500원 할인
※ Receive a ₩500 discount per item by showing your festival badge

이벤트 EVENT

1 EVENT

BISFF의 BFF(베프)가 되어주세요!

팔로우 또는 해시태그 업로드를 통해 방문 인증 및 후기를 올리면 이벤트 부스에서 확인 후 선물을 드려요.

①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우**
② **개인 SNS에 방문 인증 게시글 업로드**
#BISFF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e a BFF of BISFF

Follow us or upload our hashtag to show you've checked in or written a review, and receive a gift at the event booth.

① **Follow our official Facebook and Instagram pages**
② **Include our hashtag when sharing reviews on your personal SNS page**
#BISFF #busaninternationalshortfilmfestival

facebook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isff1980 Instagram @busanshortfilmfest

2 EVENT

티켓 인증! 선물 뽑기 게임

올해 영화제 티켓을 이벤트 부스에 들고 오면 선물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당일 티켓에 한해 가능하며, 티켓을 많이 모아올수록 당첨확률 UP!

Pick up a Gift

Bring your festival ticket to the event booth to join our gift raffle. We will only accept tickets for the day. Bring more tickets to UP your chances of winning!

3 EVENT

산타 '비볼이'를 찾아라!

상영관 곳곳에 숨은 '비볼이'를 찾아 이벤트 부스로 가져오면 비볼이가 들고 있는 선물을 드려요.
※ '비볼이'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자원활동가 '비바'의 마스코트입니다.

Finding Santa Bivol!

Find "Bivol" hiding throughout the theater and bring it to the event booth to receive a gift.
※ "Bivol" is the mascot of the "BIVA" (BISFF volunteers).



비볼이 Bivol

4 EVENT

관객 설문조사 이벤트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 이벤트 부스에서 확인 완료 페이지를 보여주면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Audience Survey Event

Fill out the online survey and bring the completion page to the event booth to receive a small gift.

상영본 제공처 Print Source

Albin Wildner
a.wildner@gmx.at

AMC FACTORY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amcfactory@naver.com

ANISEED 씨앗
kaniseed@kiafa.org

APARTE FILM
office@apartefilm.net

APSARA FILMS
contact@apsarafilms.fr

AUG&OHR MEDIEN
film@augohr.de

AUTOUR DE MINUIT
annabel@autourdeminuit.com

BLACK ROOSTER STUDIO
office@blackrooster.rs

Bo Hanxiong
bohanxiong23@gmail.com

Breann Smordin
breann@deigratiapictures.com

CENTRAL PARK FILMS 센트럴파크
centralpark.co@gmail.com

Choi Yeonju 최연주
joo04182@naver.com

Chulayarnnon Siriphol
csiriphol@gmail.com

Chung Chenghsu
chenghsuchung@gmail.com

CINEMA CAIPIRA
jpmirandamaria82@gmail.com

CINEMATHEQUE ROYALE
access@cinematek.be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DALTON DISTRIBUTION
info@fonk.be

Daniel Fahn Schoffman
danischoffman@gmail.com

David Dufresne
dufresne@davduf.net

DON QUICHOTTE FILMS
quentin.deleau@unifrance.org

FABELFJORD
merete@fabelfjord.no

FELSFILMS
contact@felsfilms.de

FILM DABIN 필름다빈
film_dabin@daum.net

FILM UNIVERSITY
BABELSBERG KONRAD WOLF
c.marx@filmuniversitaet.de

Flo Van Deuren
vandeurenflo@gmail.com

Forest Ian Etsler
forest.ian.etsler@gmail.com

FRESH WAV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fo@freshwave.hk

FUNNYCON 퍼니콘
master@funnycon.tv

GRAFO AUDIOVISUAL
contato@grafoaudiovisual.com

GSARA ASBL
sandra.demal@disc-asbl.be

Guy Sherwin
guy.k.sherwin@googlemail.com

H264 DISTRIBUTION
info@h264distribution.com

Hwang Jihye 황지혜
penthouse_cloud@naver.com

IJSWATER FILMS
jose@ijswater.nl

INDEKS FILM STUDIO
office@studioindeks.pl

INDIESTORY INC. (주)인디스토리
indiestory@indiestory.com

INSAS
info@insas.be

INTERFILM BERLIN
MANAGEMENT GMBH
cord.d@interfilm.de

Jason Wen
jasonjwen@gmail.com

JE REGARDE
contact@jeregarde.com

Jeon Sojin 전소진
vj4330@naver.com

Jeon Soyeong 전소영
deyimanzou@gmail.com

Jeremiah Estela Magoncia
jemagoncia@naver.com

Jo Wooyeon 조우연
utyou@naver.com

Joo Mingyung 주민경
f999x7@gmail.com

Jung InJae 정인재
wjddlswo45@naver.com

KAFA 한국영화아카데미
shinsk@kofic.or.kr

KAIHO REPUBLIC
etunimi@kaihorepublic.com

Kang Sangmuk 강상묵
bandi8332@gmail.com

KAPITEIN KORT
info@kapiteinmedia.nl

K'ARTS MEDIA CONTENTS CENTER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knuadis@gmail.com

Ken Jacobs
nervousken@aol.com

Kim Dahye 김다혜
cmckma@naver.com

Kim Junhyeok 김준혁
rlawnsgur504@naver.com

Kim Seunghee 김승희
kshee140831@gmail.com

Koen Van Sande
koen@cartouche.tv

KULIK PRODUCTION
productionkulik@gmail.com

KURZFILM AGENTUR HAMBURG
sales@shortfilm.com

Lasse Persson
seflasse@tele2.se

LATENITE FILMS
producers@latenitefilms.com

LE SCARABEE ASBL
osmolders@gmail.com

Lee Changmin 이창민
filmanamnesis@gmail.com

Lee Dongeun 이동은
ed.lee137@gmail.com

LES VALSEURS
liyan@lesvalseurs.com

Leslie Dian Williams
hiimleslieee@gmail.com

LETTERBOX FILMS LTD
mirco.valenza@gmail.com

LIGHTS ON
team@lightsonfilm.org

Maja Novakovi
milemicamalimjau@yahoo.com

MALLIA FILMS
mallia@malliafilms.com

Marina Moshkova
mosh.marina@gmail.com

MEDIADIFFUSION
diffusion@iad-arts.be

MELNITSA ANIMATION STUDIO
office@melnitsa.com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Moon Seongsan 문성산
tjdtks200@naver.com

Muhammed Furkan Da bilek
m.furkandasbilek@gmail.com

NASSER ZAMIRI PRODUCTION
nasserzamiri.director@gmail.com

OLDWHALE 올드웨일
oldwhale@naver.com

ORIGINE FILMS
festivals@originefilms.fr

Pedroli Domenico Singha
domenico.pedroli@gmail.com

PONTE PRODUTORAS
doraa.amorim@gmail.com

POST FIN 포스트핀
postfin@postfin.co.kr

RAINYDAYS PICTURES 호우주의보
rainydayspictures@gmail.com

Riani S
rianisinggih@gmail.com

Rino Stefano Tagliaferro
mail@rinostefanotagliafierro.com

Rishi Chandna
fishychandna@gmail.com

ROCINANTE PRODUCOES
rocinante2005@gmail.com

Ryu Minju 류민주
roonajoo@naver.com

SALAUD MORISSET
zoe@salaudmorisset.com

Satrio Haryanto
satrio.haryanto.work@gmail.com

SEOUL INTERNATIONAL PRIDE FILM FESTIVAL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technique@sipff.kr

SHORTCUTS
festival@shortcuts.pro

SOLAB PICTURES
sarah.gabay@solab.fr

SUDU CONNEXION
festival@sudu.film

SWEDISH FILM INSTITUTE
registrator@filminstitutet.se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ptsfestival@gmail.com

TELL ME THE STORY
contact@tellmethestory.ch

THE BELGIAN SHORT FILM
AGENCY
info@agenceducourt.be

THE NORWEGIAN FILM SCHOOL
filmskolen@inn.no

Tim Paugh
tdpaugh@gmail.com

TRAVELLING DISTRIBUTION
info@travellingdistribution.com

Valerie Mabelle
valeriemabelle64@gmail.com

Vuong Nguyen Hanh
vuongnguyenhanh1997@gmail.com

Yang Hyerang 양혜랑
ohr9434@naver.com

Yoon Haesung 윤혜성
hazellover@naver.com

Zgjim Terziqi
zgjim.t@gmail.com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yasmin.joerg@zhdk.ch

제목별 작품 색인 Index of Films

2050 65
감금 95, 158
강가에서 71
강속의 침묵 53
개미 퇴치제 135, 158
거울을 든 사람 122
고잉 마이 홈 76
고집 111
구아슈마 137
그곳에 가면 88
그의 기억 128
근대성의 신화 115
기린의 자전거 153
꽉 찬 마음 152
끈 109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 98
나의 새라씨 77
나의 행성 96
내가 그리웠니 77
네 번째 여름 145
눈치돌기 78
니자르 62
다다-다타 126
다시 한번 55
달의 아이들 155
담요 152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67
당직 63
대나무 101
대리시험 80
데이, 데이 128
독버섯 67
들숨 54
디어 엘리펀트 82
레오 75
령희 83
로니 147
로봇과 고래 154
르 15/8 99
리부트 63
마티가 보낸 사랑 56
명령 115
모자이크 조각 69
미뇽 64
미드나잇 썬 147
미처 하지 못한 인사 110
민병대 70
반자연주의 112
밤이 오면 60
밥상에서 울지마라 69
방 98
밴 62
베를린 화장장 55
부둣가의 남자 61
브루클린 공원 57
비가 내려도 축구 136
비라고 54
빗물: 표상과 의지 114
사라의 완벽한 고백 141
사랑스러운 140
사원증 45, 83
살롱 68
삶 111
상처 주는 말 127
상팔자 76
선 148
세우타의 관문 70
세컨드 홈 108
수학여행 148
숨 109
슈퍼 히어로가 되긴 아직 일러 58
스네일 맨 82
스위치 140
스윙게라 133
스타렉스 78
스프라우트 107
심비오시스 카널 139
아담 68
아름다움 110
아버지 59
아브락사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88
아빠와 딸 60
아이 죽이기 65
악마와 함께 춤을 춘 소녀 135
어머니와 화가 74
어쩌다 마주친 그대 127
에그 132
에이코 156
여고생의 기묘한 자율학습 80
여름이 끝날 무렵 107
여전히 어제 136
열두 살의 여름 52
엿 먹어 139
영지 143
예언자 132
올라 66
와일드 익스텐션 121
우리 셋 101
우리들의 땅 102
우주를 향하여 56
워드의 헤나파티 58
의건 106
일몰 61
일시 정지로 이끄는 영화 123
잃어버린 시간 113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 99
작은 영혼 66
재앙 112
정신 차려 53
조립 79
존 89
존 윅: 콤피튬 127
좀비들 102
주근깨 81
집에 간 이후 89
찌르개 81
천 개의 돛 59
청년 고호석 90
추레라맨 90
침묵 114
캡틴 143
케플러 - 452b 64
키키가 보낸 메시지 144
태 144
테오도르와 마법의 붓 155
토비와 터보버스 153
툰그루스 44, 131
파테르 75
페이퍼 랜드스케이프 #1 122
포세일 79
포스트 잇! 156
포트 맥머니 125
표류 57
푸른 경계 52
프리즌 밸리 125
플롭 106
필름 워크 120
핍 쇼 141
한 해의 끝 131
혁명의 역사 71
호랑이와 소 74
황금 성인전 43, 96
휴가 95
흡집 128

2050 65
The 4th Summer 145
Abraxas 88
Adam 68
Adorable 140
After Summer 107
AKA 5JO 77
Alien 83
Amanita 67
And Yet We're Not Super Heroes 58
Ant Killers 135, 158
Antinatural 112
Aranga 112
As the Rock Grow 111
Assembly 79
At a Riverside 71
August 15 99
Aye Ko 156
Bab Sebta 70
Bamboe 101
Being Rain: Representation and Will 114
Bizarre Research of a High School Girl 80
Blanket 152
Blow Up My Town 98
Blue Frontier 52
A Brand New Journey 148
Breathe 109
Brooklyn Park 57
The Captain 143
Dada-Data 126
Daughter 60
Day, Day 128
Dear Elephant 82
Destiny 127
Dogwatch 63
Drawn to Trouble 155
Drifting 57
Egg 132
Empty 76
Euigon 106
The Face of Beauty 110
Father 59
Film Walk 120
Flop 106
For Sale 79
Form 144
Fort McMoney 125
Freckles 81
From Matti with Love 56
Fuck You 139
The Giraffe's Bicycle 153
The Girl who Danced with the Devil 135
Going My Home 76
The Golden Legend 43, 96
Guaxuma 137
He Can't Live without Cosmos 56
His Memory 128
History of the Revolution 71
Holiday 95
I was Still There When You Left Me 67
ID Card 45, 83
If You Go There 88
Inhale 54
The Insect Man 78
John Wick: Compitum 127
The Killing of a Child 65
Leo 75
L'Homme Jetée 61
The Line 148
The Little Soul 66
Lockdown 95, 158
Lost Time 113
Man with Mirror 122
Message from Kiki 144
Midnight Sun 147
Mignion 64
Moon Children 155
Movie that Invites Pausing 123
My Planet 96
Myth of Modernity 115
Never Said Goodbye 110
Night Upon Kepler 452b 64
Nizar 62
No Crying at the Dinner Table 69
Not Today 128
Olla 66
Only Yesterday 136
Oracle 132
Order 115
Our Territory 102
Painter & Mom 74
Paper Landscape #1 122
Parterre 75
Peep Show 141
Persistence 111
Pick-up 78
Pointer 81
Post It! 156
POST MORTEM berlin 55
Prison Valley 125
Proxy Exam 80
Rebel 70
Rebooted 63
Re-Entry 55
Robot & the Whale 154
Roni 147
The Room 98
Sadder than Playtime on a Rainy Day 136
Salon 68
Sara's Intimate Confessions 141
Second Home 108
Shard Mosaic 69
Silence 114
The Silence of the River 53
Simbiosis Carnal 139
Since I Went Home 89
Snail Man 82
Sprout 107
Stay Awake, Be Ready 53
Stuffed 152
The Summer of 12 52
Sunsets 61
Swinguerra 133
SWITCH 140
Tail End of the Year 131
Then Comes the Evening 60
A Thousand Sails 59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99
Tie 109
Tiger and Ox 74
To Each Your Sarah 77
Tobi and the Turbobus 153
Tungrus 44, 131
Us Three 101
The Van 62
Virago 54
Ward's Henna Party 58
Where We Go 90
Wild Extension 121
Words Hurt 127
Young Ji: Work Hard 143
Young Ko Ho-seok 90
Zombies 102
The Zone 89

감독별 작품 색인 Index of Directors

한국감독 Korean Directors

강상묵 Kang Sangmuk 127
강지숙 Kang Jisook 147
김나경 Kim Nakyung 80
김다솜 Kim Dasom 155
김다혜 Kim Dahye 127
김덕근 Kim Deokgeun 77
김민재 Kim Minjae 76
김보원 Kim Bowon 80
김수진 Kim Soojin 148
김승희 Kim Seunghee 74
김영미 Kim Youngmi 74
김준혁 Kim Junhyeok 90
김지희 Kim Jihee 81
김한설 Kim Hanseol 128
김현 Kim Hyun 78
김희진 Kim Heejin 148
노도현 Roh Dohyeon 78
류민주 Ryu Minju 128
문성산 Moon Seongsan 143
박성호 Park Seongho 115
박재범 Park Jaebeom 82
서보금 Seo Bogeum 144
신종훈 Shin Jonghun 76
신택수 Shin Tacksu 79
양혜랑 Yang Hyerang 145
연제광 Yeon Jegwang 83
윤혜성 Yoon Haesung 45, 83
이경원 Lee Kyeongwon 77
이덕찬 Lee Deokchan 75
이동은 Lee Dongeun 156
이상환 Lee Sanghwan 75
이용섭 Lee Yongseop 79
이창민 Lee Changmin 82
이행준 Lee Hangjun 120
이혜연 Lee Hyeyeon 147
임소라 Lim Sora 81
전소영 Jeon Soyeong 90
전소진 Jeon Sojin 128
정인재 Jung Injae 128
조우연 Jo Wooyeon 89
주민경 Joo Mingyung 88
최연주 Choi Yeonju 88
황지혜 Hwang Jihye 89

외국감독 International Directors

Aaron Poole 아론 풀러 132
Albin Wildner 알빈 와일드너 63
Alexandra Lupsahko 알렉산드라 루프사코 65
Altjin Batchuluun 알트진 베출룬 110
Anette Sidor 아네트 시도르 139
Anghel Damian 앙겔 데미안 64
Anita Hugi 아니타 후기 126
Anna Komaromi 안나 코마로미 152
Anton von Heiseler 안톤 폰 헤이슬러 55
Ariane Labed 아리안 라비드 66
Baloji 발로지 102
Barbara Rupik 바바라 루픽 66
Bárbara Wagner 바바라 와그너 133
Batmaa Bayaraa 바트마 바야라아 109
Ben Brand 벤 브랜드 55
Ben Voit 벤 보이트 64
Benjamin de Burca 벤자민 드 버카 133
Bo Hanxiong 보 한슝 57
Carol Nguyen 캐럴 응우옌 69
Chan Tzewoon 진 재환 114
Chantal Akerman 샹탈 아커만 98, 99
Chulayarnnon Siriphol 주라얀논 시리폴 115
Chung Chenghsu 종 청쉬 140
Clotilde Bonnotte 클로틸드 본노트 152
Daniel Fahn Schoffman 다니엘 판 스코프만 156
Daria Kashcheeva 다리아 카시치바 60
David Dufresne 다비드 뒤프렌느 125, 126
Édouard Heutte 에두아르 외트 152
Élise Simoulin 엘리즈 시물랭 152
Emilie Blichfeldt 에밀리 블리크펠트 141
Enkhjargal Batjikh 엔크하르갈 바트하크 109
Erenik Beqiri 에레니크 베키리 62
Eric Hingweng Tsang 에릭 칭홍 정 59
Flo Van Deuren 플로 반 드렌 101
Forest Ian Etsler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74
Francesca Canepa 프란체스카 카네파 53
Guy Sherwin 가이 셔윈 122
Helena Bastioni 헬레나 바스티오니 152
Isabel Lamberti 이사벨 램버티 59
Ivan Milosavljević 이반 밀로사브예비치 52
Jacques Perconte 자크 페콘트 121
Jarno Lindemark 야르노 린데마크 56
Jason Wen 제이슨 웬 67
Jeremiah Estela Magoncia 제레미아 마곤시아 106
Jessica Candal 제시카 칸달 136
Jim S. Hansen 짐 S. 한센 155
João Paulo Miranda Maria 주앙 파울로 미란다 마리아 135, 158
Jonas Baeckeland 요나스 벡클랜드 101
Jonas Forsman 요나스 포스만 154
Jonathan Hug 요나탄 하우기 69
Ken Jacobs 켄 제이콥스 123
Kerli Kirch Schneider 컬리 키르히 슈나이더 54
Kim Kokosky Deforchaux 킴 코코스키 드포쇼 65
Koen Van Sande 쿤 반 산데 95, 158
Konstantin Bronzit 콘스탄틴 브론지트 56
Kuo Kuanling 쿠어 관링 52
Lasse Persson 라세 페르슨 153
Leslie Dian Williams 레슬리 디안 윌리엄스 144
Lia Bertels 리아 베르텔 58
Lobo Mauro 로보 마우로 136
Loïc Hobi 로익 호비 61
Maja Novaković 마야 노바코비치 60
Marc Angele 마크 안젤 153
Marie McCourt 마리 매코트 67
Marina Moshkova 마리나 모시코바 152
Marion Renard 마리온 레나르 140
Marisa Di Vora Peixoto 머리사 디 보라 페이쇼투 152
Martina Scarpelli 마티나 스카펠리 132
Mathieu Volpe 마티외 볼프 102
Maxime Martinot 막심 마티노 71
Michael Shanks 마이클 샹크스 63
Michiel Dhont 미치엘 돈트 95
Mirco Valenza 미르코 발렌자 62
Morad Mostafa 모라드 모스타파 58
Muhammed Furkan Daşbilek 무함메드 푸칸 다스빌렉 71
Nara Normande 나라 노르망드 137
Nasser Zamiri 나세르 제미리 54
Nikola Duravcevic 니콜라 두라브체비치 57
Nomin Delger 노민 델거 110, 112
Olivier Smolders 올리비에 스몰더스 43, 96
Otgon-Erdene Erdene-Ochir 오곤에덴 에덴오키르 111, 113
Pedroli Domenico Singha 페드로리 도메니코 싱하 61
Pham Thien An 팜 티엔 안 53
Philippe Brault 필립 브로 125
Pier-Philippe Chevigny 피어 필리프 체비니 70
Randa Maroufi 란다 마루피 70
Riani S 리아니 S 114
Rino Stefano Tagliafierro 리노 스테파노 탈리아피에로 141
Rishi Chandna 리쉬 찬드나 44, 131
Rocío Álvarez 로시오 앨버레즈 139
Romain Chassaing 로맹 샤생 127
Samy Szlingerbaum 사미 질링거바움 99
Saruulbuyan Zorigt 사룰부얀 조리트 109
Satrio Haryanto 사트리오 하얀토 106
Shekh Al Mamun 셱 알 마문 108
Shoki Lin 쇼키 린 68
Tim Paugh 팀 파우 143
Tuguldur Bayarmaa 투굴두르 바이라마 112
Tuvshinzaya Batbayar 투브신자야 바트바야르 111
Valerie Mabelle 발레리 마벨 107
Valéry Carnoy 발레리 카르노이 96
Verena Fels 베레나 펠츠 153
Vuong Nguyen Hanh 붕 누엥 한 107
Yang Chieh 양 지에 131
Zgjim Terziqi 스김 테르지키 68

도움주신 분 Acknowledgements

72H Film Festival - HQ Gwangan	Jesse Cull
72H Film Festival - Liquid Arts Network	Kenneth May
72H Film Festival - Liquid Arts Network	Jacob Smith
BNK 부산은행	박용진
BNK 부산은행	김승한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Calmin Borel
DHL	김평숙
DMZ국제다큐영화제	강혜원
ETRI	송복득
ETRI	최홍규
Festival du Nouveau Cinéma	Émilie Poirier
Fresh Wave Film Festival Limited	Vicky Wong
Kaohsiung Film Archive	Huang Haojie
Minikino Film Week - Bali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ransiska Prihadi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Tsengel Davaasambuu
NETPAC	Ashley Ratnavibhushana
Thai Short Film and Video Festival	Sanchai Chotirosseranee
São Paulo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Pedro Tinen
São Paulo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Zita Carvalhosa
Short Film Conference	Niels Putman
Shorts That Are Not Pants	James McNally
Vlaams Audiovisueel Fonds	An Ratinckx
Wallonie Bruxelles Images	Geneviève Kinet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	김상오
고려은단	김정훈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알라릭 하마처
까이에	김아영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영성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임건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김이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김병철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센터	유정예
로고 앤 캐릭터	정훈
망고미디어	김동백
모퉁이극장	김현수
모퉁이극장	김동길
모퉁이극장	김가이
바른손	박재하
바른손	정민군
베러웨이시스템즈	황영민
베이킹프라자	이지호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	Martin Beyer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	백채원
부산 중구청장	최진봉
부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주유영
부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김성학
부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김지은
부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정지영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박희연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이복자
부산교통공사	김나래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영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최지훈
부산국제영화제	이승수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항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문관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서대정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센터	김희수
부산독립영화협회	오민욱
부산독립영화협회	김지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김경화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조형동
부산영상위원회	김인수
부산영상위원회	성상철
부산영상위원회	양성영
부산영상위원회	이은사
부산영화인연대	이종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정엽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김경은
세무법인 해청	이태화
세무법인 해청	박지영
센트럴파크	홍성윤
쉐어모먼츠위드	신창렬
쉐어모먼츠위드	강나은
쉐어모먼츠위드	이진화
스튜디오 놀자	강명수
시타딘 해운대 부산	손나현
씨앗	신혜리
씨앗	정소영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지세연
엑서스아이씨티	서재두
엑서스아이씨티	이권우
엑서스아이씨티	장은주
영상물등급위원회	이미연
영화의전당	황기조
영화의전당	이승진
영화의전당	장익성
영화의전당	주남구
영화의전당	김경민
영화의전당	김세훈
영화의전당	권용식
영화의전당	남수현
영화의전당	전인룡
영화의전당	조소라
영화의전당	유주희
영화의전당	신성은
영화의전당	정희선
영화의전당	홍은미
영화의전당	전아름
영화의전당	이은영
영화의전당	차시영
영화의전당	김은혜
영화의전당	백하나
영화의전당	김명준
영화의전당	박상수
영화의전당	정진호
영화의전당	김대철
영화의전당	박영필
영화의전당	오은진
영화의전당	조광형
영화의전당	이영석
영화의전당	허영환
영화의전당	손선정
영화의전당	곽동현
영화의전당	주연이
오메가미디어그룹	박광현
작가	엄지영
(주)대륙건설광고공사	문성규
(주)인디스토리	이나현
(주)인디스토리	김인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이하진
주한 벨기에 대사관	Eva Morre
주한 벨기에 대사관	정윤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위근향
주한 퀘백정부 대표부	이윤희
주한 프랑스문화원	Jean-Romain Micol
진미디어	박찬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박정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임동섭
퍼니콘	김예은
포스트핀	변성빈
필름다빈	백다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시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이신율
한국영화아카데미	김태형
한국영화아카데미	신세경
한국영화아카데미	김홍천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임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두영
한국통번역진흥원	전인식
합천수려한영화제	권미희
해드린	김유권
해운대소방서 구조구급과	김한결
현대자동차	박승원
현대자동차	이지훈
현대자동차	양영선
혜림봉투	장영석
호우주의보	백선우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육성지원 영화제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발행인 Publisher
차민철 Cha Minchol

책임편집 Chief Editor
배채아 Bae Chaeah

편집 Editor
구세주 Goo Sejoo
이예지 Lee Yeji

번역 English Copy Editors
박송이 Viviane Park
이경태 Lee Kyungtae
장택수 Jang Taeksoo
정주현 Chung Joohyun
조용경 Helen Cho

감수 English Proofreading
한국통번역진흥원 Korea Institute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심세부 Sébastien Simon

디자인·인쇄 Book Design Printer
쉐어모먼츠위드 Share Moments With
Tel. +82-51-303-7190

사무국 Offi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607호
#607 Centum venture town, 41, Centum dong-ro,
Haeundae-gu, Busan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Tel. +82-51-742-9600 | E-mail. bisff@bisff.org

이 카탈로그의 저작권은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by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Unauthorized reproduction is strictly prohibited.

본 도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원화 | <The night is wriggle> EOMJI

OSCAR®
QUALIFYING FILM FESTIVAL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USAN CITY OF FILM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37th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7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ww.bisff.org